건축사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2 03
www.KIRA.or.kr

칼 럼 작은 거장
시 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역할
특 집 2012. 5. 31부터 건축사 자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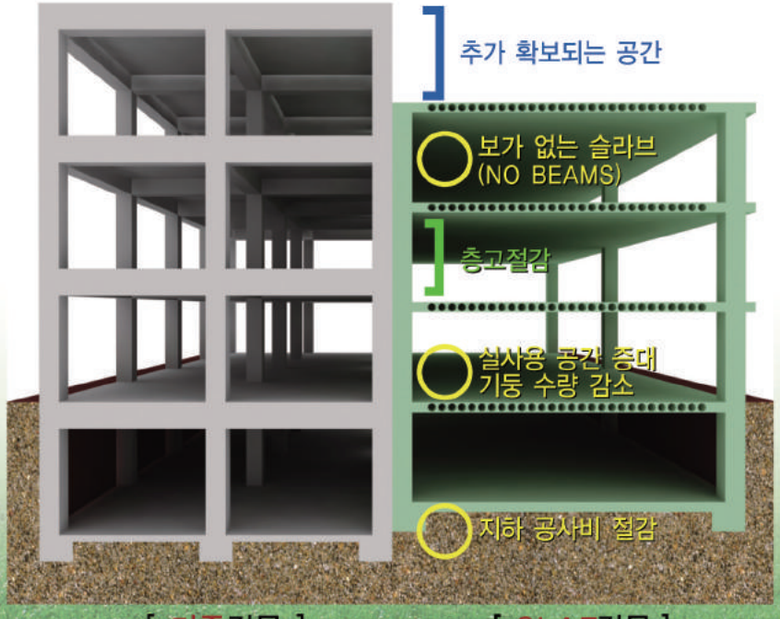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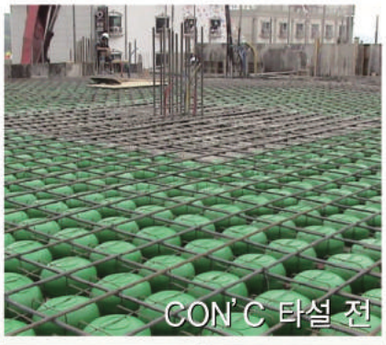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빌딩 솔루션도 **삼성 시스템에어컨**이 앞서갑니다

초고층 빌딩 공조시스템 : 최대 110m 고낙차 설계 DVM Plus Ⅳ

스카이라운지 : 빌딩의 역풍을 고려한 설계 DVM WATER

주거공간 :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초슬림 디자인 **인테리어 1-WAY**

오피스 : 구획(Zoning) 에 따른 공조설계 Mini AHU

상업공간 : 최적의 기류설계 DVM AHU
공공구역 : 친환경 대용량 지열시스템 적용 DVM GEO

지하방재실 : 설비통합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설계 Zensys

최적화된 혼합공조로 에너지 절감형 빌딩 솔루션

삼성 시스템에어컨

사용자 편리성
24시간 고장 감지 솔루션RMS(옵션)

경제성
설비기기(공조, 조명, 블라인드 등)間
협조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형 통합관리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COP 4.90(DVM Plus Ⅳ 14HP 기준)의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설계 가변성
공간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실내/외기 조합 가능

www.samsungb2b.co.kr
삼성전자 B2B(특판) 구매상담 : 1588-3536

삼성전자 SAMSUNG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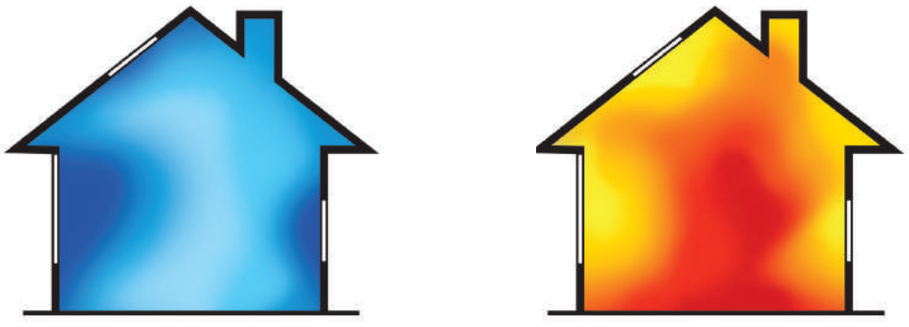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단열재만 달라도 집안의 **온기가 천지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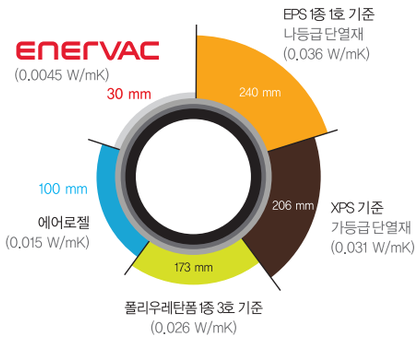


8배 높은 효과
8배 얇은 두께

단열재의 새로운 기준 에너백

기존 대비 8배 높은 단열 성능으로 에너지 효율과
공간 활용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단열재, 에너백
이제 내 집이라면 평생 단열재, 에너백이 정답입니다

▶ 단열재 종류별 열전도율(W/mK) 및 두께비교(Passive house 기준)



단열재의 혁신! 단열성능이 8배 높은 FS진공 단열재 에너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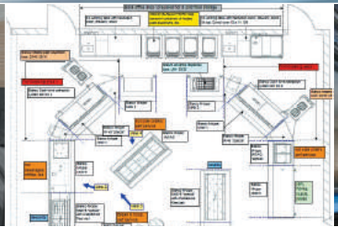
- **에너지효율성** 8배 강화된 단열효과로 냉난방 에너지 소비감소
- **화재안전성** 무기질 FS(흄드실리카)소재로 준불연 등급 획득
- **품질우수성** 대한건축사협회 우수추천자재 인증 획득
- **공간효율성** 단열두께 감소로 15%공간 확장효과 (내부면적 100m²기준)
- **친환경성** 단열재 중 국내 최초 녹색기술 인증 획득
- ▸ **연락처 02-727-9647 I www.oci.co.kr**

enervac

※ 에너백은 EPS 1종 1호 제품 대비 8배 단열성능이 뛰어납니다

주방설비시스템,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설계전문

Korea Kitchen Design



Innovative Kitchen Design, Dynamic Food Service Design and Ventilated Ceiling System

(주)코리아키친디자인은 보다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주방설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설계프로그램 및 전문 해외 컨설팅사와 제휴를 통한 Internation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고품격 주방설비 및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천정을 필요로 하는 호텔, 리조트, 연회장,
레스토랑, 병원, 단체급식,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방 설비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Kitchen Design & Planning

- 주방설비계획 및 프로그래밍(2D/3D/렌더링)
- 주방장비사양 및 설비도면, 시방 제작
- 건축,설비,인테리어 코디작업 및 섹션뷰
- 해외전문컨설팅사 협력

Kitchen Operations

- HACCP진행절차개발
- 주방장비사용프로그램
- 친환경설계 및 에너지평가프로그램

Kitchen Ventilated Ceiling System

- 선진형 주방천정환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주방시스템 구현

KOREA KITCHEN DESIGN
Food Service Consulting & Planning

(주)코리아키친디자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4-18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802호 TEL : 02-2117-0611~2 FAX : 02-2117-0613 www.koreakitchendesign.com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March 03

COVER STORY

건축과 도시환경, 경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 본다.
공간환경, 리모델링, 유지관리, 인테리어 등…

표지사진 :
본지 회원작품 중 〈아라뱃길 통합센터 & 인천여객터미널/ 이병철–이가플랜건축〉의 '전망대 서해측 전경'

발 행 인	강성익
편 집 인	조충기
편 찬 위 원 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김희곤, 송호섭, 이동우, 정병협, 최동호
취 재 · 편 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98~9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Reporte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2 칼 럼 COLUMN
작은 거장
Little Maestro
_이성관

013 시 론 FOCUS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 중간지대 건축을 위한 건축제도의 정교한 정합
The things, we must do -pin coordinating for scope of the small & mid -sized building design
_박인수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역할
The Role of Architect in Educational Facilities
_김기남

015 만 평 CARTOON
_김낙중

016 특집
2012. 5. 31부터 건축사 자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The Changes in Qualification Article in Architect's Law

018 회원작품 WORKS
아미산 전망대
A-MI MOUNTAIN OBSERVATORY
_손숙희 | (주)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권영민 | 경남정보대학 건축공간디자인과 교수

경회헌
GYEONG HOE HEON
_김태윤 | 에이엠 건축사사무소

Content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03월호 통권 515호

아라뱃길 통합센터 & 인천여객터미널
GYEONGIN ARA WATERWAY PASSENGER TERMINAL
_이병철 |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동탄국제고등학교
DONGTAN GLOBAL HIGH SCHOOL
_조도연 |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 은동신 | (주)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KINTEX 제2전시장
KINTEX CONVENTION CENTER II
_안길원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048 설계경기 COMPETITION
파주 한빛도서관
HANBIT LIBRARY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Samcheonpo Fish Market

060 건축초대석 INTERVIEW
차철용 골드문 재무컨설팅 대표
Cha, Cheol-yong Goldmoon F.C president
_박찬정

064 100작품 SKETCH WORK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Glass Pyramid of Louvre Museum
_송호섭

068 연 재 SERIAL
法돌이 3/6
Beopdoli
_이동우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3/5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_정재희

077 공 고 NOTICE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080 기 고 FEATURE
건축사 연금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This is reason why we need pension plan for architects!
_김청권

강재 내화피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A turning point to shift of fireproof covering of steel structure
_김시형

088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작은 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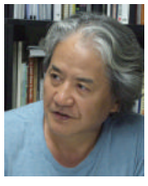
Little Maestro

"「현대건축사 111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라파엘 모네오'라는 건축사는 그 건축사 특유의 건축 재료나 특징이 없다는 이유로 비평가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붉은 벽돌의 '김수근'이나, 단순함의 '르 꼬르뷔지에'처럼 건축사들이 그 나름의 상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강의를 듣게 되었다.

특강을 진행하신 ○○○ 교수님의 작품들은 많이 본 건축물들이었지만, 한 건축사가 설계했다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달라보였다. 그 이유는 건물이 그 목적과 주변 사정에 맞게끔 재료와 형태를 달리 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좁은 삼각형 땅에 세워진 건물은 창과 색을 통해 공간에 확장감을 주었으며, 또 삼각형 형태의 외부를 통해 삼각형 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 공간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맥락을 잘 따져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건축사가 된다면 나만의 특징을 갖고 싶었으나, 설명을 듣고 나니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고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은 나를 알리기 전에 사람을 위하는 것이므로, 그곳이 사람들에겐 어떤 곳인가, 그 어떤 곳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좀 더 생각해보니, 나는 궁금했던 두 번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란, '현대 한국건축에 옛 전통을 가미해야 하는가?'였는데, 넣으려 하니 편견인 듯하고, 빼자 하니 안타까웠다. 나는 비로소 이 역시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은 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지역 조사로 탄생했다. 동향인 이유도 사찰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이고, 불상의 채광반식도 사찰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공간을 제대로 읽어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건축사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성관 | Lee, Seong-kwan, KIRA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 대학 대학원
- 콜롬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
- 미국건축사(AIA 회원)

이글은 1년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읽게 된 어느 16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건축답사 후기 전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이글을 읽고 놀라움에 답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학생의 어머니는 격려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었다. 인문, 사회과학적 소양이 쌓이기 쉽지 않은 어린 학생이 보여준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내 마음속에서 감동의 갈채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몇 개월 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겪게 되는데, '2011 공연장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수많은 출품작 중 우연히 고등학생 작품이 눈에 띄어 유심히 보게 되었다.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연필로 표현한 드로잉이었다. 비록 내용은 미흡했지만 그 용기와 진정성 있는 계획안이 마음에 들어 동료 심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그 말고도 중학생이 제출한 안도 하나 더 있다고 알려주었다. 자연스럽게 동료심사위원들과 나는 그 작품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앞서 말한 고등학생의 작품보다 내용과 표현이 더 알차있었고 계획안의 주제설정과 의도가 분명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작품의 스케치에는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선들의 유연함이 있었다. 모든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했으며 애초 선정된 16명의 본선인원에서 1명을 더 추가하여 이 중학생을 최종면접 참가자 명단에 넣기로 했다. 사실 나의 제일 관심사는 과연 이 스케치와 작품이 그 학생 스스로의 솜씨였는지와 어떤 성장배경과 이유로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였다. 2차 심사 면접날, 처음 접한 그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계획안에 관한 주장에서도, 그 어떤 부끄럼이나 위축됨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신성의 탄생을 기리며 응원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8명의 수상권에는 들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특별상이라도 추가 제정해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주최 측과 상의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수상하는 그날 공식행사가 끝난 후, 이상림 한국 건축가협회장이 직접 그 학생에게 행사장 옆 장소에서 별도의 수여식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덧붙이자면, 이 두 가지 독립적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나의 기우(?)대로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4차원'이라는 on-line nickname을 쓰는 이 중학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시상식장 옆 조촐한 장소에서 특별상을 받아준 작은 거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 중간지대 건축을 위한 건축제도의 정교한 정합

The things, we must do -pin coordinating for scope of the small & mid -sized building design

박인수 | Park, In-soo, KIRA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약력
- 승실대학교 동 대학원 졸업
- 전. (주)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최근 '서울시 공공건축가'[1]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의 공공건축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의도가 충만하다. 부디 의도대로 진행되어, 서울과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길 간절히 희망 한다.

필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선정되어, 그 1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좋은 중소규모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관련제도가 상호 충돌되어 상당한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형편이다.

우선 건축사가 업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그 설계비와 설계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설계비는 면적단가 기준, 혹은 공사비 대비 비율로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작은 주택에선 그 업무를 추진하기 너무도 힘들다. 특히 발주처의 업무가 과한 것으로 소문난 경우, 컨설턴트들은 그 업무를 기피하기 일쑤다. 규모가 크면 면적단가로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작은 프로젝트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필자가 당선 후 가장 어려웠던 일이 컨설턴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러 다니는 일이었다. 참 감사하게도 몇 분이, 이런 십자가를 같이 져주셨다. 그리고 설계기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승인, 실시설계를 모두 2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이었다. 참 웃음이 나는 스케줄이었지만, 농담이 아님을 알고는 매우 심각해졌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공의 업무는 모두 처리한이 있어 계약심사 며칠, 계약 며칠, 사업승인 며칠 등 다 정해져 있는데, 유독 설계기간만 정해진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 급한 스케줄에 담당자들은 법정 기간이 없는 설계기간만 줄이는 결론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진행과정상 본질이 훼손되는 결과였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건축계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양한 문제점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내용에 대해 협회나, 관련단체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건축 관련 공공분야도, 관련 협회들도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다. 각각의 문제에 성실하고,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 또, 서로의 고충과 문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련문제가 너무도 많으니[2],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다. 그래서 급히 두 가지만 정했으면 한다. 최소 설계비, 최소 설계기간[3], 우선 이 두 가지 만을 공공에서 결정해 주더라도 상당한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최소설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그간 사용된 공사비 대비나 면적대비에서 벗어나, 실비위주의 판단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업무들의 분량을 계상하여 실질 업무비와 교차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최소 설계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 소명자료를 갖고, 증액 요청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건축업무가 '별 볼일 없게' 취급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기간도 최소의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한다. 건축사업무대가기준에 나오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각 단계를 공공행정업무와 정합하여 시간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최소 설계비와 최소 설계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재 서울시가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해 만들어내려는 좋은 의도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관련된 사람들만 소진되고 말 것이다. 건축설계분야 전체의 비용과 기간을 정하기엔 그 업무가 너무도 크니, 우선 일정규모 이하, 최소규모에 대해서만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외국의 좋은 건축물을 보면 우리는 감동한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생각한다. 프랑스의 '그랑드 아르쉐', 영국의 '배드제드'를 보고 좋다고 하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한다. 그럼 다시 묻는다. '그랑드 아르쉐'의 설계비가 얼마였냐? 설계기간은 어떠했냐고, '배드제드'의 설계비는 얼마였고, 설계기간은 얼마였으며, 거기에 감독관이나, 공무원들의 역할을 무엇이었냐고? 어떤 제도 하에 진행된 것이냐고?,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일했냐고?[4]

건축관련제도의 섬세한 정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모두 설계를 볼 필요가 없다. 봐서도 안 된다. 건축 관련 자신의 직분에 맞게 보아야 한다. 발주자는 그들의 발주를, 설계자는 그들의 설계를, 시공자는 그들의 시공을 보아야 할 것이다. 발주도 설계를, 시공도 설계를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축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발주자는 발주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시공자는 시공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울시공공건축가'는 고유명사이다. 2) 최근에 일조권 관련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모 공공기관에서 건축계의 의견을 묻지 않고 민원에 대한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공공행정업무처리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묻지 않는 오만한 태도의 부서는 강력한 항의와 사회적 물의 관련 비용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 그냥 넘어가는가? 3) 최소 설계비, 설계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전체 설계비와 기간을 정하기 위한 파일럿 업무의 성격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다 보니, 그 실행이 어렵다. 금번 서울시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설계에 관한 표준 업무와 그 기간과 비용에 대한 기초 증빙자료만 모아진다고 해도, 진일보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4) 영화 '말하는 건축가'에서 정기용 선생은 '외국에 문제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모든 문제와 답이 있다'고 하였다. 외국의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의 문제와 답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절실하다.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역할

The Role of Architect in Educational Facilities

김기남 | Kim, Gi-nam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석사)
- 기술고시(15회)
- 교육부 시설기획 담당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봄이 찾아 왔다.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이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된다. 특히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가정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된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가정과는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

교육의 삼대요소라면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시설을 일컫는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과거의 학교는 그리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춥고, 덥고, 콩나물 교실이라 일컬을 만큼 열악한 교실환경에 익숙했다. 무엇보다 재래식 화장실은 아파트식 주거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은 교육시설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개선되었고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교체되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도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양적확대 못지않게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다「학교표준설계도」에 의한 설계가 건축사에 의한 설계로 전환되었다. 학교의 모습이 다양화 되고 교과 과정에 부응하는 학교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졸업정원제에 따른 대학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대학설계도 현상설계에 의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건축에 건축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정부도 대학시설의 지원을 위한 BK사업, 누리사업 등 정책을 수행하였다.

교육시설은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기본시설과 더불어 기숙사, 체육관, 미술관, 음악관, 강당, 식당, 병원 등 또한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시설보완과 함께 기계 · 전기설비 등 제반시설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건물의 안전점검, 놀이시설 안전점검, 급식시설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 건물 안전점검, 공사감독 등 제반건축관련 업무가 산재하고 있다.

건물의 생애 주기는 신축의 6배 이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듯 건물도 안전진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건강기록카드가 있듯 건물이력 카드가 있어야 한다.

최근의 교육시설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초 · 중등학교시설은 이미 수백 개의 학교가 민간투자사업(B.T.L)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학의 기숙사 또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교장이나 대학 총장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없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관리자가 바뀔뿐더러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행정을 하기에는 버겁다. 또한 관련 직원들도 잦은 인사이동과 더불어 수많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교육시설관련 소홀로 징계를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오는 교장들의 경우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은 몰라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고문건축사가 필요할 때다. 외국의 대학의 경우는 이미 대학자체 고용된 건축사가 있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의 시설관련 공무원의 순회점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시설의 평생관리 측면에서는 고문변호사 제도와 같은 학교 고문건축사 도입을 제안해 본다.

2012년 흑룡의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러한 바람이 입법화되는데 일조하는 선량이 뽑히길 손꼽아 기다려 본다.

잠실 초고층 빌딩의 항공기 대책
: 항공기용 터널을 설치했습니다.

김낙중 | Kim, Nak-jung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약력
- 홍익대, 미 Pratt 건축대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 수상

2012. 5. 31부터 건축사 자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건축사 자격제도 변경

배경

국제 환경의 변화

- WTO 및 FTA의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에 직면
- 국제기준(UIA권고기준)에 맞는 자격제도 요구

국내 환경의 변화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
- 수준 높은 건축설계의 요구
- 다양한 사회적 변화 수용에 대한 요구

건축사 제도의 변경내용

기존 제도

- 교육이수 →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건축사업무
  - ※ 학력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 부족해도 단기간 기계적 학습을 통해 자격획득

변경 제도

- 교육이수 → 실무수련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자격등록 → 실무교육 → 갱신등록
  (UIA권고안을 기준으로 국내여건을 감안 개정)
- 외국과 같은 자격체계와 유지관리 위한 건축사등록원 설립운영(미국 : NCARB, 영국 : ARB, 독일 : BAK, 프랑스 : CNOA)

2. 실무수련 제도 신설

주요내용

- 3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제도취지

- 건축실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으로 전문성을 확립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한 국제기준 충족

관련근거

- 건축사법 제13조
  - ※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
- 건축사법시행령(안) 제15조
  - ※ 3년 이상의 기간에 465일 이상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함.

감독건축사

- 건축사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
-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감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의무 지님

실무수련 대상자

- 건축학인증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대학원 : 학사과정 (건축전공) 2학기 이상 이수자
  학사과정 (건축 비전공) 4학기 이상 이수자
  - ※ 건축학 비 인증 과정 졸업자 (2023년까지 유예) : 실무수련 4년
  - ※ 법 시행일 전 5년제 졸업자 : 실무경력을 실무수련으로 80% 환산 인정
  - ※ 현행 건축사예비시험 : 2019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 ※ 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 2026년 12월31일까지 특별전형에 응시가능

3. 건축사자격 등록제도 신설

주요내용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자격을 등록 해야 함
- 기존 – 건축사업무수행 : 건축사업무신고 (지자체)
- 변경
  건축사업무수행 : 건축사자격을 등록(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업수행 : 건축사 자격등록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지자체)
  -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 소속건축사 : 건축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협회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제도취지

▶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으로 연계되는 건축사자격의 체계적 관리

▶ 국제기준의 자격제도에 맞추어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관련근거

▶ 건축사법 제18조 제1항,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2항 제4호

※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대한건축사협회)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 대상자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모든 건축사

▶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사도 2013. 5. 30까지 등록하여야 함

건축사 윤리선언

▶ 등록 신청 시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함.

▶ 윤리선언을 위반 할 시 징계대상이 됨

※ (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

4.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제도 신설

주요내용

▶ 건축사자격 등록 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5년) 건축사자격을 갱신등록

제도취지

▶ 건축사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 동기 부여

▶ 실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

관련근거

▶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시행령(안) 제26조 제2항

※ 건축사 자격등록 후 5년마다 건축사자격을 갱신등록 하여야 함.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절차

신고서 작성 협회 홈페이지 접속 신고서다운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작성

구비서류 접수 건축사윤리선언서 등, 시 · 도건축사회 또는 우편 접수

접수확인 신고서류 및 구비서류 확인(본회)

등록증 발급 건축사 자격 등록증, 건축사 개인 – 인터넷 출력

5.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 신설

주요내용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사항으로 5년 내 60시간 이수

제도취지

▶ 건축사자격 취득 이후의 계속적인 직능교육 유도

▶ 건축전문직으로서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의 여건 조성

관련근거 (건축사법시행령(안) 제30조 제1항)

▶ 등록한 건축사는 5년에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실시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실무교육 종류

▶ 윤리교육 ▶ 전문교육 ▶ 자기계발

실무교육 방법

▶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 활동 참여

6. 건축사 등록업무 추진일정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 개정공포

2011년 6월 국토해양부로 부터 건축사 등록업무 협회 위탁 문서 수령

2011년 7월 건축사등록업무 준비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

2012년 1월 건축사 등록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 착수

2012년 4월 건축사 등록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 완료

2012년 5월 31일 건축사 등록업무 개시

Q & A

Q 기존 건축사도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A 기존 건축사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Q 교육은 언제부터 어디서 하여야 하는가?

A 교육은 2012년 5월 31일부터 협회에서 실시(현재 실시방안 수립 중)

Q 건축사 윤리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가?

A 인류, 국가, 사회, 건축주, 동료건축사, 자기자신,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로 구성

Q 기존 위탁업무인 건설기술자, 건축사 실적관리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A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이고, 실적관리는 건축사법이나, 관련규정이 등록업무와는 성격이 다름.

현재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위탁업무 모두 전산상 연계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음

Q 등록업무를 협회에서 수행하는데 회원의 혜택은?

A 법률에 근거한 등록업무는 회원과 비회원 차별을 금지함.

회원은 실무교육 부분에서 협회 활동, 교육수강 등에서 비회원과 다른 혜택부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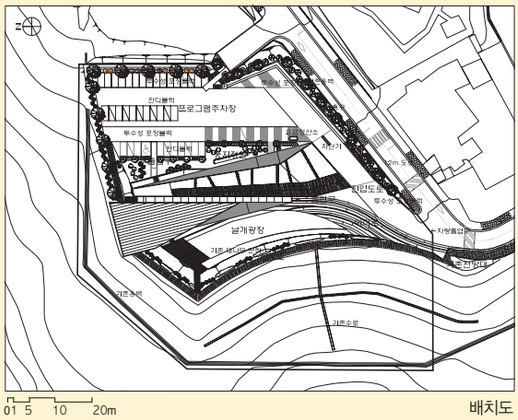
아미산 전망대

A-MI MOUNTAIN OBSERVATORY

손숙희 – 정회원 | (주)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권영민 – 경남정보대학 건축공간디자인과 교수
Architects - Son, Sook-hee · KIRA + Kwon, Young-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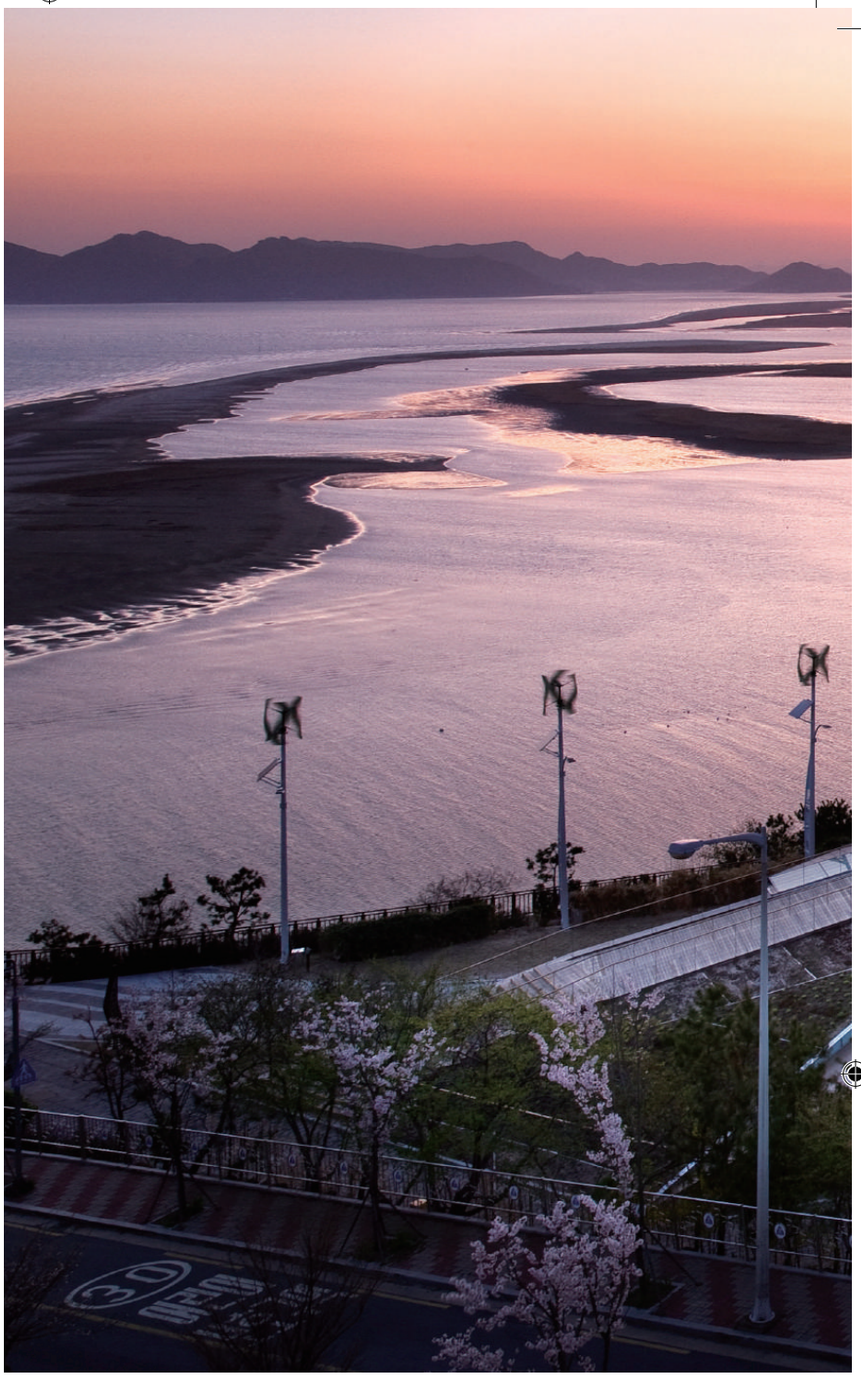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
대지면적(Site Area) | 10,25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962.73㎡
연면적(Gross Floor Area) | 1,310.6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9.4%
용적률(Floor Area Ratio) | 12.78%
규모(Building Scope)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부분철골조
마감재 | 목재, 복합패널, 로이복층유리
시공사 | 신태양건설(주)
건축주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설계팀 | 김성률, 이형삼, 최창규, 박정훈
• 전문기술자협력
– 구조분야 : (주)대한구조안전기술
– 설비분야 : 상록엔지니어링
사진(Photographs) | Jo, Myung–hwan

Location | Busan Saha-gu Dadae-dong 1548-1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Dae Han Structural Engineers Co., Ltd.
HVAC Engineer | Sangrok Eng.
Finishing Materials | Wood, Composite Panels, Low-e glass
General Contractor | SinTaeYang Construction Co., Ltd
Client | Busan Metropolitan City Construction Headquarters
Project Team | Kim, Seung-youl / Lee, Hyung-sam / Choi, Chang-gyu / Park, jeong-hoon



01 5 10 20m

배치도



여기 작은 언덕 앞에 펼쳐진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또 변해가는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철새들의 약속된 장소로서, 편안한 안식처로서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의 흔적을 그리게 하는 새로운 흔적의 하나로 아미산 전망대가 그려지길 바래본다.

건물을 디자인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장소와 건축이 빚어내는 풍경이었다. 전망대는 풍경이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어 어떠한 감성을 일깨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디자인 과정 전체를 아울렀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 전망대와 수공간이 빚어내는 풍경, 전망대와 하구가 함께 그려내는 풍경. 이러한 다양한 풍경들은 환경적 생태와 관련된 경험적 기억의 흔적들을 일깨워 주리라 기대하였다. Eco Trace를 회상해 가는 과정, 그것이 아미산 전망대 디자인 대안의 본질이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은 환경시설의 랜드마크로서 기존의 탑형식의 전망대와는 다른 디자인 대안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장소적 성질을 담고 있지만, 자신 또한 자연의 일부가 되어 풍경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디자인적 개념이 전체적 틀로 형성되었다.

The Nakdong Delta, unfolded before this little hill, is the place where ever- changing scenery exists. As a rendezvous and comfortable nest for migratory birds, the place is still alive today. Hoping that people who visit the A-mi Mountian Observatory could visualize the place as a new trace of this beautiful nature.

At the design stage, the important part that we have in mind was its landscape created by the place and architecture. Observatory is not just the place of fine view, but the place where its beautiful view awake the sleeping sensibility. And the point is what kind of view are we going to create and what kind of sensibility could be awoke through it. Such was the main idea encompassed the whol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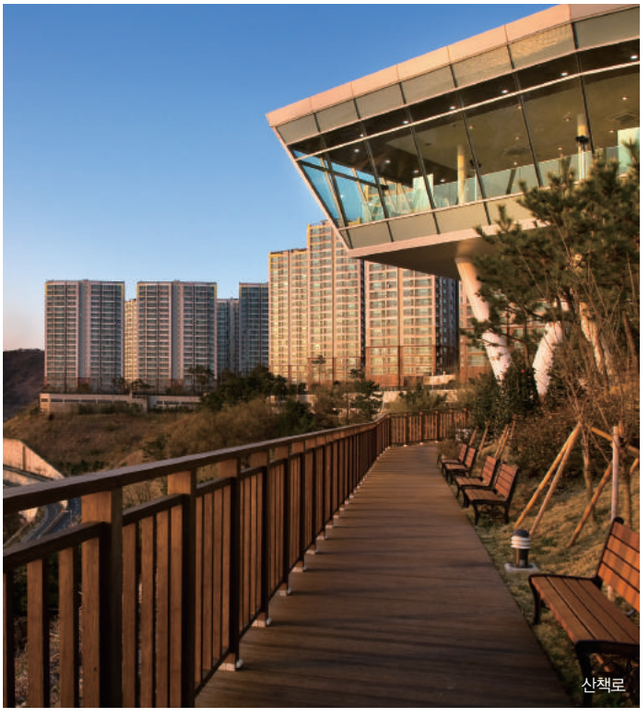
A grand view from the observatory, the landscape created by the observatory and water space and the scenery spread out between the observatory and the mouth of Nakdong River. Hopefully those infinite variety of landscapes will bring back one's experimental memory traces of environmental ecology. 'Reminiscence of Eco Trace' is the essence of A-mi Mountain Observatory design alternative.

This process suggested a researchable direction for design alternatives as a landmark of environment facility contrary to existing tower-form observatories. A-mi Mountian Observatory is a place to look at the nature landscape and it could also be a part of nature and the landscape. And such characteristic was formed as the concept of design.

부출입구에서 바라본 수공간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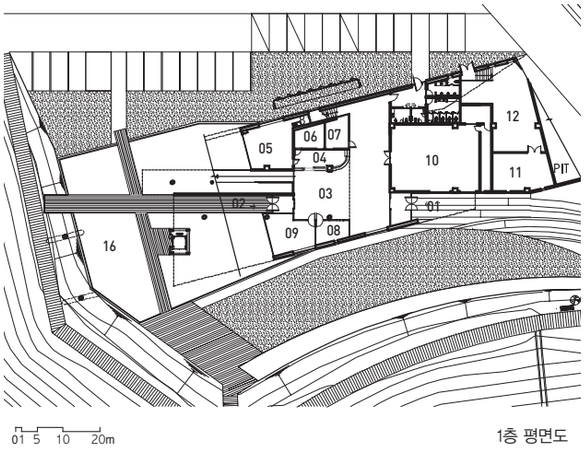
앞마당에서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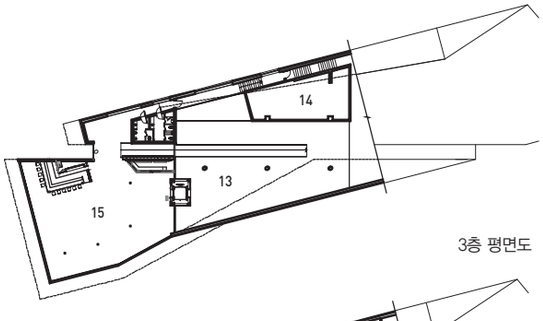
산책로

수공간에서 바라본 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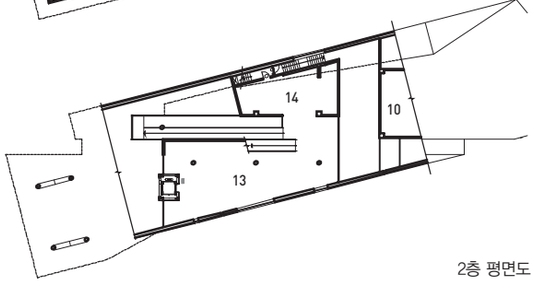
01_ 주출입
02_ 부출입
03_ 홀
04_ 안내데스트
05_ 사무실
06_ 학예연구실
07_ 자원봉사실
08_ 경비실
09_ 접견실
10_ 다목적 프로그램실
11_ 전기실
12_ 기계실
13_ 전시실
14_ 자료실
15_ 전망대
16_ 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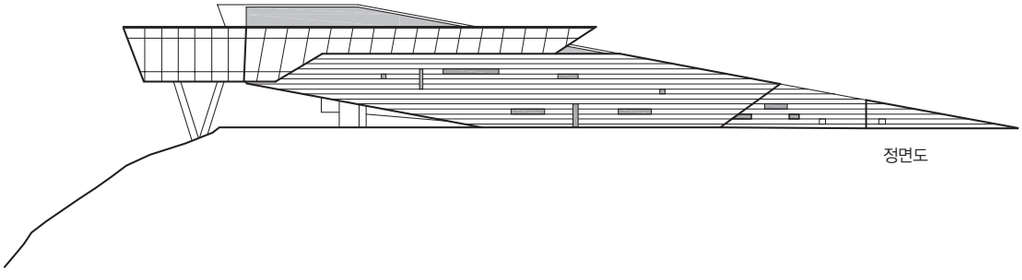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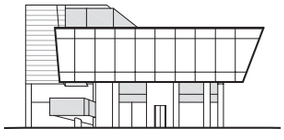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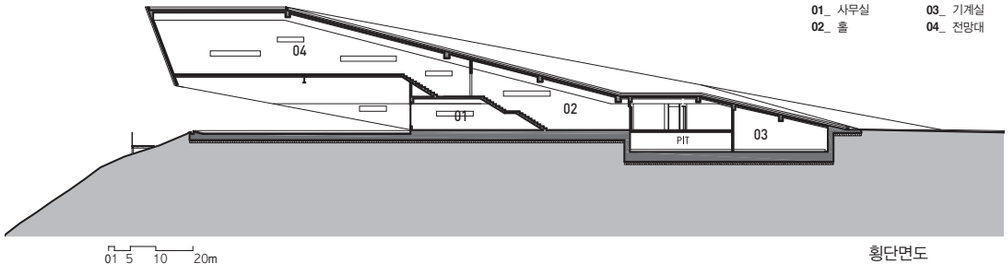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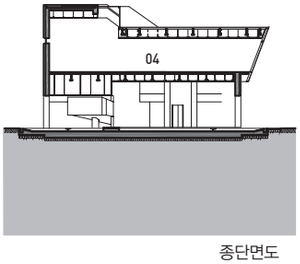


좌측면도



01_ 사무실
02_ 홀
03_ 기계실
04_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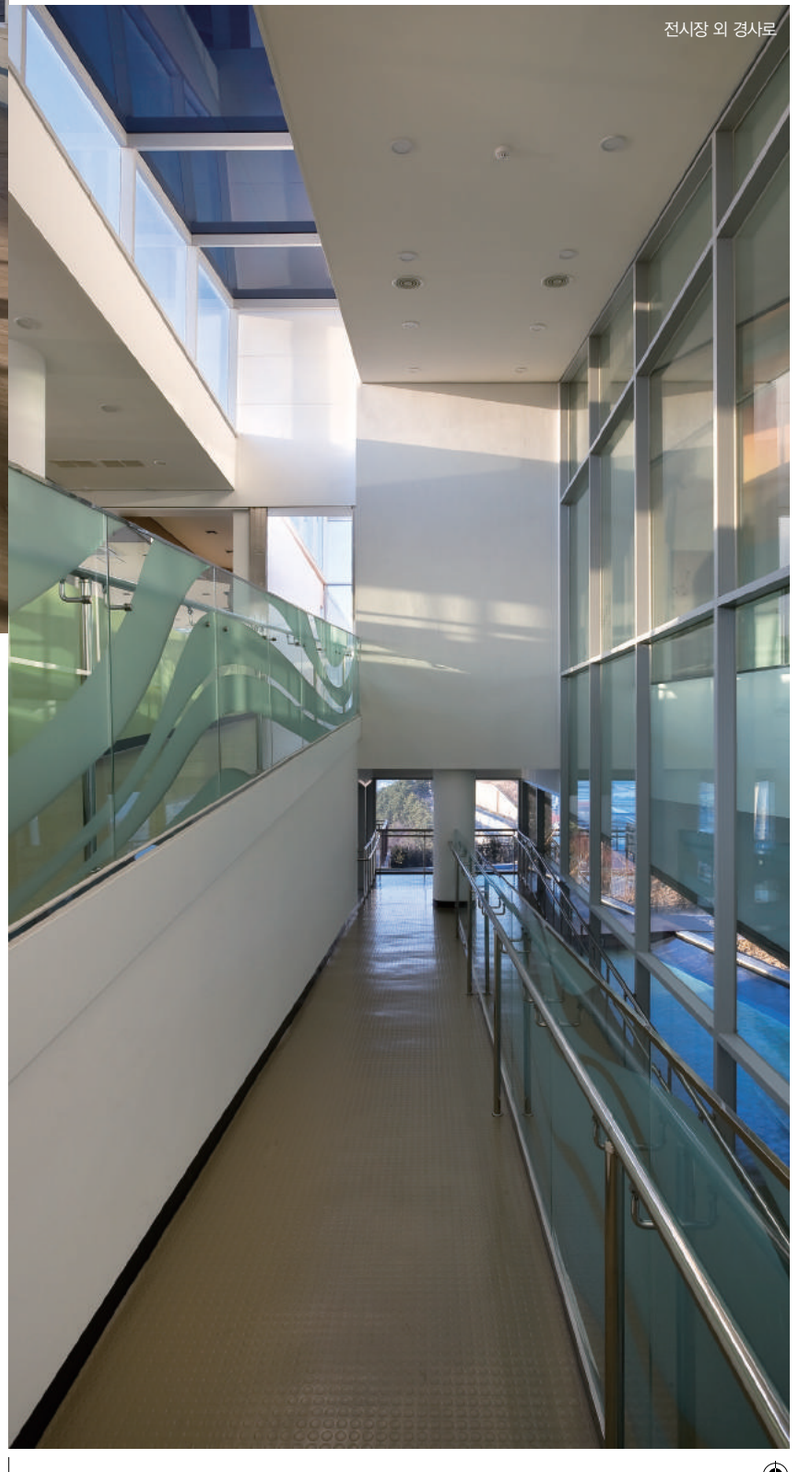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1층 주출입구

2층 전시장



전시장 외 경사로

전시장 내 경사로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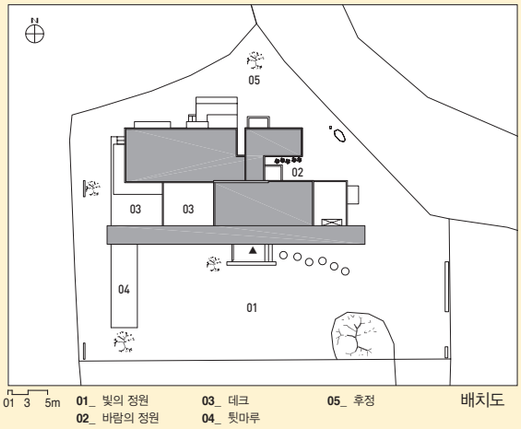
경회헌

GYEONG HOE HEON

김태윤 – 정회원 | 에이엠 건축사사무소
Architect - Kim, Tae-yun · KIRA

대지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766
대지면적(Site Area) | 625㎡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4.7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96.4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52%
용적률(Floor Area Ratio) | 31.4304%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목재패널, 강마루
시공사 | 이영석
건축주 | 권흥락
설계팀 | A.M architects & Partners
• 전문기술자협력
– 구조분야 : 진선 – 설비분야 : 서진 – 전기분야 : 뉴한국
사진(Phorographs) | Kim, Tae-yun

Location | Cheongdo-gun Gakbuk-myun Namsan-ri 766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Jinseon
HVAC Engineer | Seojin
Electrical Engineer | Newhanguk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Wood panel, Hardwood floor
General Contractor | Lee, Yeong-seok
Client | Kwon, Heung-rak
Project Team | A.M architects & Partners



배치도

자연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

대지는 전원주택단지의 끝단에 위치한다. 진입공간으로 들어서면 자연의 흐름을 타고 드러나는 수평적 볼륨과 수직가벽이 극적인 대비효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진입동선은 연속적인 건축적 장치(수직과 수평가벽)에 의해 유도되며 천천히 이동한다. 그리고 횡적으로 길게 펼쳐진 볼륨의 리듬을 타고 서서히 진행된다. 진입방향성을 따라 노출된 외부의 물성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흐름을 타고 내부영역으로 이어진다.

내부공간으로 들어서면 순간 선택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물리적 경계를 넘어 고스란히 투영된다. 시선은 개방된 통로의 벽면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끝벽의 비워진 프레임을 통해 의도된 자연의 요소를 관망하는 투시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공간의 확장을 유도하는 건축적 장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한다. 거실로 들어서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유리벽을 통해 잔잔한 외부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다가온다. 수평적인 흐름을 타고 전개되는 열린 시선은 외부의 물성이 담긴 노출콘크리트 사이 벽과 음각된 난간의 동적인 움직임에 이끌리며 상층으로 천천히 이동한다. 순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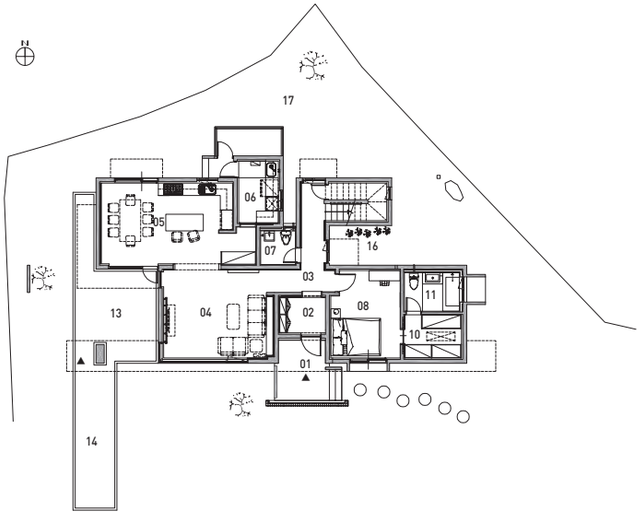
된 작은 프레임을 통해 선택적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모습들은 차경 수법을 통해 새롭게 다가온다. 동선은 천정의 빛을 타고 서서히 진행되며 부유하는 전망데크를 통해 더 가깝게 자연과 소통한다. 비워진 공간사이로 침투되는 자연의 빛은 유리난간을 투과해 물성이 담긴 벽면에 동적인 각도로 길게 확산되며, 온화한 볕으로 모여든다.

Look at the nature from a variety perspectives and go out for Promen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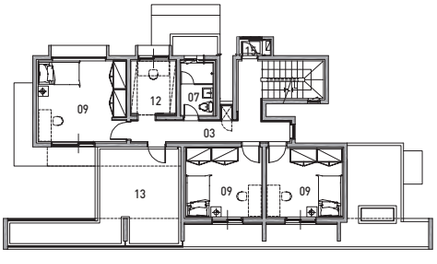
The site is located at the end of Garden Housing Complex. When entering the entrance, the horizontal volume unveiled through the natural flow and the vertical free-standing appear being enlarged in the dramatic contrast. The circulation for entry, guided by continuous architectural devices (vertical and horizontal free-standing walls) slowly moves. And then it slowly progresses through getting into the rhythm of volume extended laterally. The external properties exposed along with the directivity of entry is led to the internal domain through riding the flow of light from moment to moment. When entering the internal space, the landscape which is selectively seen is projected as it is, beyond the physical boundary. Our eyes slowly move along the surfaces of the walls in the open passageway and then expressed as the perspective effect that overlooks the intended natural elements through the empty frame at the last wall. Also, it communicates in harness through the architectural device that induces the extension of a space. When entering the living room, the external landscape approaches as if it is panorama through the glass walls continuously connected to each other. Our open eyes developed along with the horizontal flow are attracted by the concrete walls in between with the property of external matters and the dynamic movement of the intagliated rails moves to the upper levels slowly. At that instance, the appearance of the nature which is selectively seen through the intended small frames newly approach us through the borrowed landscape technique. The circulation of movement communicates with the nature more closely through the view deck that progresses slowly through riding on the light from the ceiling and drifts. The light of the nature penetrated through the emptied space penetrates the glass rails and diffuses lengthways on the surfaces of the walls with the properties of matters at the dynamic angle and then gather as warm sunlight.

자연의 빛이 연출하는 재료의 물성 표현

01_ 포치
02_ 현관홀
03_ 통로
04_ 거실
05_ 주방/ 식당
06_ 다용도실
07_ 외욕실
08_ 내실
09_ 침실
10_ 드레스룸
11_ 내욕실
12_ 서재
13_ 데크
14_ 툇마루
15_ 발코니
16_ 바람의 정원
17_ 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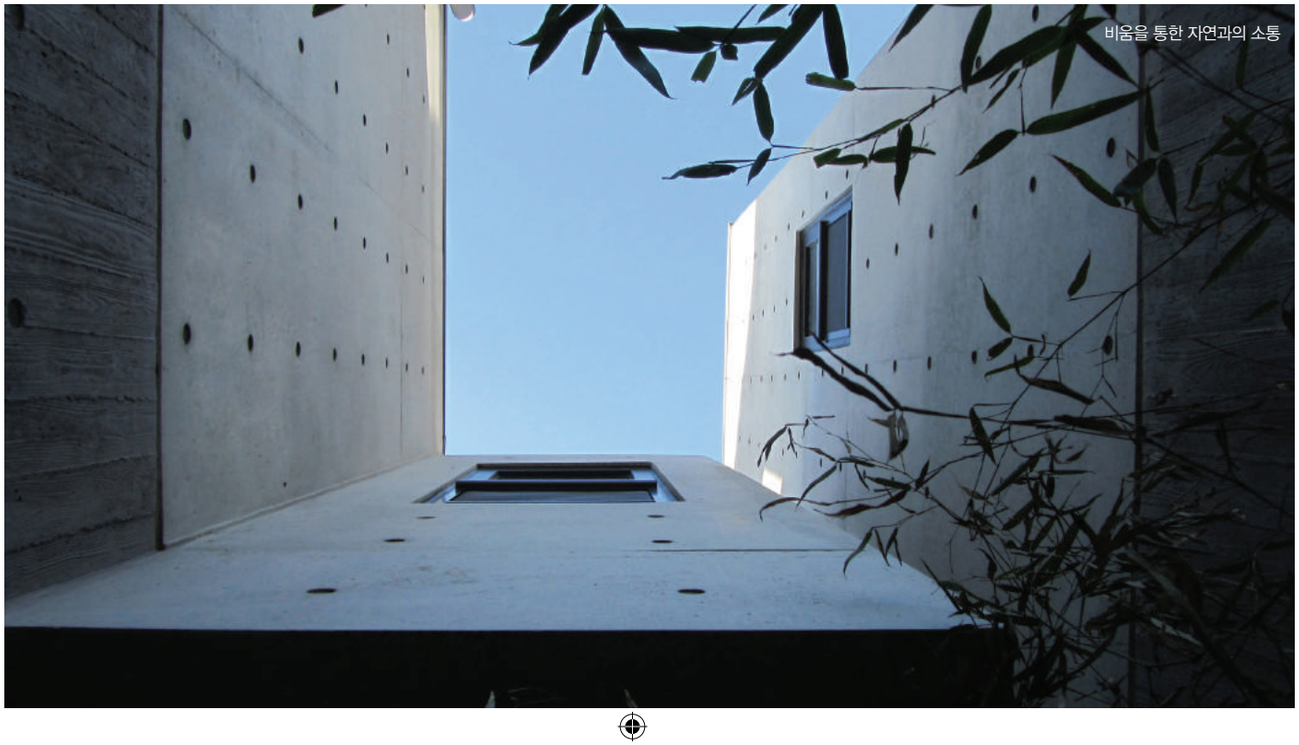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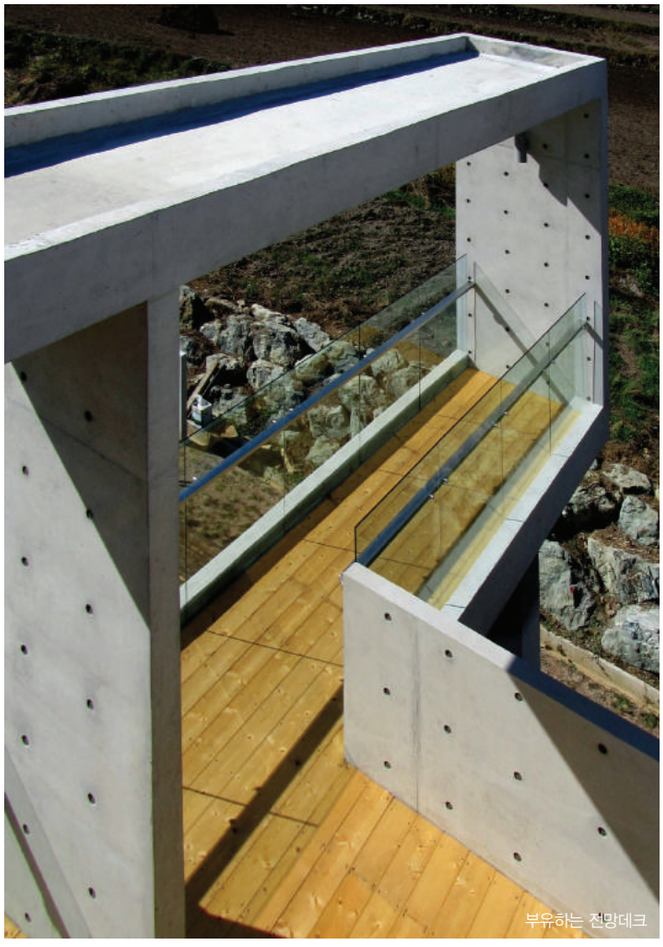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선택적 조망을 위한 돌출된 개구부와 전망데크

자연의 흐름을 타고 전개되는 부유하는 볼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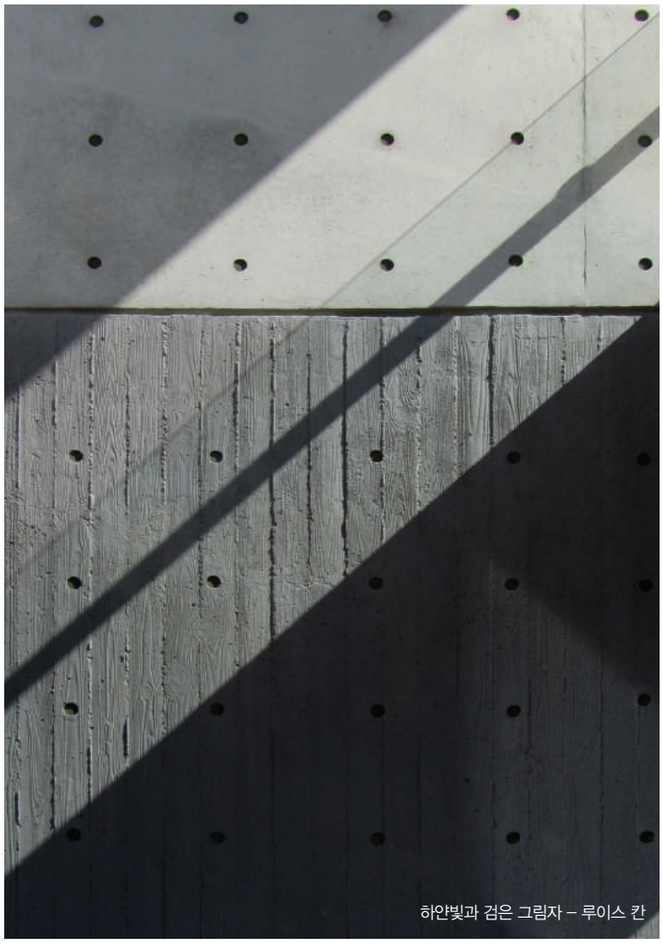


비움을 통한 자연과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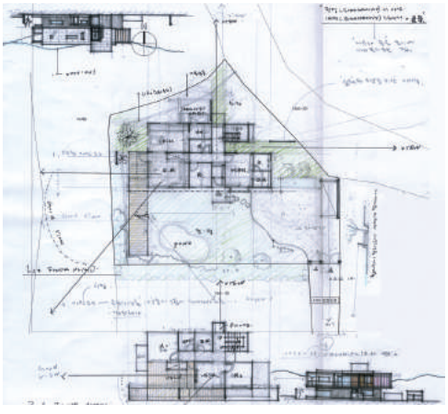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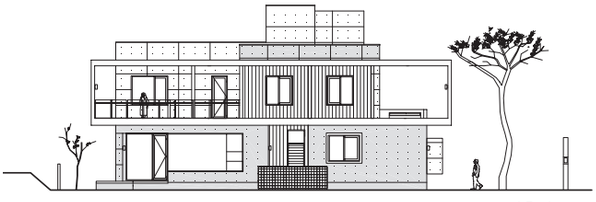
부유하는 전망데크

변화하는 빛의 흐름을 타고 전개되는 시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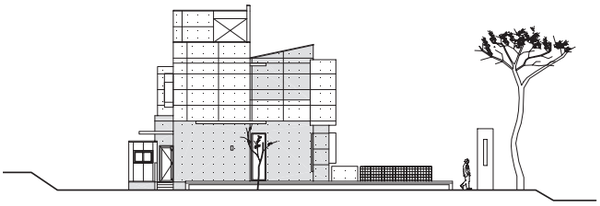


하얀빛과 검은 그림자 – 루이스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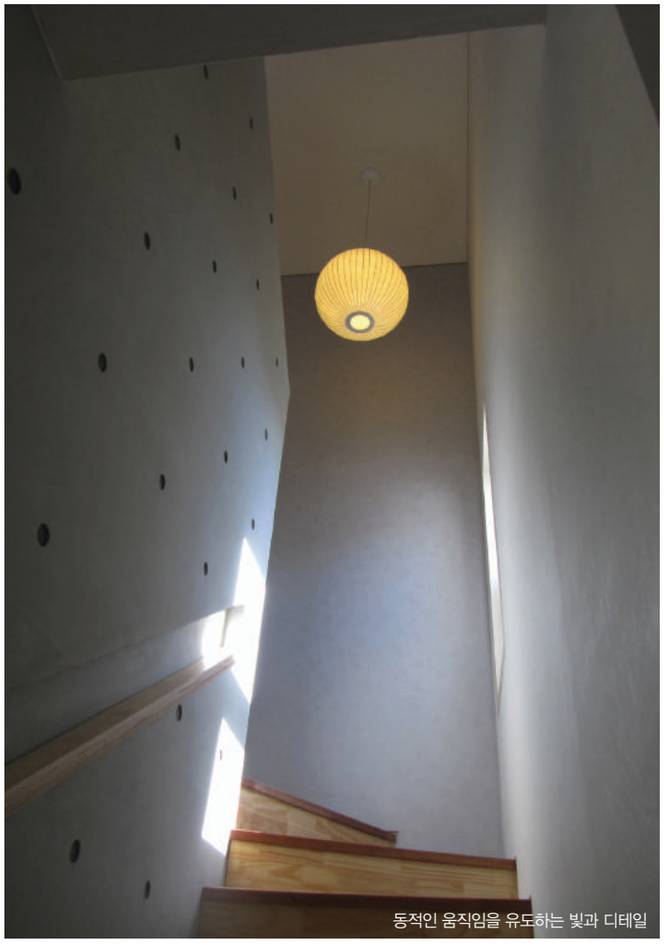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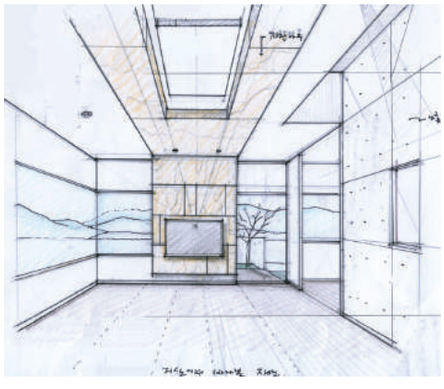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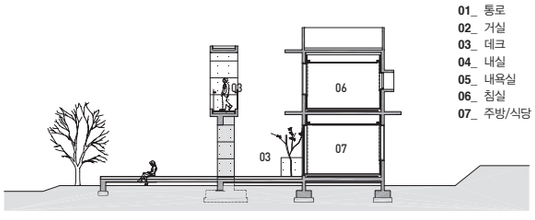
서측면도

공간의 확장을 유도하는 건축적 장치에 의한 자연과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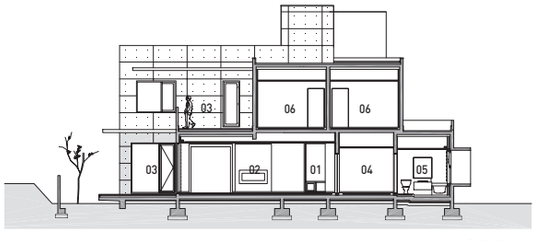


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빛과 디테일





종단면도



횡단면도

차경수법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자연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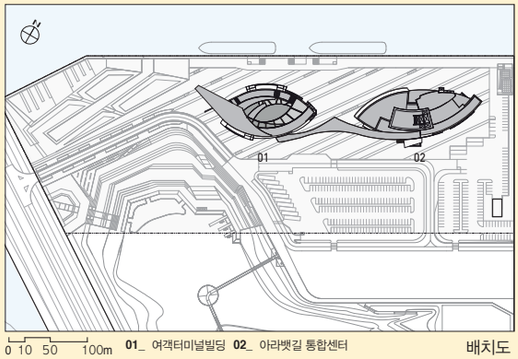
아라뱃길 통합센터 & 인천여객터미널

GYEONGIN ARA WATERWAY PASSENGER TERM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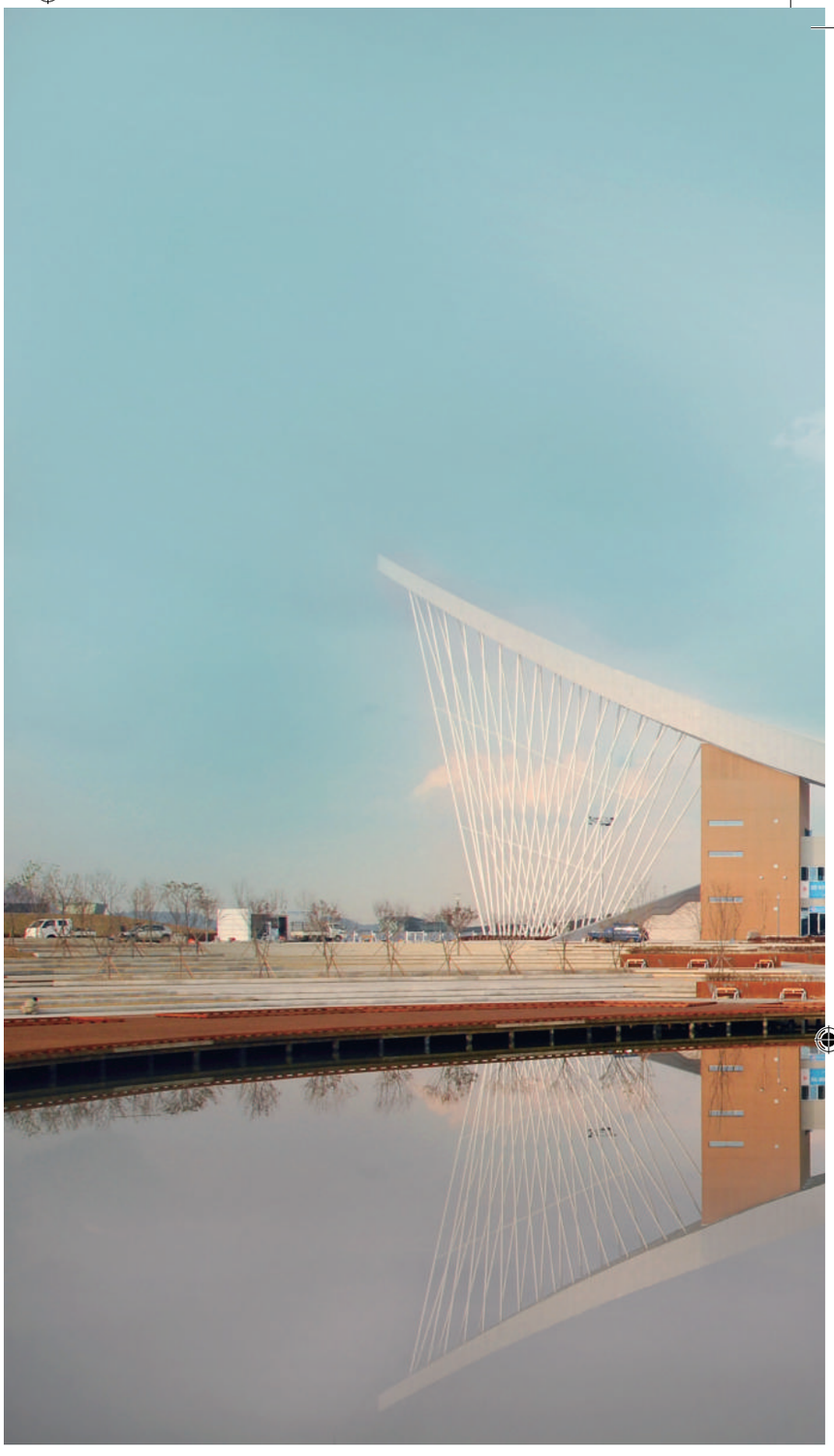
이병철 – 정회원 |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Lee, Byung-chul · KIRA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동 산 72–12번지 일원
대지면적(Site Area) | 60,83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5,855.2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1,671.8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9.6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19%
규모(Building Scope) | B1–6F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마감재 | 알루미늄아연판, 합성목재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알루미늄시트
시공사 | 현대건설(주)
건축주 |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설계팀 | 엄경배, 홍승우
• 전문기술자협력
– 구조분야 : 은구조 기술사사무소 – 설비분야 : 청우이엔지, 한국설비
– 전기분야 : 자영엔지니어링
사진(Photographs) | Lee, Kwan–ho

Location | Incheon Seo-gu Baekseok-dong
Structure | S.C, R.C
Structural Engineer | Eun Structure
HVAC Engineer | CHUNGWOO engineering, HANKOOK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JAYOU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Aluminium Zink, Wood Plastic Composite Panel, Compressed Cement Panel, Aluminium Sheet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Client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WATER
Project Team | Om, Kyong-bae / Hong, Seung-woo



01_ 여객터미널빌딩 **02**_ 아라뱃길 통합센터 배치도



본 프로젝트는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사업 중 서해측 시작부분으로, 바다와 강의 교류지대에 위치해 있다. 국내 최초의 내륙수로인 아라뱃길은 총 18km이며, 그 중 첫 번째로 완공된 유선형의 건축물은 여객터미널과 경인항통합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여객터미널빌딩은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이용자 접근동선이 전이(轉移)되는 기능적 공간으로, 이용자에게 명확한 동선제시 및 각종 서비스 영역의 시각적 인식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대합실'을 마련하여 제한조건을 해결했다. 승하선동선과 전면도로측 동선, 옥상광장 진입동선, 통합센터 홍보관 접근동선은 기능적인 주동선으로 타원형의 평면구성으로 건물 전체입면이 정면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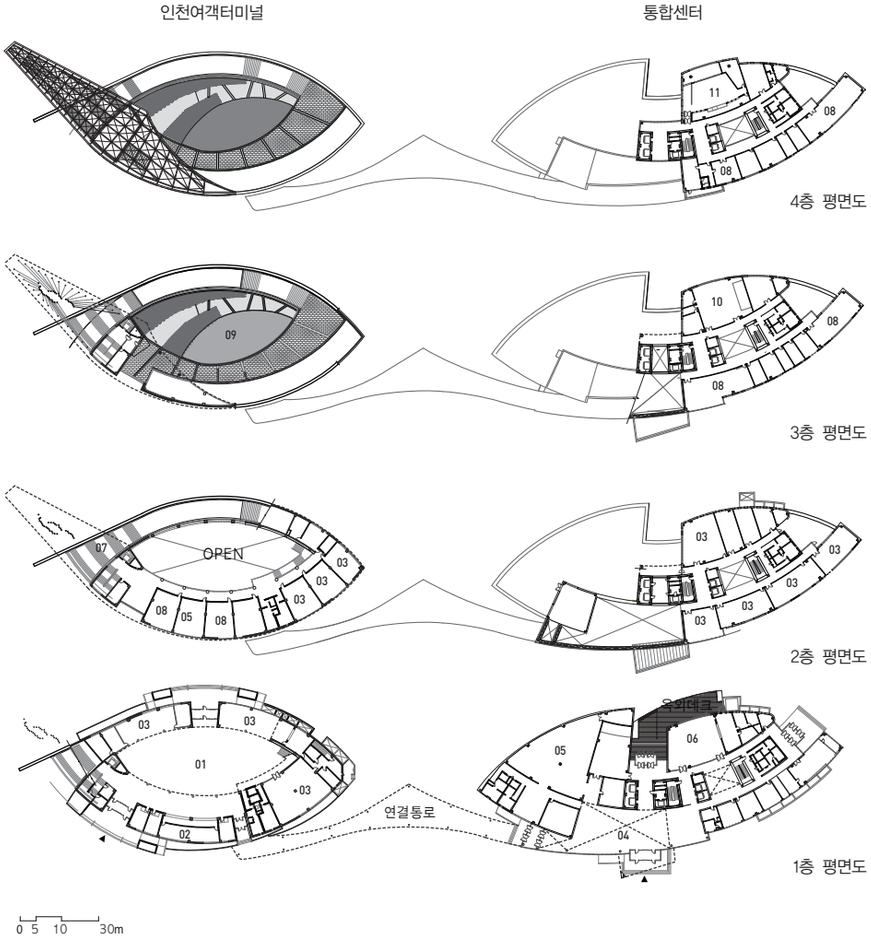
남측 전경

통합센터는 아라뱃길 전체를 관리하는 공공업무영역과 뱃길방문객을 위한 전시 및 경관 관람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업무영역과 전시 및 경관 관람영역을 소통시키는 핵심공간인 통합로비는 건물 남측의 대규모 섬공원이 시공간적으로 관입되어 조석과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감상이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통합로비를 중심으로 업무영역에는 근무자의 이용 동선상 소통이 가능한 'Semi-Public' 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전시관람영역은 저층부 홍보관과 고층부 전망대로 두 개의 관람프로그램이 단절되지 않도록 투시형 전망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수역측 전경

호수측 전경



01_ 대합실
02_ 매표소
03_ 임대실
04_ 로비
05_ 홍보관
06_ 식당
07_ 옥외계단
08_ 사무실
09_ 옥상조경
10_ 상황실
11_ 중앙통제실

This project is the beginning part at the Yellow Sea side of the Gyeongin ARA Waterway Project, and is located at the meeting place of river and sea. ARA Waterway, the first one as inland waterway in Korea, is 18km in total. This streamline-shaped structure, the first one completed on the waterway, is composed of the Incheon Passenger Terminal and Gyeongin Port Comprehensive Center.

The Passenger Terminal Building is a functional space where flows of sea transport and land transport users are transferred. Si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lear movement directions to passengers, and to let them visually identify various service areas, it provides the Central Waiting Hall. Movement lines of getting in and getting off the ship, of entering the roof-top plaza, and of approaching the Publicity Hall are main movement lines. The oval-shape building allows visitors to recognize any entrance as the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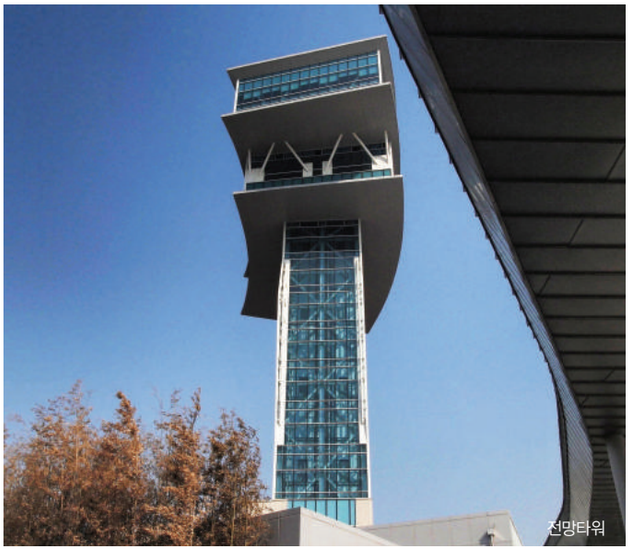
The Comprehensive Center consists of two parts - the public work area for managing the whole ARA Waterway, and the exhibition and scenary observatory area for visitors. The Comprehensive Lobby, a space linking the public work area and the exhibition and scenary observatory area, and which is part of the big-size Island Park to the South of the building, is designed to make it possible for visitors to appreciate various sceneries of it depending on ebb and flow of the tide and seasonal change. The public work area is designed to be 'Semi-Public' area where visitors can get access to it. The exhibition and scenary observatory area consists of the Publicity Hall in its lower floor and the Observatory Deck in the upper floor, two of which are organically connected by the transparent Observatory Elevator.

여객터미널 옥외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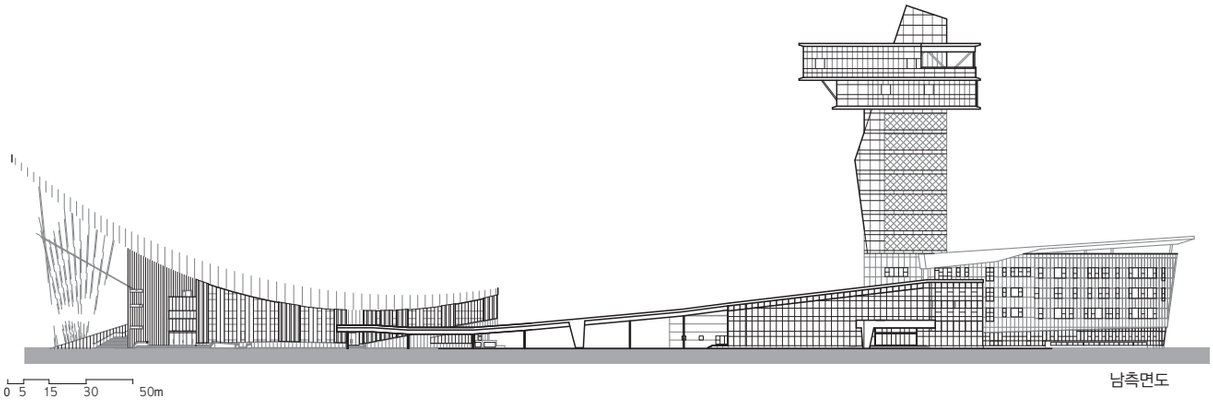
외부 연결통로

전망대 서해측 전경

전면 진입부



전망타워



남측면도

내부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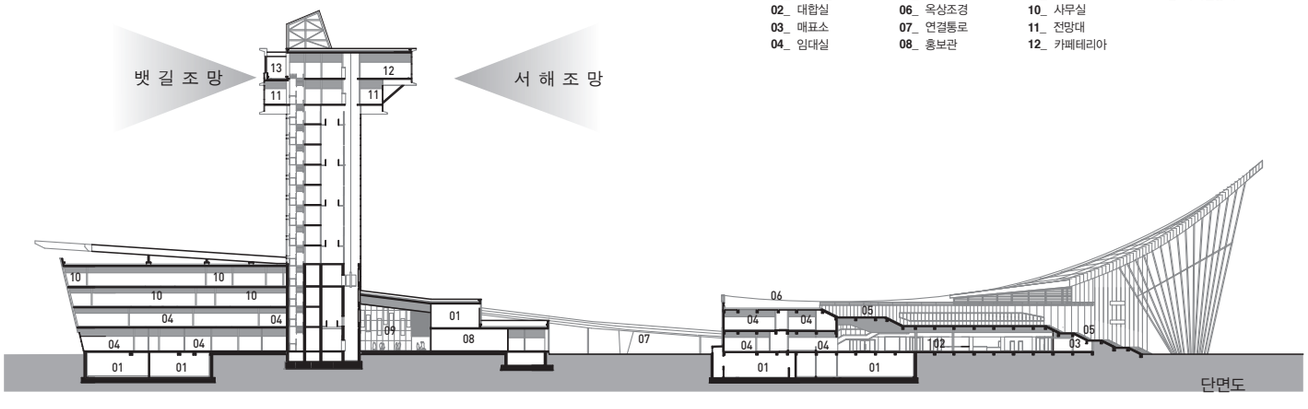
로비

E/V홀

전망대 레스토랑

전망대 내부전경

01_ Utility실
02_ 대합실
03_ 매표소
04_ 임대실
05_ 옥외계단
06_ 옥상조경
07_ 연결통로
08_ 홍보관
09_ 로비
10_ 사무실
11_ 전망대
12_ 카페테리아
13_ 옥외전망데크



단면도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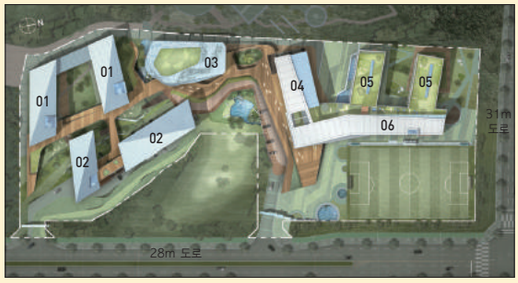
동탄국제고등학교

DONGTAN GLOBAL HIGH SCHOOL

조도연 – 정회원 |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
은동신 – 정회원 | (주)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o, Do-yeon · KIRA + Eun, Dong-shin · KIRA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03번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27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26,446.4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734.92㎡
연면적(Gross Floor Area) | 23,117.3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1.95%
용적률(Floor Area Ratio) | 90.42%
규모(Building Scope) | 교과동 : 5F / 기숙사동 : 6F / 체육관동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마감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시공사 | 이화공영 주식회사
건축주 | 경기도 교육청
설계팀 |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 전문기술자협력
– 구조분야 : (주)아이스트 – 설비분야 : (주)세진이앤이
사진(Photographs) | Kim, Myung–sik

Location | Geonggi-do Hwaseong-si Bansong-dong 203
Structure | School Building-R.C. / Gymnsium Building-S.R.C. / dormitory Building-R.C.
Structural Engineer | I'st Structural Engineering Co.
HVAC Engineer | SEJINC
Electrical Engineer | YEDA Engineering Co.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Titanium Alloyed Zinc, Prestressed Wood Panel, Brick
General Contractor | EE-HWA Conctruction Co.
Client |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Project Team | D&B Architecture Design Group



01_ 기숙사동(여학생)
02_ 기숙사동(남학생)
03_ 체육관 식당동
04_ 국제전문교실 특별교실동
05_ 교과교실동
06_ 행정관리 / 특별교과동

배치도

분할되어 있는 대지

_주변 컨텍스트와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다 :
경관녹지를 중심으로 두 개의 분할된 대지에 교육영역과 생활영역을 나누어 배치하는 것으로부터 계획은 시작되었다. 타운하우스와 녹지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는 기숙사를, 아파트와 도로가 인접한 곳에는 교사동을 배치하였고, 분할된 대지의 중심에 있는 경관녹지에는 중앙광장과 식당, 체육관을 계획하여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전체의 소통의 장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24시간 학교생활

_기능적인 동선연계와 자연을 끌어안은 교육 · 생활의 場 :
동탄국제고등학교는 24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

동측 학교 정문에서 교과동을 바라보는 전경

고 지각할 수 있는 내, 외부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가 교육과 생활의 공간기능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기숙사와 교사동을 통하는 합리적 동선의 제공 :
대지의 중심에 위치한 체육관과 식당이 학생동선의 중심이 되고, 교과동에서는 홈베이스가 중심이 되어 각 국제 교실동 및 특별 교실동과 중강의실 동선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Functional Concepts

_실내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형 교과유니트 :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쾌적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각 교과유니트는 4개의 교실+자료학습코너+교과연구실+코어의 클러스터형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3개 층이 open된 실내아트리움을 형성하여 쾌적하고 다이내믹한 실내공간을 연출하였고 아트리움내의 open계단을 통해 2,3,4층 학습공간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기숙사, 식당 deck와 연결되어 있는 교과동 2층에는 동아리실, 휴게실, 자치회실과 같은 학생활동의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여 기숙사, 식당, 교과동의 주된 동선흐름이 2층을 중심으로 연계되도록 고려하였다.

자연의 흐름, 트임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형성하다 :
경관녹지와 인근공원의 자연 축을 연결하여 대지의 오픈 공간을 형성하고, 각 동 사이의 트인 공간을 교차한 바람 길을 만들어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을 형성하였다. 데크를 기숙사부터 교과동까지 연결하고 교사동의 내부까지 끌어들여 외부 녹지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다.

Separated Site

_To make new education environment through communication with context:

The plan has started from positioning education zone and residential zone on two separated sites around the landscape. Dormitories are located on the calm area enclosed with town-house and landscape, school buildings where the apartments and road are close. The central square, cafeteria and gymnasium are planned on the landscape so as to be used for the place of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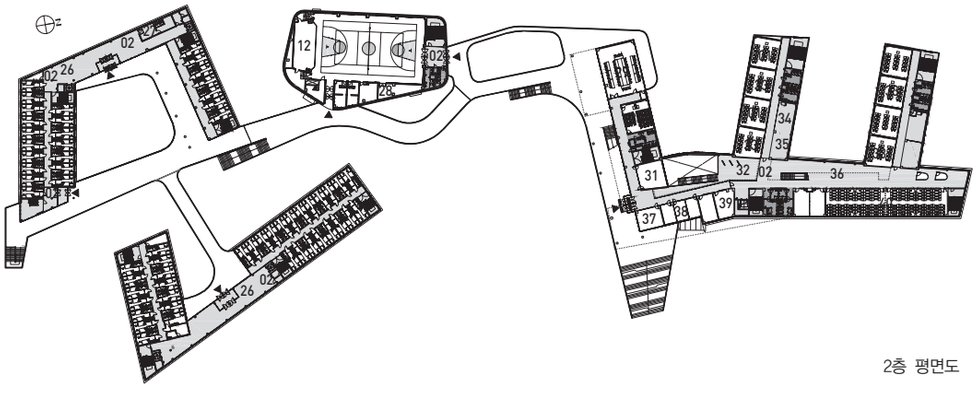
24 Hour School Life

_The place of education and living to link functional circulation and to embrace the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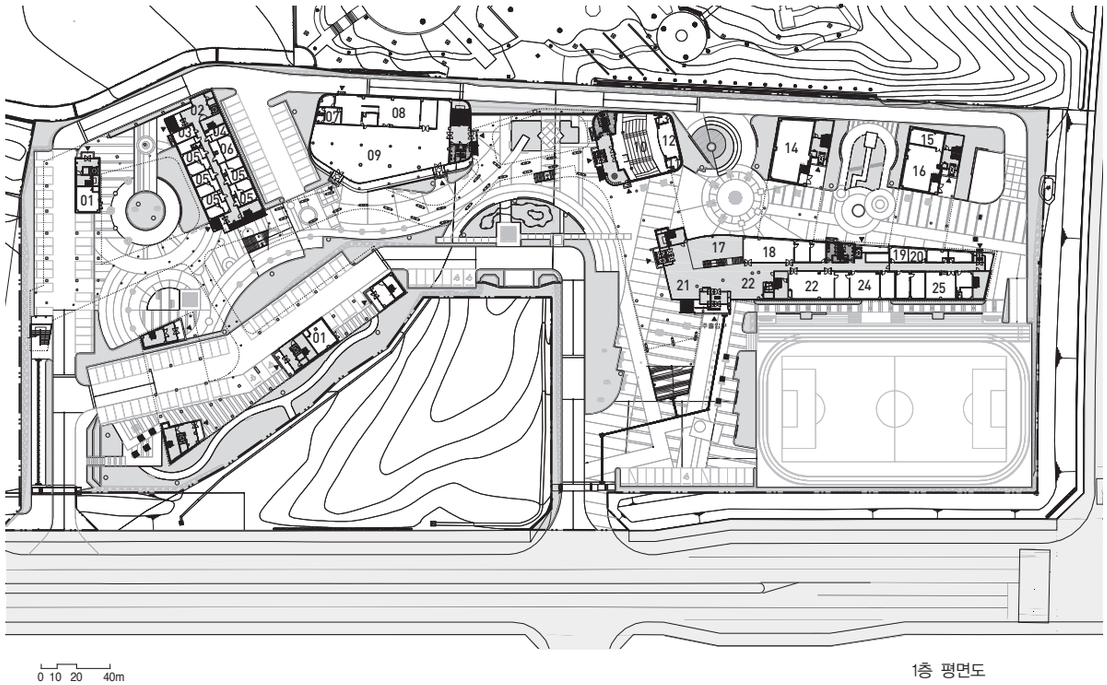
Dong-tan International High School is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for the students living in the school for 24 hours. It is planned for the school to satisfy education and living spaces by presenting indoor and outdoor spaces to allow experiencing and recognizing various events on the school living that is likely to be tedious.

_To provide functional circulation through dormitory houses and school buildings:

It is planned that the gymnasium and the cafeteria located at the cent of the site become center of the circulation system. In school building, the home-base is core of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special purpose classroom and middle sized classroom.



2층 평면도



0 10 20 40m

1층 평면도

01_ 전기온수기실
02_ 홀
03_ 세탁실
04_ 초빙교사숙소
05_ 외국인숙소
06_ 장애인실
07_ 휴게실
08_ 조리실
09_ 식당(300석)
10_ 시청각실(200석)
11_ 조정실
12_ 무대
13_ 준비실
14_ 기계실
15_ 발전실
16_ 전기실
17_ 국제홍보실
18_ 교무실
19_ 생활상담실
20_ 성교육상담실
21_ 학교역사 및 전시공간
22_ 로비
23_ 행정실
24_ 교장실
25_ 양호실
26_ 휴게공간
27_ 사감실
28_ 기구창고
29_ 국제정치경제연구실
30_ 컴퓨터실
31_ 세미나실
32_ 친환경교육전시공간
33_ 중강의실(국어)
34_ 학습자료코너
35_ 홈베이스
36_ Eco-rium
37_ 자치회의실
38_ 동아리실
39_ 학생휴게실
40_ 자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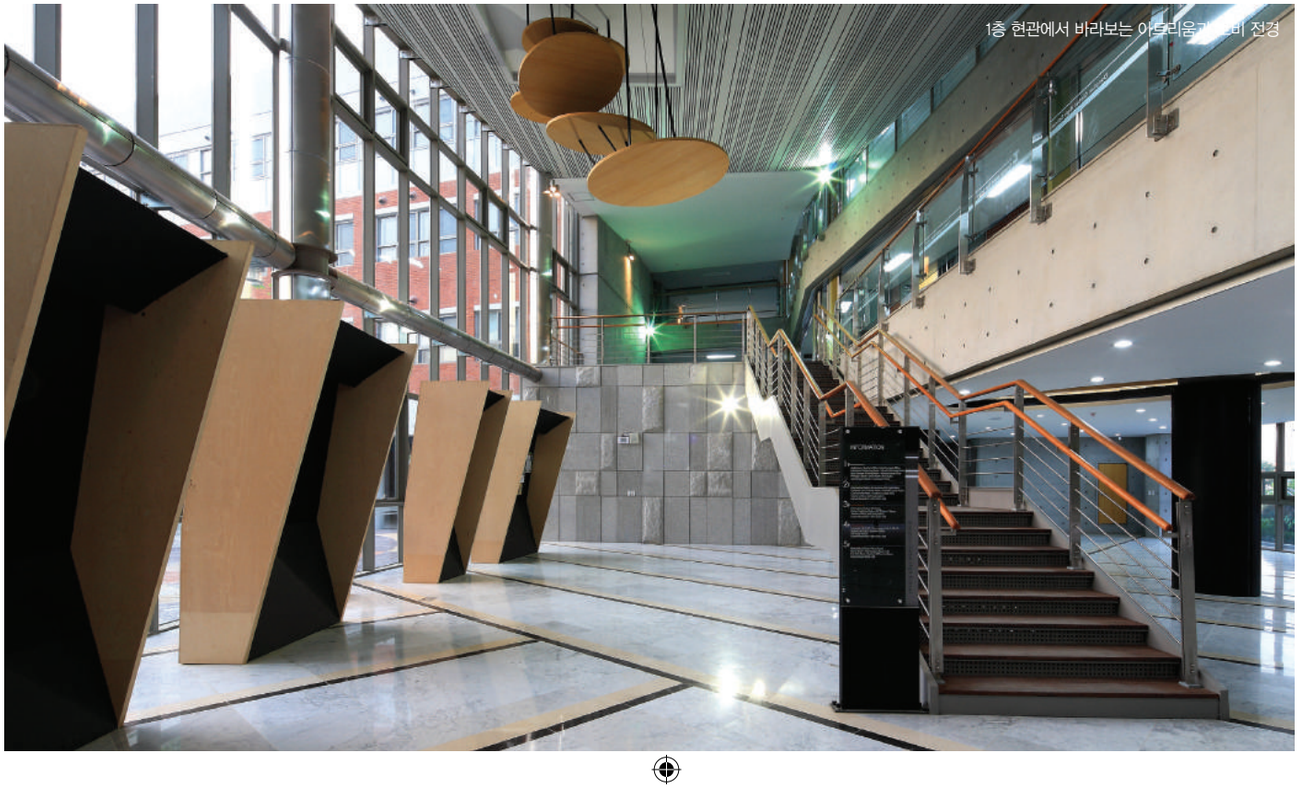
동측 운동장에서 특별교과동을 바라보는 전경

남측 기숙사에서 교과동 전면을 바라보는 전경

동측 부진입구에서 기숙사와 체육관을 바라보는 전경

교과동, 체육관, 기숙사를 연결하는 deck와 기숙사 전경

교과동과 교과동 사이 안마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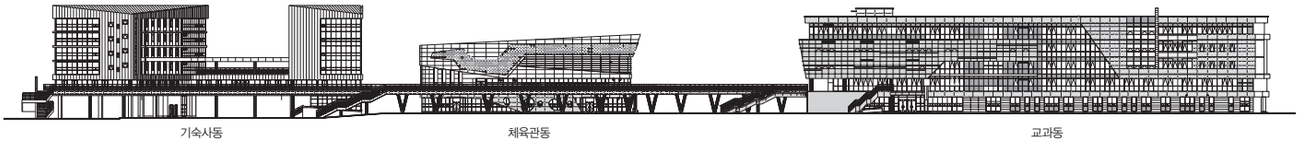
1층 현관에서 바라보는 아트리움 로비 전경

3층 ma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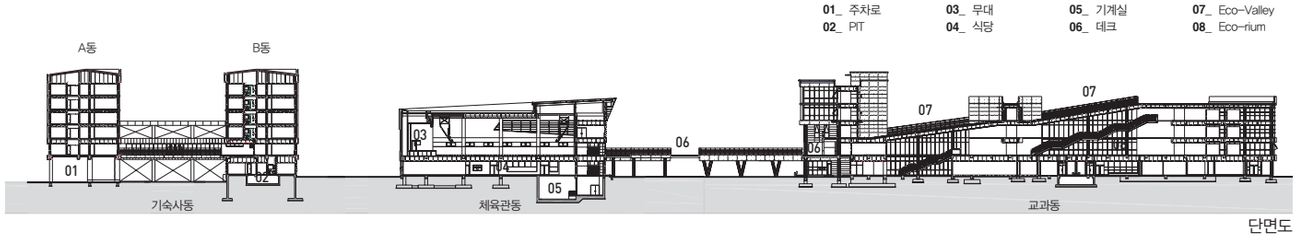
국제회의실

시청각실

탈의실



입면도



단면도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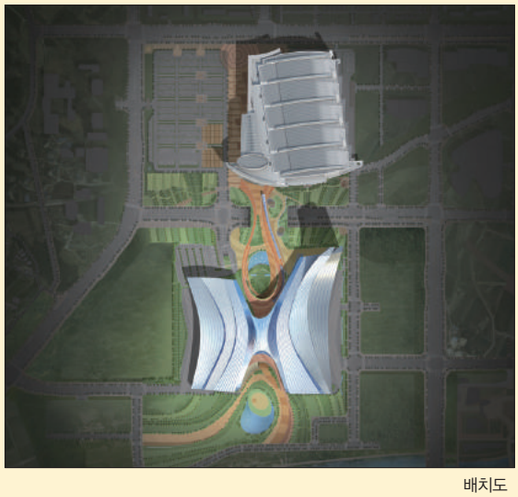
KINTEX 제2전시장

KINTEX CONVENTION CENTER II

안길원 – 정회원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An, Kil-won · KIRA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69번지 일원
대지면적(Site Area) | 200,56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7,655.60㎡
연면적(Gross Floor Area) | 212,441.6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3.68%
용적률(Floor Area Ratio) | 66.15%
규모(Building Scope) | B1–15F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지붕_트러스
마감재 | 복층유리, 컬러강판
시공사 | 현대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계룡건설
건축주 | (주)킨텍스
• 전문기술자협력
– 구조분야 : 다원구조 – 설비분야 : 삼신설계 – 전기분야 : 대일이엔씨기술

Location | Goyang-si Ilsan seo-gu Daehwa-dong 1369
Structure | Steel Frame,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Roof_Truss
Structural Engineer | DAWON Struc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SAM SHIN Engineers
Electrical Engineer | DAE ILL Engineering & Consulting
Finishing Materials | Low E, Color Steel Sheet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C, HANHWA E&C, DONGBU Coporation, KYERYONG Construction Industrial
Client | KINTEX



배치도

킨텍스 제2전시장은 세계를 향해 팔벌린 열린 공간(Open Arms), 꽃의 도시 고양에 내려앉은 나비(Butterfly)를 형상화한 다목적 전시컨벤션시설이다. 전시장은 대화역–제1전시장으로부터 이어지는 폭 100m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기존 1전시장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최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 국내 최초의 2층 콘코스 진입으로 편리한 관람동선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진입이 편리한 1층을 스트리트몰로 계획하여 전시장이 24시간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최첨단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현대적인 곡선미로 해석한 킨텍스 제2전시장은 동북아 최고의 전시컨벤션시설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경

KINTEX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II is a multi-purpose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The architecture takes an expressionistic form of open arms towards the world and also the form of the butterfly landing on the city of flowers, Goyang. It maximizes the connectivity with existing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I through public pedestrian pathway which is 100 meters in width. The design provides convenient circulation by placing concos on the 2nd floor, which is a programmatic challenge tri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addition, the easily accessible ground level was designed as a street mall, meant for 24-hour operation. Upon completion, KINTEX II will become an icon representing the best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in north-east Asia.

배면전경

외부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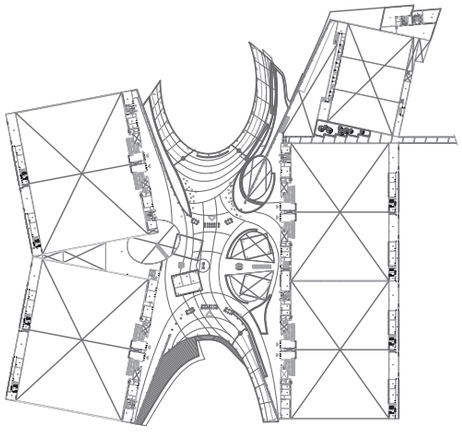
측면전경

배면전경

출입구 외부

1층 평면도

01_ 업무시설
02_ 로비
03_ 다목적홀
04_ 전시홀-1
05_ 전시홀-2
06_ 전시홀-3
07_ 전시홀-4


2층 평면도

외부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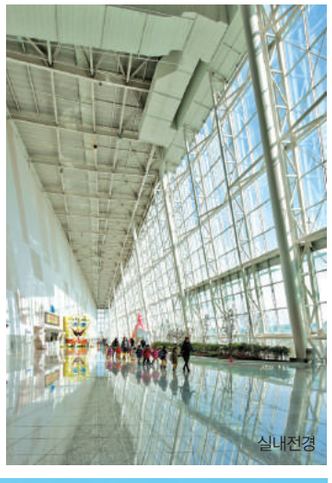
로비전경

전시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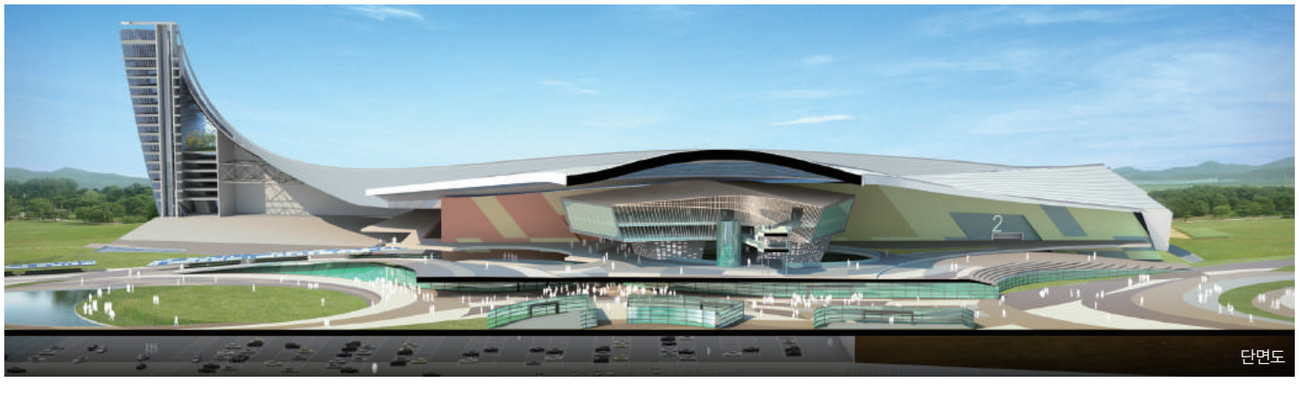
로비

연결통로

원서홀


실내전경

정면도



단면도

파주 한빛도서관 _당선작

HANBIT LIBRARY

우종범 – 정회원 | (주)서원 종합건축사사무소 +
오승훈 – 정회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결

대지위치	파주시 야당동 291-5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2,379.00㎡
건축면적	900.33㎡
연 면 적	1,590.99㎡
건 폐 율	37.84%
용 적 률	58.81%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발 주 처	파주시청
설계담당	**한결_** 함정현, 장일구, 김교중, 권미선, 이민수, 전정익/ **서원_** 박상욱, 이형기

오늘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그룹은 어린이와 부모이며 도서관 이용자의 60%이상이 10대 아동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영어특화도서관의 특성과 더불어 가족 친화적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Creative @ Your Library 라는 키워드와 함께 Creative Story / Creative Space / Creative Sense / Creative Harmony의 개념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감성공간이 어우러진 체험의 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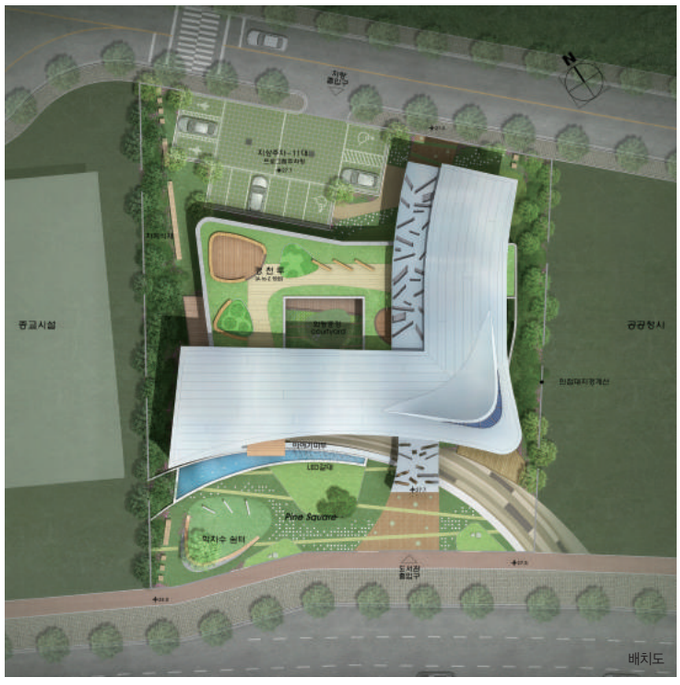
대지의 해석을 통한 매스의 설정과 레이어의 분리 통합 대지는 파주 운정지구 내에 위치하여, 주변으로 종교시설, 공공청사와 공원, 공동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 및 공원과 연계된 보행진입, 후면에 차량진입이 용이하며, 종교시설에서 예상되는 소음에 대하여 차폐식재 및 인접개구부 최소화가 필요하다.

주요실 및 매스 배치방향을 남동, 남서로 하여, 에너지 절약적 측면에서 채광 및 일조를 최대화하고, 주진입 전면 파사드를 고려하여 중심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구순환도로에 면하여 종교시설, 도서관, 공공청사가 가로경관을 구성하고 있고 주향이 남동, 남서로 면해 있으며, 종교시설에 의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배치계획은 주변 환경적요소를 고려하고, 조망 및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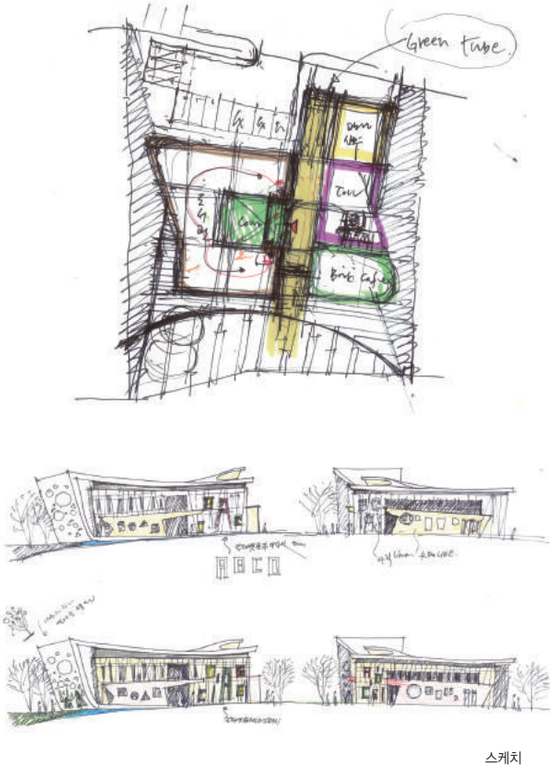
전통서원건축의 기, 승, 전, 결의 배치개념을 도입, 외부공간 체험마당을 시작으로 활동영역 / 문화영역 / 열람영역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분리하였고 이를 관통하는 Eco-tube를 설치함으로서 각각의 영역을 연결하였다.

물리적 Open Plan에 의한 열린 소통의 공간형성 전시코리도어를 중심으로 1층에서는 열람공간 및 업무공간으로, 2층에서는 영어체험교육 과 문화교육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도서관이용자와 관리자간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1층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어린이 / 가족 / 일반열람실이 회랑중정을 감싸고 있으며, 회랑중정과 열람실, 데크공간 등 옥내외공간이 서로 연계토록 하였다. 2층은 영어체험교육을 특화한 평면계획으로 옥상정원과 연계되어 활용도를 극대화하였고, 각층은 가변성을 고려한 오픈플랜 계획으로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열람실은 스토리라인을 따라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계획을 통해 재미있고 다양한 학습 공간을 연출하였다. 또한 연령별 저학년 존과 고학년 존으로 구분하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자료실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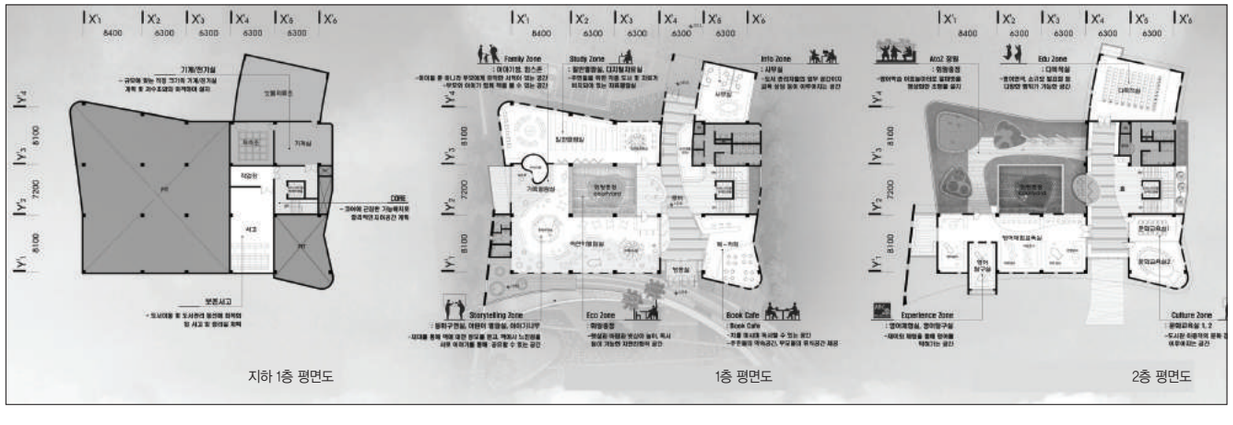
상징적 이미지를 가진 장소성이 있는 도서관 어린이들의 성장과 비상을 형상화한 '꿈의 날개'를 표현하였으며 친환경요소로서의 태양광모듈, 알파벳을 활용한 Phonics Wall, 대지를 관통하는 Eco-tube 등으로 상징적인 도서관입면을 구성하였다.



배치도



스케치



파주 한빛도서관 _우수작

HANBIT LIBRARY

민윤기 – 정회원, 정필문 | (주)건축사사무소 신도시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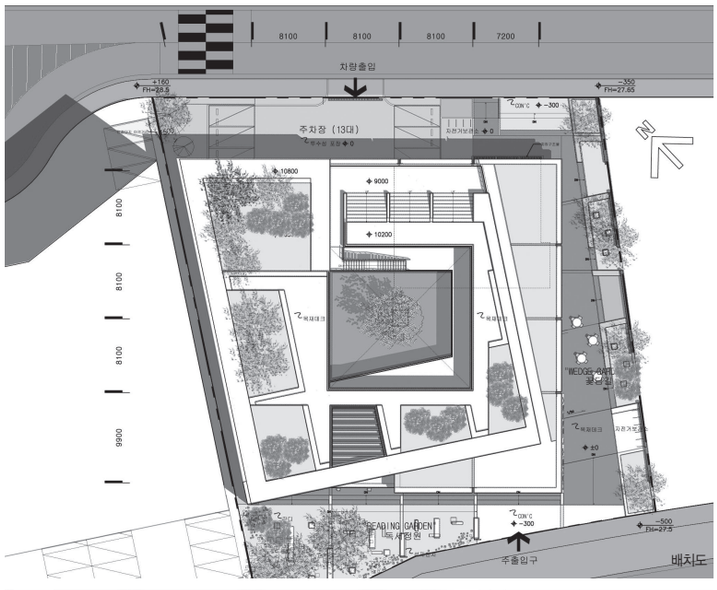
대지위치	파주시 야당동 산 161-8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2,379.00㎡
건축면적	1,352㎡
연 면 적	1,597.54㎡
건 폐 율	56.83%
용 적 률	60.36%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총괄_구승화 박종훈, 임상현, 이대호, 엄지

Library for Growing Tree_ 성장을 위한 도서관 도서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지식의 전달을 통해 인류의 영속성을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이다. 한빛 도서관은 도시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무처럼 성장하는 터전이 되어 주며, 성인이 되어 자신과 함께 자라난 중정의 나무에서 성장의 과정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이다. 지역사회와 도서관은 같이 성장하고, 기억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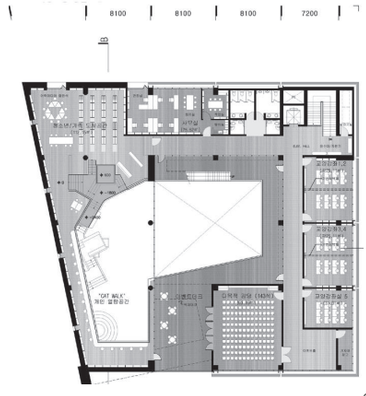
Library for Community_지역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역 공공 도서관은 전통적 도서의 보존, 열람, 대여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다양한 지역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한 광범위한 공간적/프로그램적 Resource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빛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공간적 욕구를 반영/수용할 뿐만 아니라 'Book Sharing' 운동 등 자발적 참여를 촉발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공 공간이며, 풍부하고 다양한 외부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가로변 공간의 공공성을 제공한다.

Library for Fun_즐거움을 위한 영어특화도서관 언어의 습득과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과정은 다분히 반복적이며 특히 외국어 학습 주대상층인 10대 이하 유아/청소년에게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영역이다. 한빛 도서관은 도서관 공간 자체에 대한 친밀도가 책과 언어학습과정에 대한 친근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EDU-TAINMENT'를 위한 도서관이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강좌의 수용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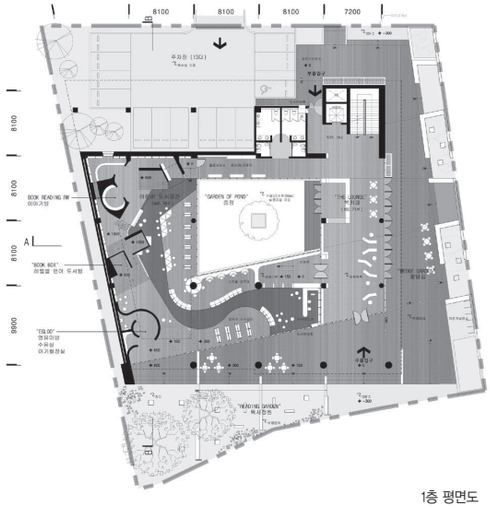
Library for All Generation_모든 세대를 위한 열린 도서관 한빛 도서관은 주이용 계층인 어린이/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배려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 생활의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이다. 영/유아를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흥미로운 지적 탐험의 공간이 되어 주며, 자아 발달 시기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집중을 할 수 있는 개인적 학습 공간 또한 제공되며, 청장년층을 위한 사색과 사교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 자연스럽게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의 중심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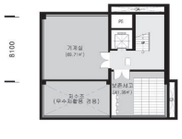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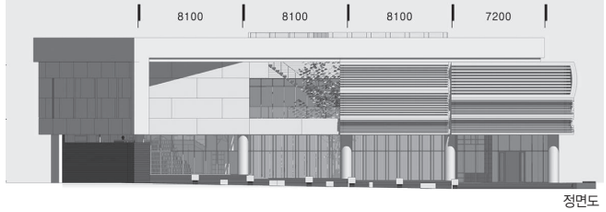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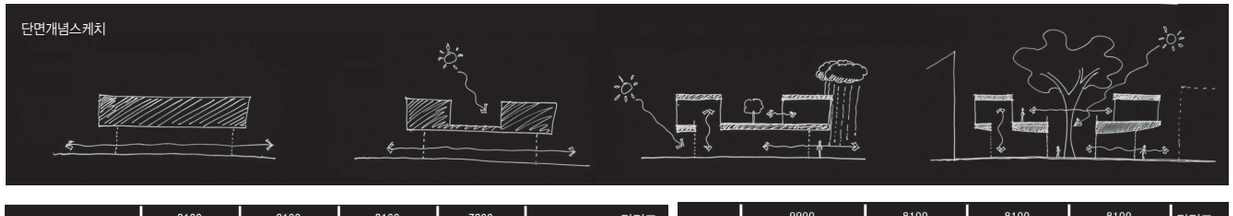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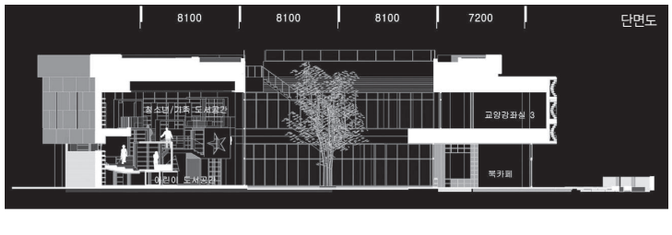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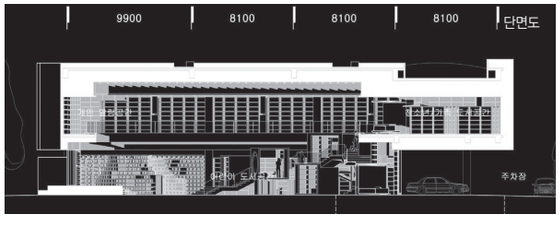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파주 한빛도서관 _가작

HANBIT LIBRARY

오 세 왕 – 정회원 | (주)지디엘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파주시 야당동 산 161-8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2,379.00㎡
건축면적	1,324.33㎡
연 면 적	1,354.37㎡
건 폐 율	55.67%
용 적 률	56.93%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김기수, 윤형진, 신상식, 연경민, 이송기, 김기한, 심정한, 이범기, 김용찬

EEEEE NETWORK

E-NGLISH LIBRARY : 유아를 위한 영어 열람실과 잉글리시 카페를 한 공간 안에.

E-LEARNING LIBRARY : 태블릿 PC단말기를 이용한 자유로운 공간.

E-CO-SPACE LIBRARY : 한빛마을 공원과 녹지축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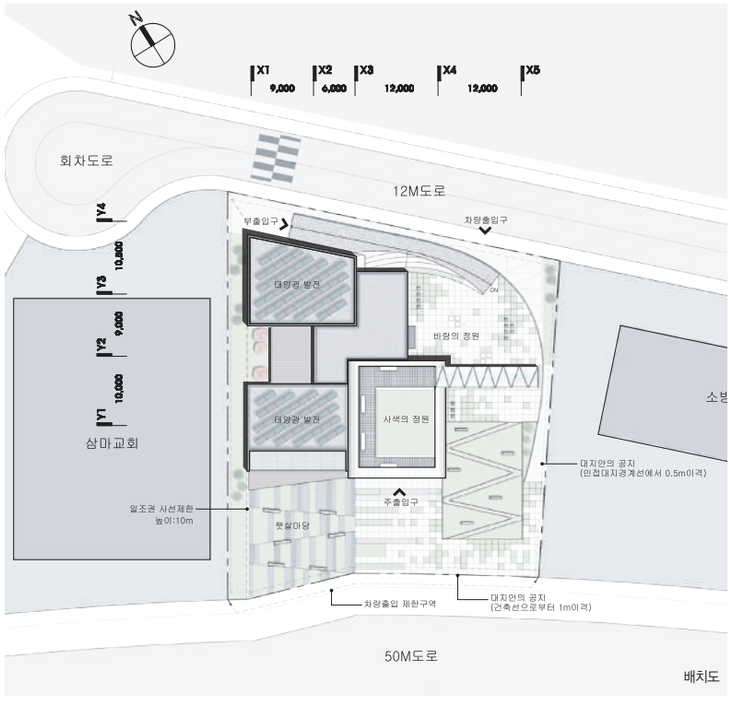
E-NERGY-SAVING LIBRARY :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공간.

E-MOTIONAL LIBRARY : 감성을 느끼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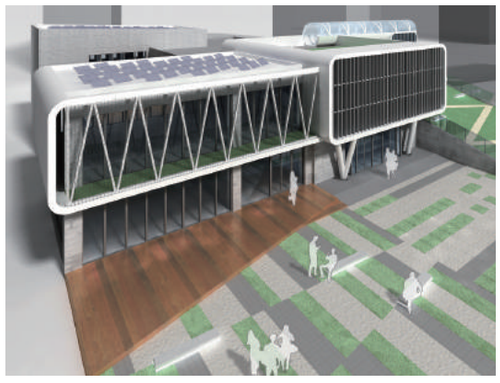
입면 책을 쌓은 듯한 형상에서 디자인을 단순화 시켜 입면의 Concept로 삼고 친환경 설계에 맞게 각 향에 따라, 남향을 최대한 개방하면서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해 로비에는 수직루버를 설치하고 열람실은 더블스킨을 이용하여 여름철 벽면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서측은 인접 건축물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일조량을 위해 2층에 중정을 설치하고 벽면녹화를 하여 작은 공간이지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구성 하였다. 북측면은 최소한의 개구를 통해 에너지 세이브를 실현하면서 단순함으로 외장을 구성하는 자재의 재질감을 살려 조형적인 느낌이 표현되도록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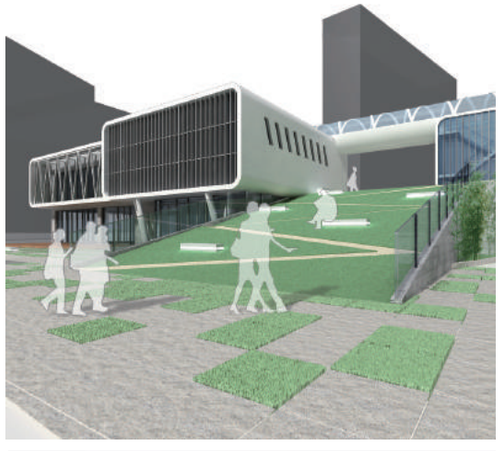
평면 및 동선 1층은 다목적 홀, 유아열람실, 잉글리시 카페를 구성하는 이용자를 위한 동적공간과 관리공간으로 구분되며, 이용자의 접근이 쉽도록 전후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로비는 개방감을 위해 2층 까지 오픈 작은 도서관의 큰 느낌과 아늑함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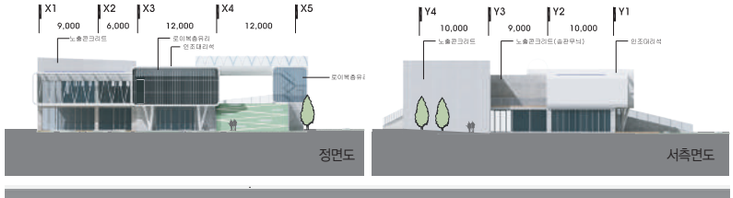
로비의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접근하여 가족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을 구성하고, 1층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여 크게는 운정 신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며, 램프를 통해 열람실 자연스러운 접근이 구성을 하여 건축물이 지역의 한 요소로서 흐름의 일부가 되어 내부의 동선 뿐 아니라 외부의 동선을 중히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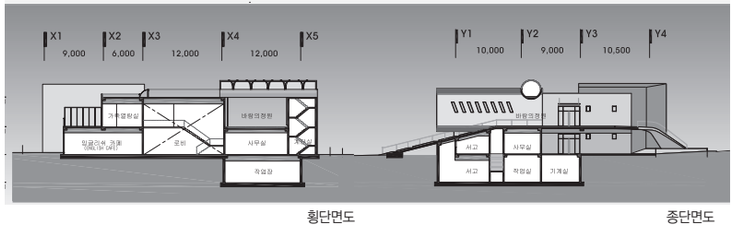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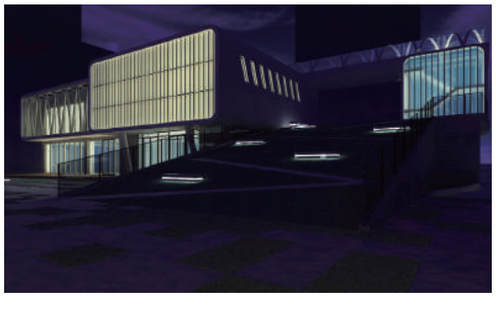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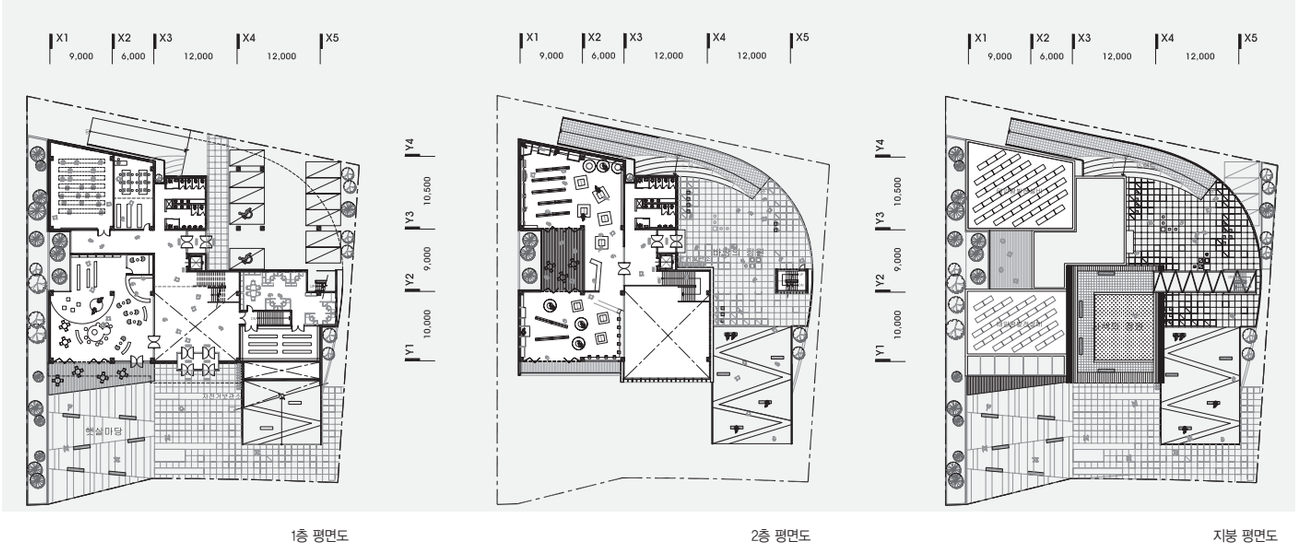


정면도 서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_당선작

SAMCHEONPO FISH MARKET

박갑주 – 정회원 | 동서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84-18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항만시설 보호지구
주요용도	판매시설(소매시장)
대지면적	7,319.00㎡
건축면적	4,135.94㎡
연 면 적	3,979.81㎡
건 폐 율	56.51%
용 적 률	54.38%
규 모	지상 2층
발 주 처	사천시청
설계담당	최지운, 조인영, 이태호, 김문대, 하수진, 박천홍

본 계획안의 목적은 삼천포수산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삼천포 구항 개발과 연계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싱싱하고 청결한 수산시장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수산시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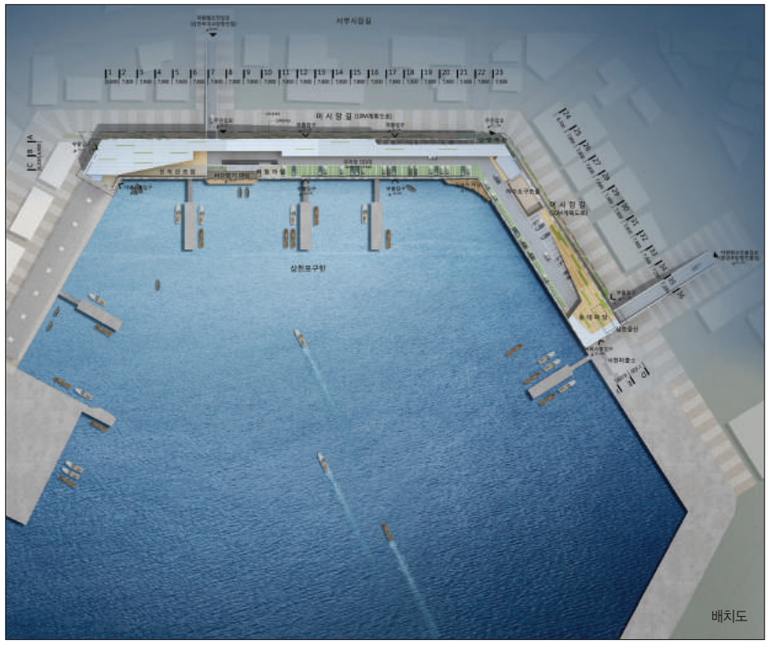
이에 'OCEAN FLOW'라는 디자인개념으로 대지 주변의 노산공원과 바다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입면을 디자인함으로써 삼천포 수산시장은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보고 싶고, 사고 싶은 거리, 축제의 마당이 되고 사천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삼천포수산시장의 새로운 모습(Landmark) – 대지주변의 노산공원과 삼천포구항의 유동적인 흐름에 대응하는 지붕라인으로 삼천포 수산시장을 상징하였고, 기존 수산시장의 주진입구와 신설시장의 진입로에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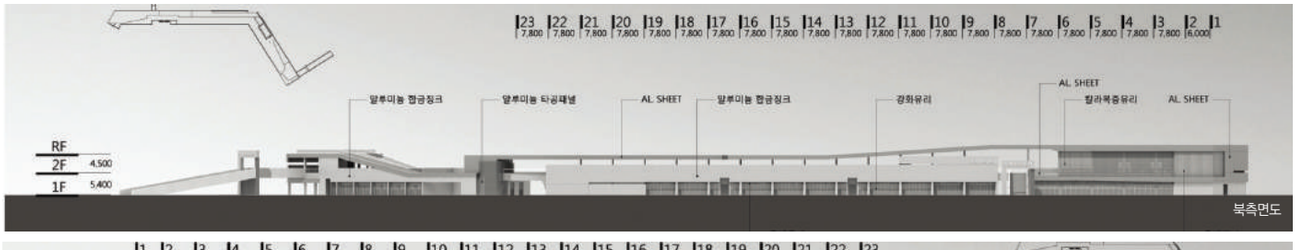
삼천포수산시장의 명소(Anchor) – 체험마당, 등대마당과 입체적으로 연속되는 수변공간의 적극적 활용은 보행자의 접근을 유도하여 모임의 장소가 되고, 다양한 이벤트공간을 만들어 낸다.

시장거리의 생동감(Dynamic Street) – 대지에서 들어 올려진 데크거리와 내부 매장이 확장되어 어시장길의 생동감 있는 연출로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보고 싶고, 사고 싶은 시장거리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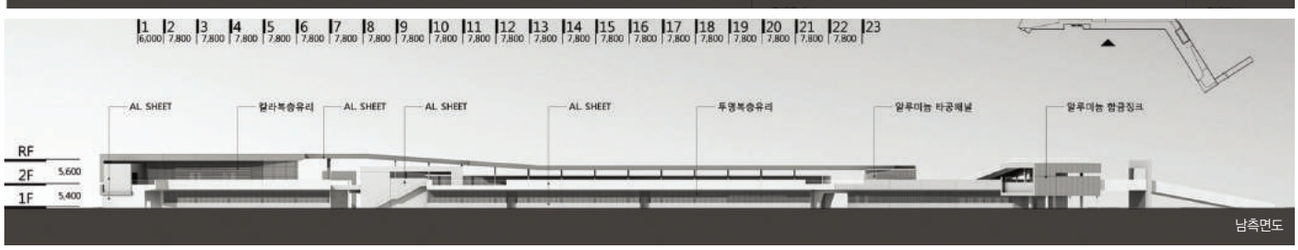
현대화로 특화된 매장(Special Market) – 효율적 시스템과 쾌적한 공간,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적 평면구성은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수산물 시장으로 거듭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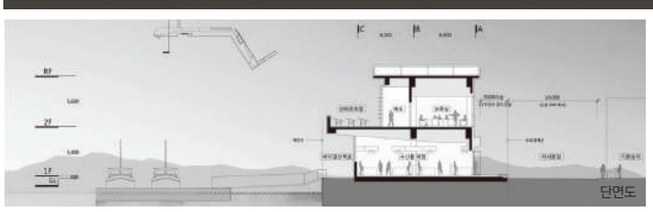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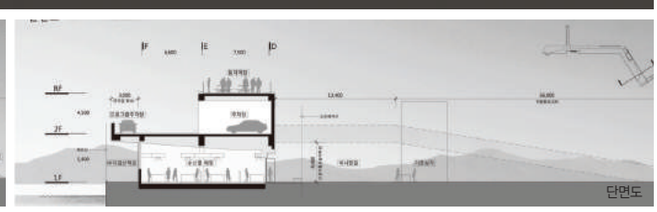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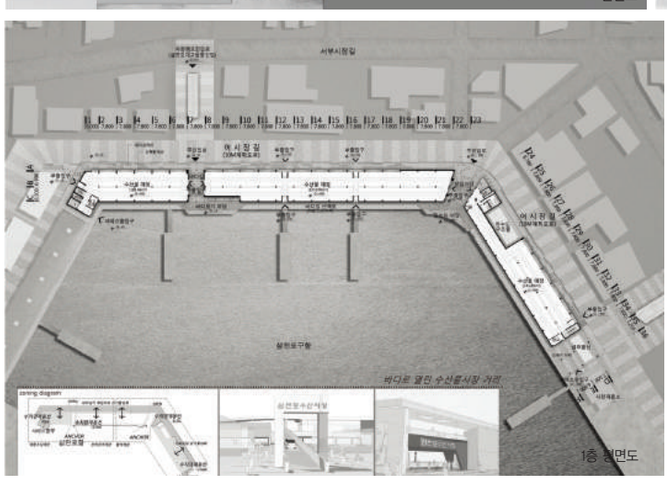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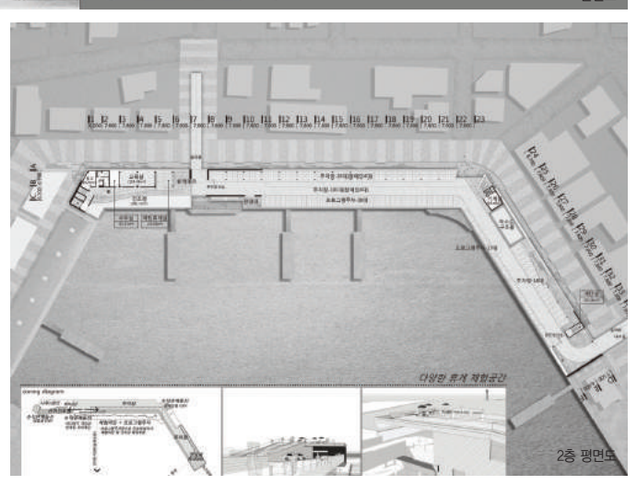
남측면도


단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_우수작

SAMCHEONPO FISH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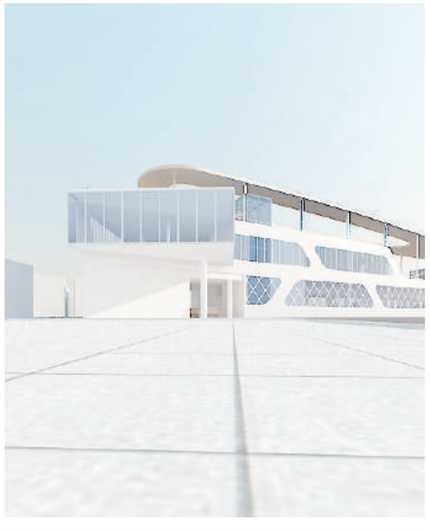
정홍진 – 정회원 | 수안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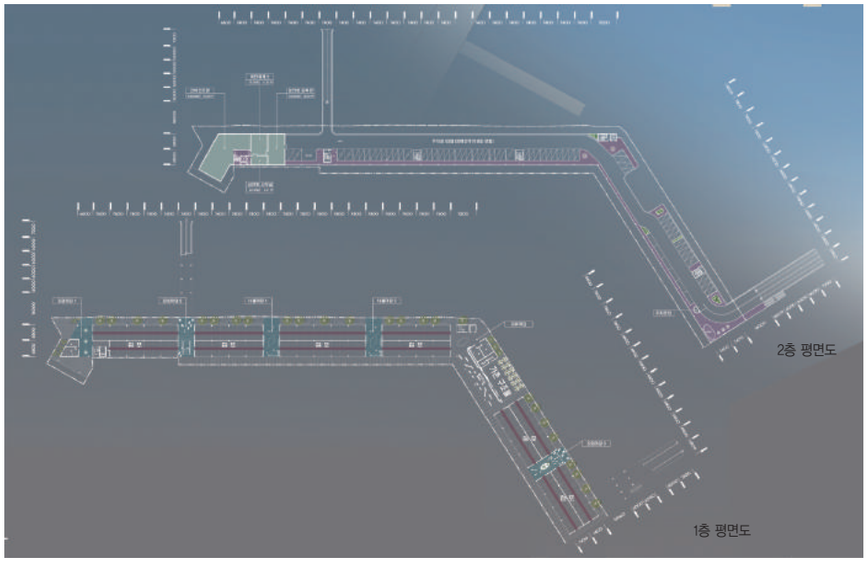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84-18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항만시설 보호지구
주요용도	판매시설(소매시장)
대지면적	7,319.00㎡
건축면적	3,584.11 ㎡
연 면 적	4,084.60 ㎡
건 폐 율	48.97%
용 적 률	55.81%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김주한, 신부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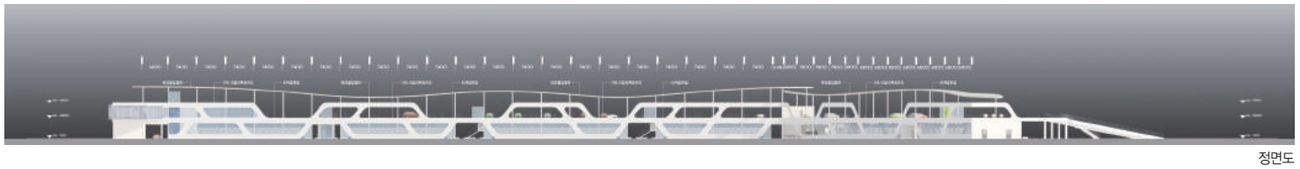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삼천포수산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상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친화적 계획에 그 주안점으로 두었다. 계획대상지로의 보행자 접근은 기존 도로 및 신설될 2층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차량의 접근은 경사로를 통한 2층의 주차장으로, 서비스 동선은 바다쪽 연안에서 접근하여 각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되도록 하였다.

설계요건상의 관리부분, 상가규모, 주차대수를 최대한 수용한 후, 통로와 휴식의 복합 개념을 가진 각각의 마당을 절점에 배치하여 장변의 매스가 가질 수 있는 차폐성을 극복하고 단조로운 평면에 리듬감을 부여하여 공간적 변화를 꾀하였다.
2층의 주차공간에는 바다를 면한 방향에 보행로를 설치하여 산책로의 기능과 함께 휴게공간으로도 활용가능 하게끔 계획하였으며 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에게도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외관은 대상지 남측의 방파제와 노산공원에서의 시각적 인지성을 고려하여 배경이 되는 산(망산, 각산, 와룡산)과 바다의 파도, 달의 변화에 따른 조수간만의 변화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파생하는 곡선을 디자인 모티브를 설정하였다.
건물위에 부상하는 지붕은 건물 전체 이미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태양열 집열판의 설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도입과 함께 건물외관의 또 하나의 디자인요소로서, 추후 설치될 포토존, 방파제, 박재삼 문학관 등의 조망점에서 관광객의 시각적 감흥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배치도






정면도

단면도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_우수작

SAMCHEONPO FISH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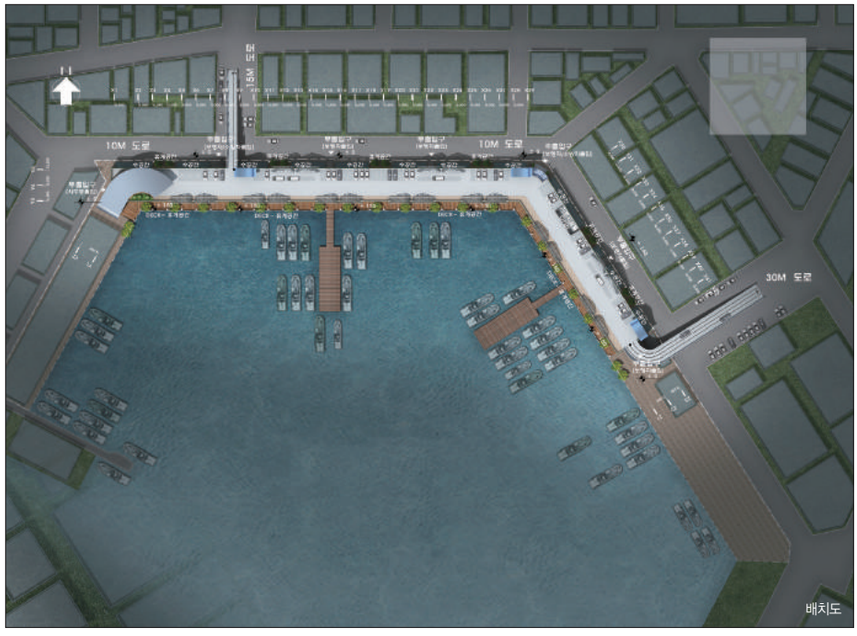
김영석 – 정회원 | 건축사사무소 토담

대지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84-18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항만시설 보호지구
주요용도	판매시설(소매시장)
대지면적	7,319.00㎡
건축면적	3,979.87㎡
연 면 적	3,704.76㎡
건 폐 율	53.38%
용 적 률	50.62%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김영석, 박재호

이 계획안은 수산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예술적이고 상징적인 건축공간을 계획하여 삼천포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싱싱하고 청결한 수산시장의 이미지 부각시켰으며, 포토존 형성과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삼천포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또한 단시간에 지나가는 시장이 아닌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외부의 건축공간을 구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설비를 하여 전기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자재선정과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합성목재를 이용한 휴게공간으로 Deck를 구성하고 자연석쌓기로 수공간을 계획했다.

주출입구는 계획부지의 북쪽과 북동쪽에 배치하였으며, 화재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부출입구는 북쪽면에 3개소와 북동쪽면에 1개소를 두어 이용객의 동선이 자유롭게 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도록 했다. 또 건축선과 도로경계선의 여유공지에 노점상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공간과 이용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수공간은 콘크리트위에 자연석쌓기로 축조하여 자연스럽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Deck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바다를 구경하며 대기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계획부지의 남쪽 바다와 접하는 부분에 합성목재로 계획했다. 아울러 사무동은 서쪽끝 2층에 배치하여 이용객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분리했다.



배치도

서측면도

차철용

골드문 재무컨설팅 대표

전남 여수 생/한화케미칼(13년)/AIG 생명(8년) / 부동산 전문업(10년)/골드문 재무컨설팅 설립('10. 5.)/팀 및 개인 실적 1~3위(2004~2009), 4년 연속 COT.달성/슈퍼스타 연 36회 달성/삼성생명, 대한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AIA 생명 등 출강/〈'여보, 우리 펀드 어떻게 해?', '억대 보험료, 그들은 왜?'(2008, 조선일보)〉〈성기영의 경제 투데이(2011. KBS-1)〉〈저서 ; 1% 부자 재무 설계 달라져야 한다(2008)/부자 가문(2010)〉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로인해 자기 이미지, 정체성이란 측면과 함께 그를 쉬이 벗지 못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 주견을 내려놓음이 결국 배움의 첫 걸음이 아니겠는가.

경제적 관념 또한 예외는 아닌 듯하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 쓰고 남는 게 있어야 저축을 할 수 있다거나 열악한(?) 상황, 혹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서 어떻게 재무적 설계를 할 수 있겠는가하고 지레 포기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 출구는 없는가?

현하 대부분(?)의 어려운 건축사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에 전문가 상담의 자리를 가져 본다.
그 분과의 면담 후, 어렴풋하게나마 희망의 가닥을 잡은 듯하다.
나 자신조차 지금까지 사로 잡혀 있었던,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것이 짧은 시간에 깨어지는 즐거움이 있었다.

역시 누구나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자신은 물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겸손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선인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건축의 사회적 공감을 위해

이젠 정치는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중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들어섰다!
한 명의 천재도 중요하나, 다양한 시각이 모여야 올바른 과정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 그런 세상이다. 그것은 우리 내부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지성의 활용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운다.
건축 또한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환경, 공공시설, 녹지, 경관, 지속가능성 등 생명활동의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전문적 영역에서 창의적인 틀로 개방되고, 각 지역민의 삶을 바탕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할 역량 제고는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크고 넓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우리의 업무 관련인,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며,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혀** 공론적 건축 담론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희망하고 꾸준히 가보자.

날이 갈수록 자본의 위력이 더해진다!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경제적 바탕은 인간다운 삶의 기초일 것이다. 개인, 혹은 소규모 조직이라고 재무적 관리 개념이 없거나 등한히 해서 더욱 경제적 빈곤을 가져 오지는 않았을까? 한국 금융관련 전문가는 주 서비스를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경제관념과 그의 올바른 학습이 이젠 좀 더 평등해 져야 한다. 그냥 건축사 경제가 날아오르길 기대하기 보단, 그 전 여러 전문가의 공개 진단과 함께 개인적 성공을 성취한 실무 대표의 얘기를 들어 보고자 하였다.
유효한 참고와 개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박찬정 : 반갑습니다.
먼저 생소한 분야임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차철용 : 천만에요. 저도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박 : 우선 주 업무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 : 중상층을 대상으로 재무 설계와 금융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벌고, 잘 물려주자는 이야기죠.

박 : 저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고 서로 좀 더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활환경이나 살아오신 과정을 여쭤 봐도 될지….

차 : 한화케미칼에서 13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1992년부터 10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화케미칼 입사 때부터 우연하게 시작한 주식투자가 계기가 되어 2002년부터 금융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 : 제가 듣기로 이젠 성공적 삶이라 여겨집니다만, 살아오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기억과 그 극복 방안이 있으셨다면?

차 : 2001년에 방광암에 걸려 투병할 때가 가장 힘들었으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 낼 수 있었고 덕분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어 더 건강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박 : 결국 각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가장 보람된 결과와 함께 그 의미를 꼽으신다면?

차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3년 전에 당시 57세셨던 사장님 한분께서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사와 가족이 아주 어렵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도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사장님을 설득해서 **재무 설계를 미리 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지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고객들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008년 7월의 금융위기 때 고객 분들의 주식자산을 채권으로 변경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2009년 3월에 다시 주식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주었을 때입니다. 30년 주식투자 경험 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박 : 현재 제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지요?

차 : 중산층에게는 재무 설계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부자들에게는 상속설계를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잘 물려주는 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뿐 만 아니라 일반 부자들도 상속이 잘못되어 가족들 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무 설계나 상속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의 행복**에 있습니다.

박 : 건축을 하는 저희들과 결국 같은 목표라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경, 공매 업무도 하고 계시니, 현재 우리 사회의 건축, 부동산 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차 : 쑥스럽습니다만 한 말씀드리자면, 한 지붕에서 두세대가 현관을 따로 사용하면서도 내부통로가 있는 주택을 더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난 해소와 자녀들의 재산형성에 도움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저의 졸저 '1%부자의 재무 설계'(2008년)와 '부자가문'에서도 밝혔듯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가격은 가수요가 소진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상가와 토지중심의 부동산 투자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책자에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일차적 원인으로는 **인구변화**로 볼 수 있죠.

박 : 저희 협회 회원 구성으로 보면 몇 백 명에서 천 명대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무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주로 부자나 큰 규모의 조직에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산층 조차 금융 문맹이란 말도 있고 장차 금융 민주화를 위해 건축사 개인, 혹은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 필요한 재무 관리나 자세 등에 대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차 : 사람의 몸도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자동차나 주택도 정기적인 안전도 검사를 하듯이 가정이나 회사의 재무사항도 적어도 2년에 한번은 재무점검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옛 말에 염통 썩는 줄은 모르고 손톱 밑의 가시 걱정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애주기가 달라진 만큼 직업별, 나이별로 적합한 모델을 새로 만들어 가야하고, 제2의 직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재테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의 재무 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행동경제학자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투자가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95%가 항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신이 똑똑하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10년 동안 적금을 유지하는 사람은 100명중 5사람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85%는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고, 10%는 그만저만 살고, 5%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꽤 길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즉 자신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해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 원의 뭉칫돈들이 연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도 절세효과 면에서 연금만한 게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100%가 상속과표로 잡히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연금은 30~40%만이 과표로 잡히는 이점이 있어 절세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중산층에게 있어서의 연금은 배우자 못지않게 중요한 인생 후반기의 반려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후의 모든 인간관계의 끈은 연금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나 친척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연금이라는 방파제가 있어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 : 개인적인 것은 결국 각 개인이 할 일이나 장기적 비전 등에 대해서는 선도자, 혹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몫이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영 관리적 측면에서의 조망과 유념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차 :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업가중 한분이 영국의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는 자세가 매우 실용적이고 디테일해서입니다.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과 일맥상통합니다. 디테일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멀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바로 앞의 아름다움이나 그 실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 : 깊이 있는 능력, 실질적인 힘… 저도 동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나 건축사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차 : 죄송하게도,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 : 죄송하다기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들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대표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도 더욱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관계하신 건축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차 : 건축도, 설계도 그 중요도에 비해 일반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에 상가주택 두 채를 직영으로 지어본적이 있고 2010년에 상가를 신축해 보았습니다.

박 : 거의 전문가가 되셨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주의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웃음) 혹시 좌우명이 있으시면?

차 : Not live like a gipsy, Not die like a frog. (집시처럼 살지 말고, 개구리처럼 죽지마라)인데요. 노는 데 지우치지 말고 자기개발하라는 뜻이고, 안분지족하지 말고 우일신하라는 뜻입니다.

박 : 어려움을 극복하신 차 대표님의 스타일과 부합되네요.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은?

차 : 달리기와 클래식 음악 감상입니다.

박 : 활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적절히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좋은 건축이나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시면?

차 :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퀸즈타운의 호수와 주위풍경을 들고 싶네요.

박 : 저도 뉴질랜드의 기억이 늘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들도 최소한 그런 풍광을 해치지 않거나 또 다른 멋이 되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건축이나 도시 등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면?

차 :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며 개발하는 것입니다.
실속과 달리 허식이나 허명의 가면 같은 것은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할 뿐 이라는 세상 이치가 있듯이 건축이 중요한 만큼 진실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얘기 드리는 게 부자연스럽습니다만 진정한 가치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인데, 그런 외형적인 것 위주에서 탈피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 :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좋은 건축의 변함없는 기준이죠.
외국의 건축이나 도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으셨다면?

차 : 주거지와 상업지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옛것을 최대한 살리며 개발한 것 같았습니다.

박 : 이젠 정말 급속한 국제화가 되다보니 거꾸로 한국의 디자인, 우리의 전통과 에너지, 현대적 감각을 보려는 외국인이나 전문가가 많아 졌습니다. 우리도 겸손하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건축 관련 책자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으셨다면 그 감각은?

차 : 아쉽게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 : 좋은 환경, 건축/도시를 위해 우리 관계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차 : 인공적인 멋보다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건물에 컨셉을 담아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경관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주제넘겠지만, 어떻든 철학을 담은 건축이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박 : 그럼 우리나라 건축문화, 도시 정책 등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차 :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층은 모두 상가입니다
주거환경에도 좋지 않고 수급면에서도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상가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환경 보전 및 관리가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으신지? 정책이나 현상 등….

차 :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시설물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방식은 국가의 세금낭비도 될 뿐 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세월의 숨결을 느낄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 : 끝으로, 짧으나마 오늘 대화에서의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차 : 우선,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건물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도시환경이나 건축물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 그리 생각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보람 있는 일 하시길 빌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Glass Pyramid of Louvre Museum

송호섭 | 정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에스앤케이
Architect | Song, Ho-seob,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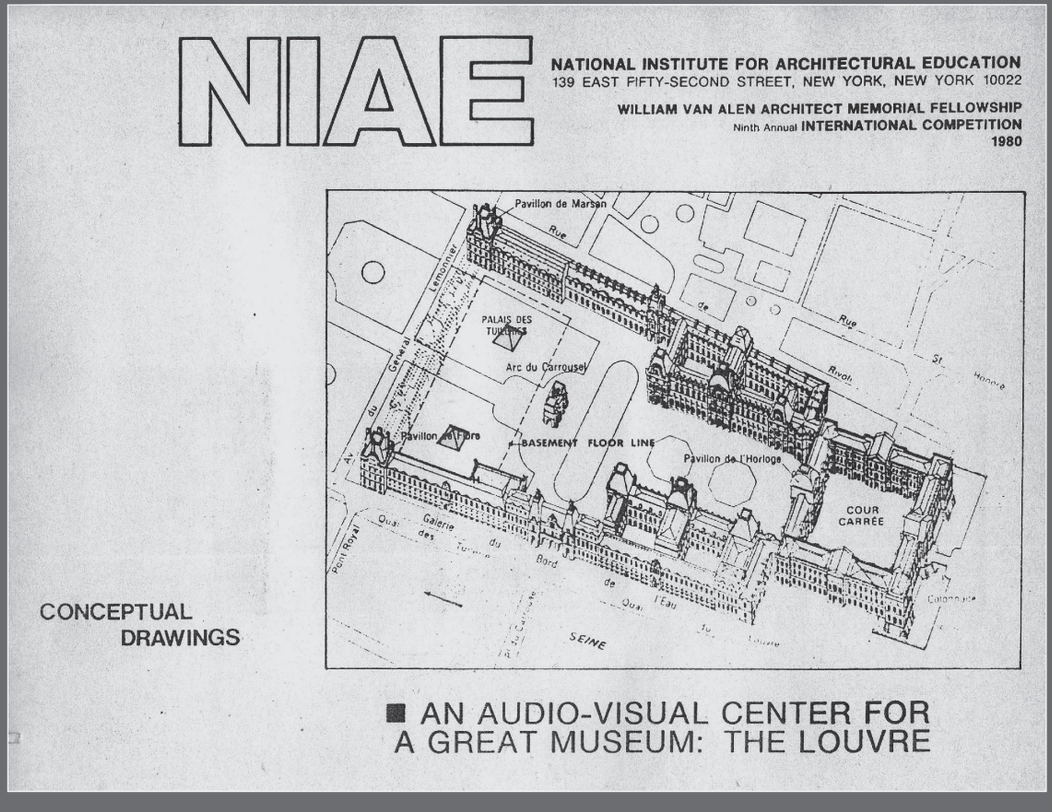
NIAE(National Institut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미국 뉴욕시 소재)가 주최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Audio-Visual Center 신축 국제 현상 공모(1980년) 참가 작품입니다(필자는 당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재학 중이었고 결과는 낙선했음).
I.M. Pei가 동 개념으로 제안하기 3~4년 전인 1980년에 유리 피라미드로 제안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원본은 없고 사진만 남아있어 상태가 좋진 않지만 개념이나 이미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게재해 봅니다.

벽에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 벽지 재질과 무늬도 가늠할 수 있어 당시 생활상도 일견 엿볼 수 있습니다. 와트만지에 색연필, 수채화물감, 제도 펜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그렸고 사진을 오려 붙여 콜라주 작업도 병행 했습니다.

다 된 작품은 돌돌 말아서 PVC 파이프(Ø 150)에 넣고 참가작품 모음집 출판비용(USD 5불)동봉하여 양끝을 막고 NIAE(당시 139 East Fifty-Second Street, New York, NY 10022)측에 소포로 보낸 기억이 납니다. 얼마 뒤 참가 국가명, 수상자 명단 등(1등은 미국 조지아 공대 건축과 재학생/ 첨단 하이테크 고층빌딩으로 제안)과 함께, 사정상 출판 취소 결정되었다며 USD 5불을 다시 보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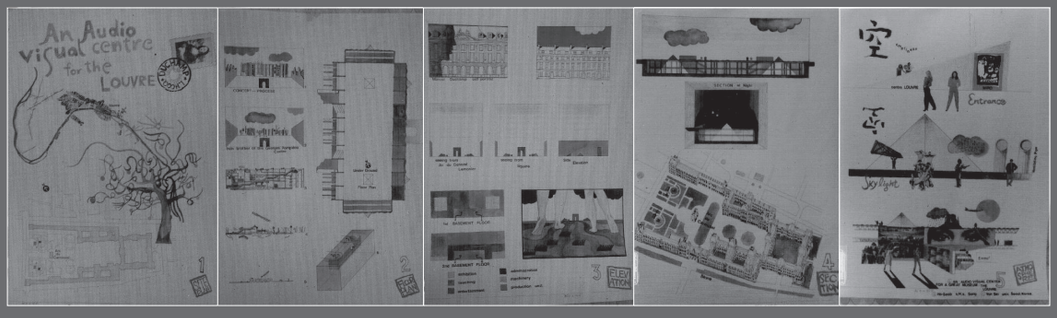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1981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대 루브르 계획(Le Grand Louvre)'을 발표하였고, 1983년 I.M. Pei의 기본안이 채택되어 다년간 공사 끝에 현재의 유리 피라미드로 대변되는 대역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Le Grand Louvre expansion & renovation, 1983~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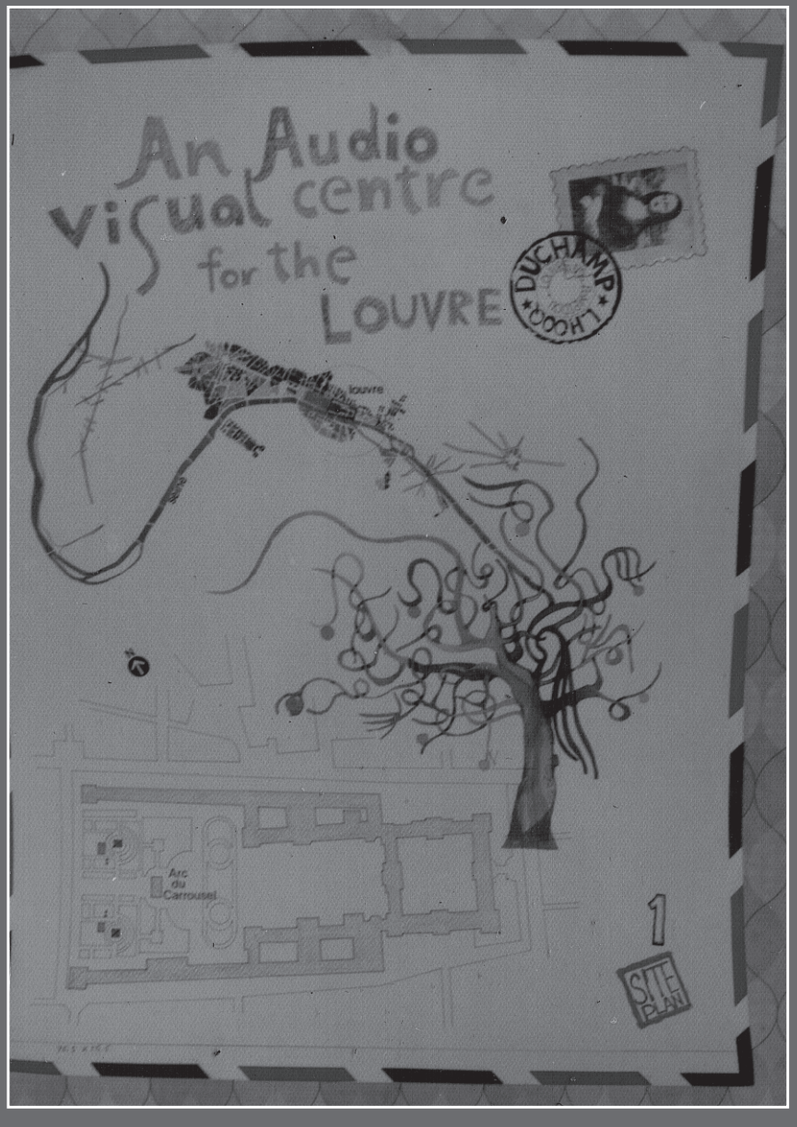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볼 때면, 시집보낸 사랑하는 딸아이를 먼발치서 바라보는 것 같은 아련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또 그때 현상설계 마감시간에 대려고 꼬박 날밤 새우던 소싯적 필자의 퀭한 두 눈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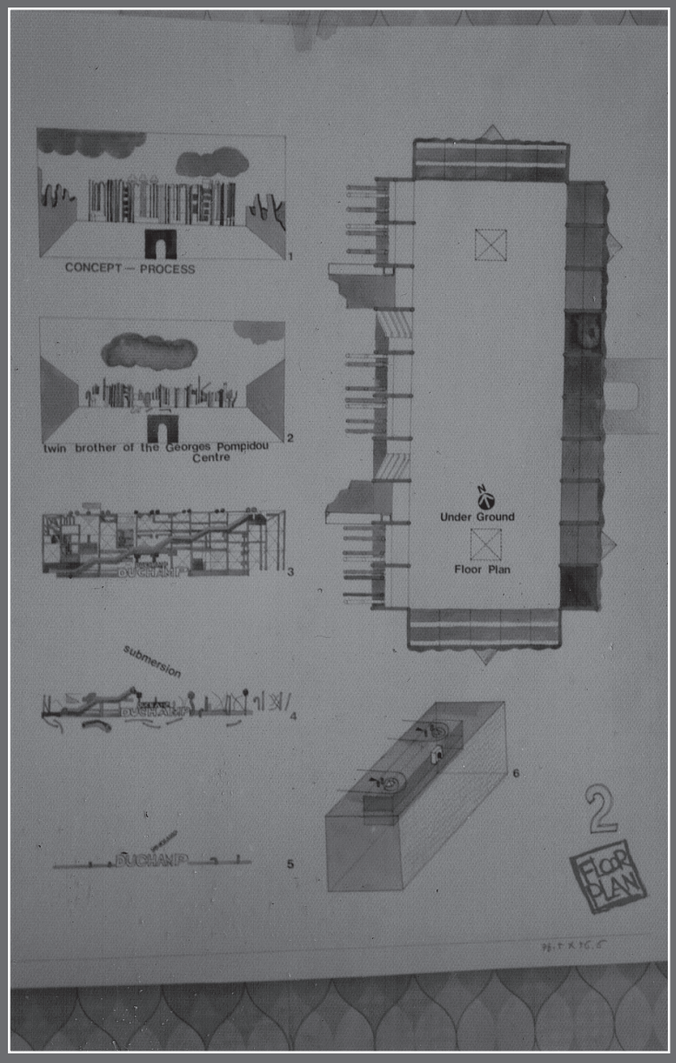
DESIGN CONCEPT :

No building above the ground should be attached to the existing 'LOUVRE' because it may cause some atmospheric unbalances.
All new facilities must be located underground except some basic functions-skylights and ventilation pipes as environmental sculp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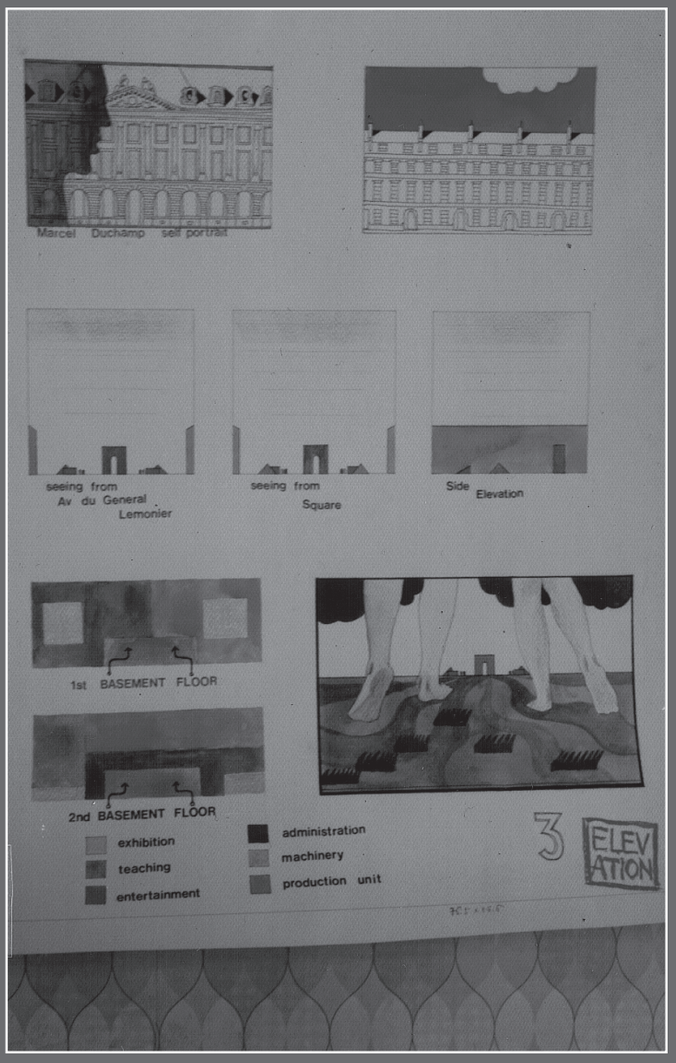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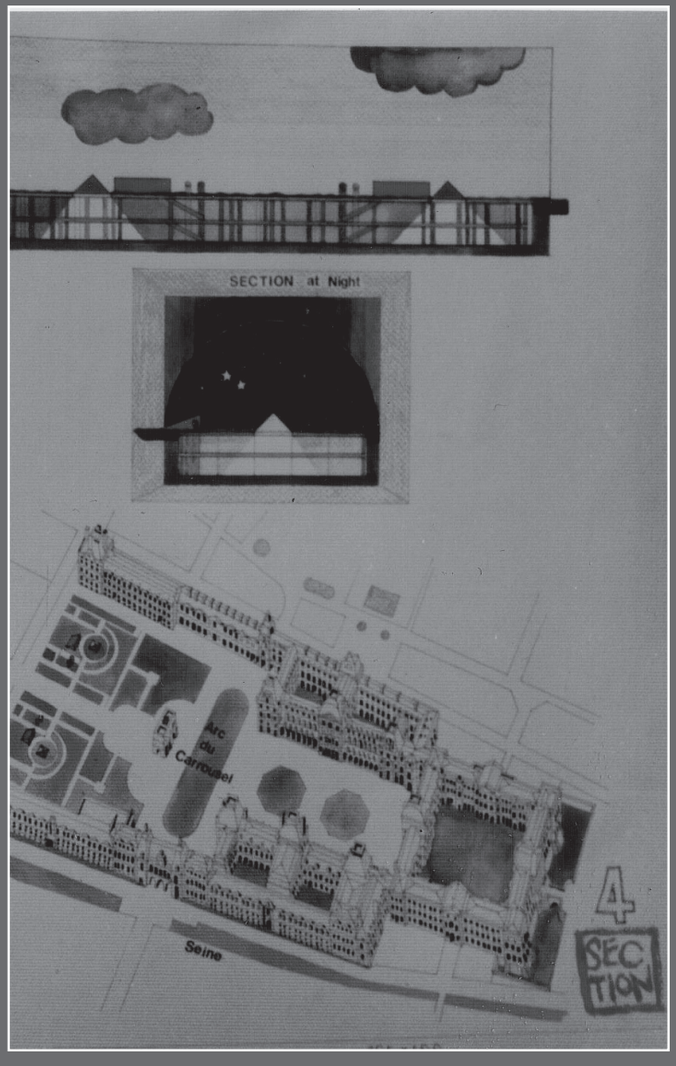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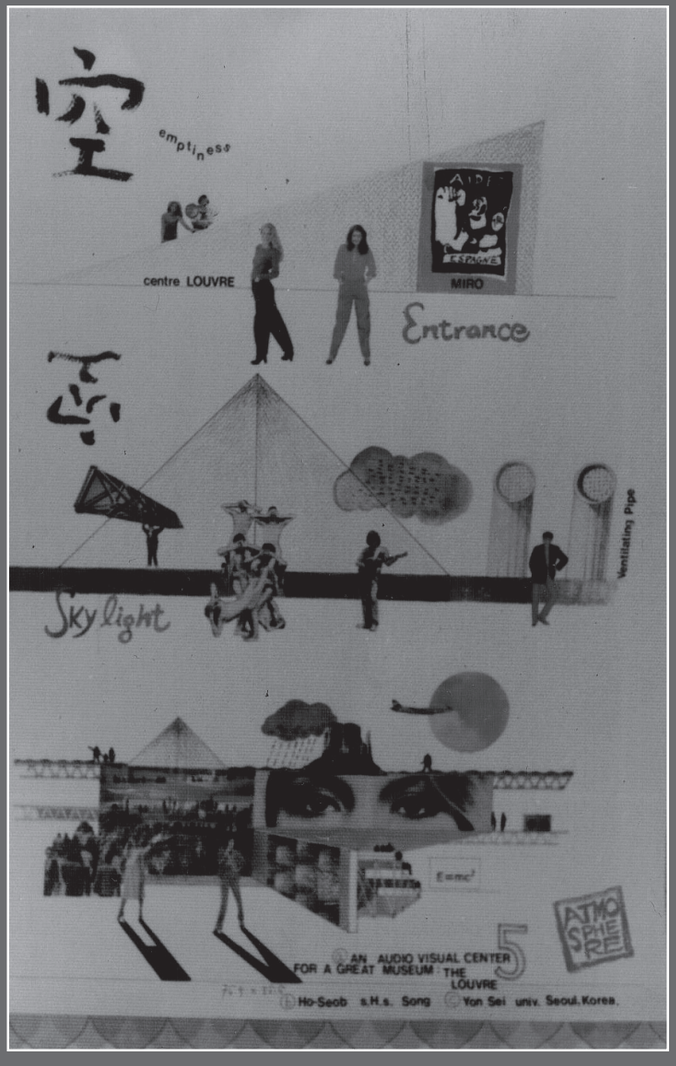
Floor Plan



Elevation



Section



Atmosphere

法돌이

Beopdoli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필자 –
이동우
(주)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by Lee, Dong-woo, KIRA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공공환경디자인학을 전공하였으며, 승효상건축연구소와 정림건축, 새건축사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공공환경디자인 전문 업체인 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현재 서울시 중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 CBD특화설계 총괄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 차

1. 건축사의 성명표시권과 저작권 등록

2. '호동거실(衚衕居室)' 뉴타운 · 재건축 · 재개발의 소고(小考)

3. 건축설계분야 PQ제도 개선

4. 설계도서(예정)

5. 리모델링(예정)

3. 건축설계분야의 PQ제도 개선

3. Reformation Proposal for PQ system of Architectural Design Province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고르고, 입찰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가?

"총론은 공정하다. 그러나 각론은 불합리하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생략)' 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PQ제도가 부합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자격기준, 출마기준, 청약기준 등 많은 사전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PQ제도의 근본적 물음보다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한 각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봄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사업수행능력 평가(PQ)제도

총론

법률근거

건설기술관리법 ˇ제21조, 동법 ˇ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ˇ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ˇ별표5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로 이용되기도 한다. 2009년 이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제외)에 적용된 기준이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이 포함되어 이를 준용하고 있다.

- 근거법령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48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 관리 및 건축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설계: 별표5 제1호에 따라 평가

나.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6 제1호에 따라 평가

다. 건설사업 관리: 별표7 제1호에 따라 평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0.12.20〉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 평가기준(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자	50	참여 기술자 등급 · 경력 · 실적 ·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전차(前次) 용역실적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 중첩도	10	참여 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24조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경력 ·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 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 용역 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8호('06.12.29)

물품 및 용역은 1억9천만 원 이상

모든 건축설계에 PQ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용역비 1억9천만 원 이상에서는 설계의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발주처의 선택의 문제이다.

법 취지

현 제도는 FTA 대비 미국 등 외국과 세계은행 FIDIC 등 국제기구에서 평가 시 사용하는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방식을 도입하여 책임 기술자의 경험,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한 기술적 평가사항을 반영 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였다고 한다.

〈광풍처럼 불었던 FTA 기준〉

선진국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우리가 매번 인용하고 좋아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마련된 발주제도인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취지와 국제기준에 있어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각론

평가항목의 불합리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세부 평가기준)

가. 참여 기술자

참여 기술자의 평가는 전체 50점을 가지는 중요한 평가지표이며,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 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참여 기술자의 평가항목은 등급, 경력, 실적,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으로 나누어지며, 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로 다시 세부분하여 평가한다.

PQ제도는 경험 있는 기술자를 선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건축사는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PQ 제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PQ에서 "신입 건축사는 초급 기술자이다."

물론 과거 학력, 경력자로 특급 기술자 등급을 받은 선배 건축사는 자유롭다. 엔지니어링 진흥법에서 학력, 경력자를 특급 기술자로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이마저도 2013년 1월1일부로 폐지하기로 하여 향후 새롭게 PQ 시장에 진입하는 건축사에게는 참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별도 자격등급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시급하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개정 2010.12.13〉

건설 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기술등급	기술 자격자	학력 ·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
고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기술 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제3호에 따른 직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 · 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아래 생략–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상기 평가에서는 실적, 금액,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명기된 바와 같이 과도하게 실적 등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단일 건에 의한 실적 제한보다 합산에 의한 실적으로 건축사의 신규시장 진입을 도와야 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건설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설기술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연구개발 참여실적 상기 평가항목은 엔지니어링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평가로만 측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대형사무소 위주의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축설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거와 같은 설계공모 당선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 가점

건축설계에서 해외 건축설계 경험이 가점이 되는 이유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출장려 문화정책에서 기인된 내용인지? 오히려 사회봉사활동이 가점이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 엔지니어링 진흥법 별표2 기술자 자격등급

• 2013년 1월 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결론

2년 전 '건축설계 발주제도가 없다' 라는 글을 건축잡지에 쓴 적이 있다. 이후 많은 분의 노력으로 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예전과는 많이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 발주방식이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과정에 위와 같은 버그가 발생하게 되었다. PQ제도가 건축설계 발주에서 좋은 제도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아직 각론에서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의 PQ제도는 불합리하다."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번째 사례로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필자 –
정재희
현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by Chung, Jae-hee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건원국제건축과 해안종합건축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M.ARCH를 마친 후 SOM을 비롯한 굴지의 건축사사무소들에서 4년 넘게 일을 하였다. Foshan Donghuali Master Plan, Treasure Island Master Plan 등의 projects로 2009 AIA Honor Award, 2009, 2009 AIA California Council Merit Award, 2009 MIPIM Future Project Award: Regeneration and Master Planning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건축사, LEED AP(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ccredited Professional)를 소지하고 있다.

목 차

1. 서론 : 친환경건축을 위한 통합설계
Introduction: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2. 사례연구
case studies
1) Treasure Island Master Plan
2) Parkmerced Vision Plan
3)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
4) Encinal Terminal Master Plan & Other cases

3. 종합
Conclusion

3. 사례연구 :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

3. case studies :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

새 터미널 앞 공원의 모습

인간,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성…

'With language itself, the city remains humankind's greatest work of art.' – *Lewis Mumford*

San Francisco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개인, 문화, 자연, 그리고 건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되어 경관을 바꾸는 데 대한 격렬한 저항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40acres에 달하는 도심의 터미널을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 지역이 새로운 고밀도, 대중교통 위주의 지구로 재개발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다만 조건은 이러한 고밀도 지구가 기존의 저밀도 지구에 상응하도록 활기차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SOM은 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타워의 feasibility study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고밀도를 충족시키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coordination하는 작업이 중요하였다. 이에 대해 fine-grained density를 창조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공원과 작은 길들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의 큰 블록들을 보행가능하게 만들고, 고층타워들은 기존 시야와 공공공간에 대한 채광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역은 버스, 경전철, 고속전철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재디자인되었다. 그 후 2007년 여름, 이 프로젝트가 지명현상설계로 되어 SOM San Francisco, Richard Rogers, 그리고 Cesar Pelli 세 팀이 지명되었다. 이 세 팀은 2007년 8월 시민들과 각 관계자들 앞에서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고 이것이 지역방송채널에 실시중계로 방영되었다. 다음날 시청 홀에서의 작품전시와 선호작품에 대한 주민투표 등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단지 디자인만 고려한 게 아니라 개발업자의 투자규모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Cesar Pelli안이 당선되었고, 현재 구 터미널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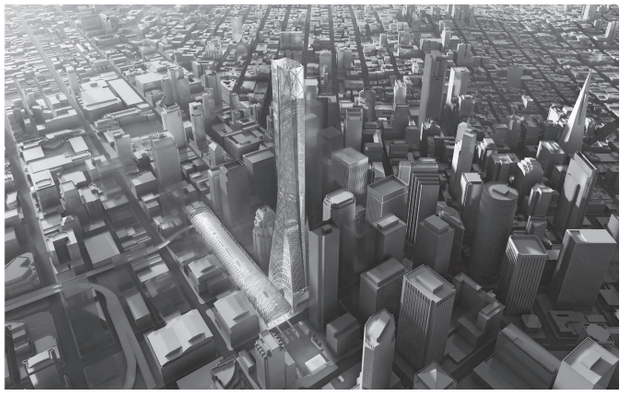
Transbay Terminal의 과거

Transbay Terminal의 현재

Innovative Vision for the Sustainable, Transit-Oriented Neighborhood

Transbay Transit Center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노후화된 대중교통환승터미널을 Transit-oriented Neighborhood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이다. Transbay Terminal은 도심의 네 블록에 걸쳐있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노숙자들의 거점이 되는 등 불량한 환경으로 인해 항상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던 장소이다.

새로운 Transbay Transit Center는 크게 터미널과 타워로 구성되어있는데, 터미널은 8개의 교통 시스템을 한데 모아서 지역의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중심화할 것이다. 35%의 affordable housing을 포함하는 3400개의 새로운 주거와 공원, 상점들로 이루어진 가로 등으로 인해 샌프란시코가 대중교통이 중심문화로 자리잡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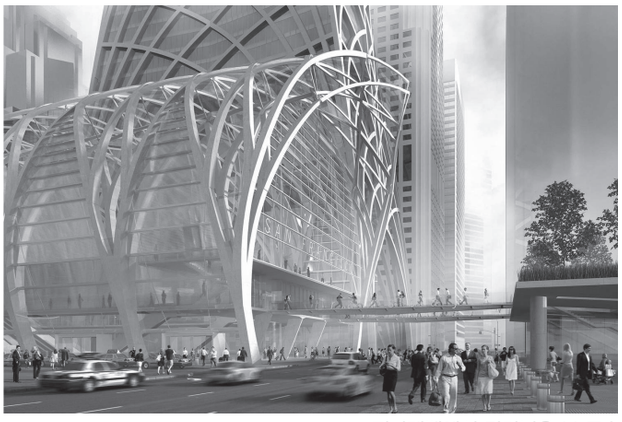
조감도

Summary

Date: 2007~current
Location: San Francisco, USA
Site area: 2,056,177 sq ft, 40 acres
Cost: $4 billion
Program: terminal, residential, retail, hotel, office, park
Building Height: 1,375 ft, 93 stories
Awards :
2008 Chicago Athenaeum American Architecture Award
2008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Northern California Chapter Merit Award

터미널 저층부 모습

터미널 콘코스(concourse) 모습



지상레벨에서 터미널을 본 모습

Goal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낙후된 도심의 Transbay Terminal 지역을 재생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 활력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 Creation of New Urban Gateway

8개의 교통 시스템을 한데 모아서 지역의 교통네트워크를 중심화하여 새로운 도시의 관문을 조성한다.

- Redefinition of the city's skyline

Transbay Tower는 도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catalyst역할을 하도록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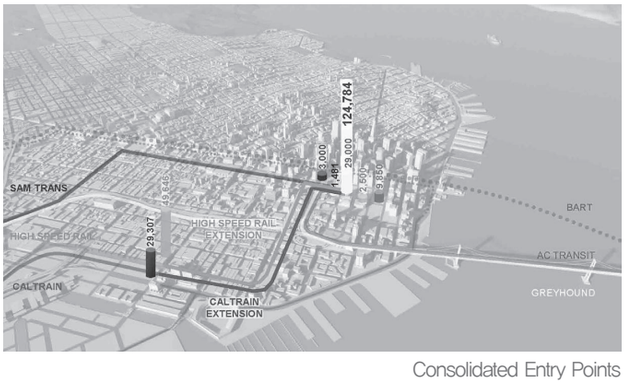
- Creation of Environmental Benchmark

Green design에 초점을 두어 얼마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친환경적인 배려를 하는지 제시한다.

Strategies

- Centralization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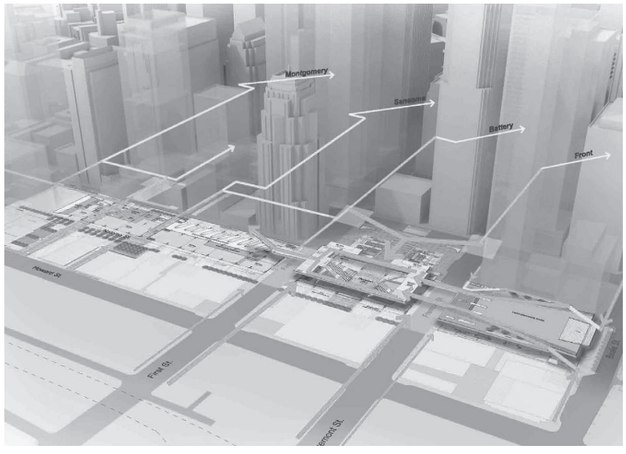
새로운 terminal은 8개의 교통 시스템을 한데 모아서 지역의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중심화한다. Light rail, bus, High speed rail등 다양한 대중교통 옵션들에 대한 편리한 접근과 결합된 집중된 성장은 보행, 자전거, 그리고 light rail 등의 green mobility를 장려할 것이다.



Consolidated Entry Points

● Pedestrian-oriented environment by fine-grained street pattern

다양한 보행루트를 제공하는 fine-grained street pattern을 계획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된 오픈스페이스, 가로, 빌딩 등은 안락하고 심미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Pedestrian Access

● Smaller bus deck improves neighborhood environment

하나의 긴 데크로 인한 하부 채광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데크를 두 층(double-deck)으로 제안하였다. 공간적으로 2개의 블록이 개방되어 도착홀의 극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되고 철도 플랫폼은 이중층고가 되어 햇빛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당한 양의 CO_2 저감을 물론, off-peak time의 경우 아래층은 창고로 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도 가져온다.

Bus Deck Configuration

Green Design Principles

Sustainable design에 대한 범시대적인 요구와 정부로부터 고효율적인 그린빌딩에 대한 green incentive가 보장된 상황에서 본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터미널에 자연채광과 자연통풍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탄소저감의 방법으로, photovoltaic cell, geothermal cooling, wind turbine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install하는 등의 infrastructure를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green infrastructure 계획을 통해 LEED Platinum rating을 목표로 하였다.

● Creates day-lighted Transbay Hall

터미널 지붕에 ETFE(Ethylene tetrafluoroethylene) 을 도입하여 햇빛이 그대로 투과돼 낮 동안 내부 홀에서 자연채광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였다. ETFE는 얇고 가볍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ETFE를 두 겹 혹은 여러 겹으로 같이 설치하고 그 사이 공간을 공기로 팽창시키면 튼튼한 공기 쿠션이 형성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재활용되는 대표적인 친환경적 재료이다.

● Natural ventilation for terminal and tower

터미널의 자연환기 뿐 아니라 타워의 모든 거주자들이 100% 외부 공기를 접할 수 있게 고려하였다.

● Sub-zero CO_2 Footprint

매년 CO_2 저감이 10,880,000 lbs 이고 모든 냉방은 지열(geothermal coolong)에 의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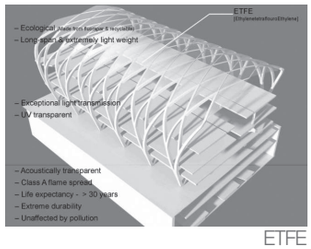
터미널의 Photovoltaic은 907,000 kwh/yr, 타워의 Photovoltaic과 wind turbines은 880,000 kwh/yr 을 생산한다.

● Material re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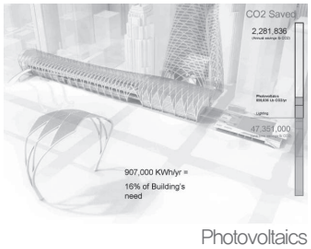
터미널의 Structure frame design은 기존의 보편적인 디자인에 비해 20%의 재료절감 효과가 있고 floor framing system은 compressed and recycled plastic을 사용한 Sustainable Form-Inclusion System(SFIS)을 도입하여 30%의 콘크리트를 절약할 수 있다.

● Energy re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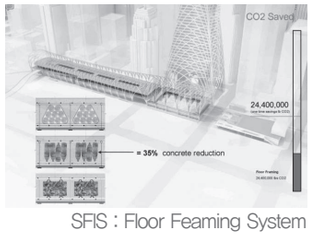
74%의 annual HVAC electrical consumption 저감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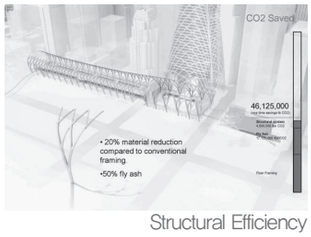
ET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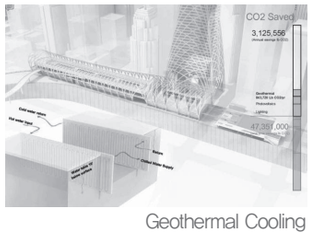
Photovolta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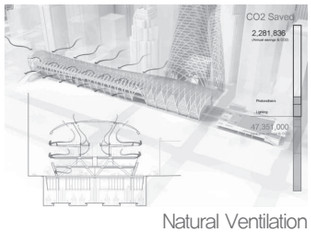
SFIS : Floor Feaming System



Structural Efficiency



Geothermal Cooling



Natural Ventilation

Integrated & interactive design process

Transbay Transit Center project은 두 가지 측면에서 partnership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초기부터 건축사(SOM)-개발업자(뉴욕의 Rockefeller Group Development Corp.)의 파트너쉽(architect-developer partnership) 체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좀더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설계가 가능하였다. 둘째, 샌프란시스코의 Sutro Library와 현대뮤지엄(SFMOMA)으로부터 문화적 지원을 받는 파트너쉽 체제를 갖춰 명실공히 도시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자 하였다. 2007년 발주처인 TJPA(Transbay Joint Powers Authority)와 심사위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할 때, Sutro Library와 현대뮤지엄(SFMOMA)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한 점들을 보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프로젝트가 도시에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We would be honored to be included as a partner in this exciting project. The Sutro collection deserves an appropriate home in the heart of San Francisco. I wish you every success in making this wonderful building a reality."

– *Susan Hildreth, State Librarian of California*

"There are numerous, varied and very exciting opportunities for the display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cutting edge artworks, which will enhance and enrich the visual experiences of those who pass through these public spaces. We are prepared to work with you to develop a spectacular public art program that we believe will be a model for the future."

– *Dr. Neal Benezra, Director SFMOMA*

시청홀 전시 모습

2007년 8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 팀이 시민들과 각관계자들 앞에서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였다. 그리고 선호작품에 대한 주민투표에 65,000명 이상 참여하여 한때 담당웹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중시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Transbay Transit Center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통합적인 설계과정을 통해 얻은 input과 feedback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지향하였다.

Conclusion

Transbay Transit Center Master Plan은 샌프란시스코의 노후화된 도심터미널을 재생하여 도시의 새로운 관문,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2008 Chicago Athenaeum American Architecture Award, 2008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Northern California Chapter Merit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Transbay Transit Center는 개발업자와 건축사의 협업 시스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경제성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교통계획전문가, 친환경관련 엔지니어링 및 기타 영역의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모전에 대한 공청회나 선호작품에 대한 주민투표, 그리고 문화시설과의 파트너쉽 등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부와 건축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도시와 사람과 문화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통합적이고 소통에 기반을 둔 설계프로세스를 통해 서로 신뢰가 쌓여가고,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뿐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샌프란시스코시 전경

2012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12한국건축문화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불가함.)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재외국민 포함)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 **"화이부동 (和而不同) – Symbiotic Diversity"**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2. 6. 5(화)까지

☞ kaa.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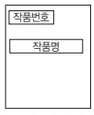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2. 6. 7(목) ~ 6. 8일(금) 09:00~18:00 **시간엄수**

1차 심사 제출내용

• A4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Korean Architecture 2010 · 2009 작품집 참조)

☞포트폴리오는 출품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표지에 작품명, 접수번호 표기

표지 예)



• 작품사진, 기본도면, 작품개요 · 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 DVD에 사진(스케치), 도면, 작품개요, 작품설명 각 4개 폴더를 생성하여 데이터 저장

– 사진(스케치) : 20컷 내외(사진설명을 파일명으로 저장), 기본해상도 300dpi 및 사이즈 220×280mm 이상(JPG파일)

사진파일명 예) 전경.jpg, 1층 로비.jpg, 남측 전경.jpg, 북측 전경.jpg

– 도면 : 배치도, 평 · 입 · 단면도(캐드 파일_방위, 스케일바, 실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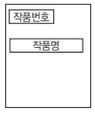
1. 필히 치수와 선 정리 후 제출(실시 도면이 아닌 잡지 게재 형식 도면_Korean Architecture 2010 · 2009 작품집 참조)
2. 스케일바는 월간 '건축사' 양식에 준함. 실명은 정리된 도면에 실명을 기입하고, 이를 이미지 파일(JPG 혹은 PDF)로 변환하여 필히 캐드 파일과 함께 저장 제출

– 작품개요 : 아래 양식 참조(HWP파일)

– 작품설명 : 한글 및 영문번역본 각 1부(1,400자 이내, HWP파일)

☞ DVD케이스 및 작품개요는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

DVD케이스 예)



작품개요 양식 예)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용 적 률	117.96%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규 모	지하 3층, 지상 3층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3,277㎡	설계담당	홍길동
건축면적	1,960㎡	시 공 사	문화건설
연 면 적	8,740㎡	건 축 주	건축문화청
건 폐 율	59.81%		외국참여사

• 건축물대장(표제부, 현황도 포함) 1부

• 출품동의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출품동의) 1부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계획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2. 5. 29(화) ~ 6. 1(금)

☞ kaa.kira.or.kr

○ 1차 작품접수 : 2012. 6. 4(월) ~ 6. 5(화) 09:00~18:00 **시간엄수**

1차 제출내용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작품계획안은 전면 우측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계획안 폼보드 · 우드락 부착 불가)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 작품설명서 전면 우측상단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번호표 예) 접수번호는 가로30mm, 세로 10mm의 크기로 흑색으로 표기

30mm

007 10mm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2차 작품접수 : 2012. 7. 17(화) 09:00~18:00 방문접수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2차 제출내용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에 자유롭게 주제를 적용, 발전시켜 표현
  ☞ 패널 두께는 1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폼보드 및 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 패널 전면 우측상단에 1차와 같은 양식으로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 모형(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 모형접수번호는 접수현장에서 부착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수상발표 및 시상 · 전시

수상작 전시회/ 시상식 : 추후 공지

□ 기타 출품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출품무효 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 실제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서류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응모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한 작품

※ 출품자는 작품접수 이후 접수취소가 불가하며,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시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계획건축물부문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발표 후 입상자는 지원한 작품의 모든 디지털자료(패널파일 및 모형사진)를 제출해야 함.

▷ 준공건축물부문 입상작에 한해 수상작 전시패널, 모형을 제출해야 함.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 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계획건축물부문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1인)
○ 국토해양부장관상, 트로피

▷ 공로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주최 /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홍보편찬팀 【Tel. 02) 3415-6862~4】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계획건축물부문 작품주제

화이부동 (和而不同) –Symbiotic Diversity

1. 배경

현대 우리 사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불평등, 불균형 양상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화합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흔히 접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다름은 차이일 뿐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차이에서 생겨나는 다양성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유로운 사고를 부여한다. 이러한 충격과 사고는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어, 균형과 절제라는 큰 틀을 거치며 우리를 소통하게하고 진화시킨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2. 발단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공자(孔子)가 논어(論語)에서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작금의 자본주의와 대량생산의 세계에서 건축은 변화되는 사회상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요구하고 있다. 스타건축사들 또는 스타가 되고자하는 건축사들에 의한 새로운 조형과 새로운 공간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존재만을 높이 손들어 공고히 하려 한다. 또 몇몇의 건축사는 이러한 조형과 공간을 답습, 차용과 도용으로 얼룩진 건축물들을 대량생산하여 동이불화(同而不和)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치부하는 병인(病因)은 사회적 폐해를 양산한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하는 것은 공존(Symbiotic)하는 주제와 조화로운 다양성(Diversity)의 추구이다. 공존의 시대에 걸 맞는 주제의 개발과 서로 어울려 화(和)하는 다양성을 가진 시도를 기대하고자 한다.

3. 전개

대상지는 실제 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프로그램이나 볼륨은 자유롭게 구성한다. 장소의 발굴은 주제에 부합하고 지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며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으로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주제나 기술적 주제의 건축적 해석도 가능할 것이며, 사회의 동질과 이질을 융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해법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건축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사회와 구성원간의 교차점으로서의 건축과 그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주제와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론적, 기술적 현실성을 근거로 두어야 한다.

1차 작품계획안은 2차 패널의 축소판이 아닌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제언과 전개과정을 설명하여 2차 제출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차 제출물은 1차의 작품계획안에 따른 창의적이며 일관된 표현과 설명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의 근본은 인간이며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인정하고 향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제언들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 본다.

단서들

개체와 공동체, 대립과 복합, 해체와 융합, 흔적과 생성, micro&macro, 적정기술과 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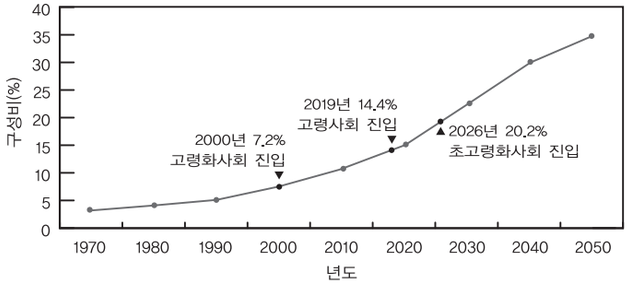
건축사 연금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This is reason why we need pension plan for architects!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노령 인구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출생률은 낮아지고 노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이상) 비중 증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서 1970년도 출생률이 최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엔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아쉽게도 현 세대의 경제활동 인원은 추후 노후대책도 스스로 마련해야만 하는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노령화와 더불어, 부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거대 자본 앞에 대다수의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 갈등 요소도 배가 되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종사하는 건축 및 건축사 업계는 여타의 업종에 비하여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나 40대 이하의 건축사들은 건축계의 불황과 함께 그동안의 자금의 축적은 물론, 앞으로의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11년 건축사협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건 이하의 허가를 수행한 건축사의 수는 전체 회원 수 대비해서 무려 7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당 건축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닌, 현행의 건축사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아래 건축사의 현재는 물론 추후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건축사 연금”이다. 이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업의 건축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사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급적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건축사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또한, 추진하여 향후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축사 연금을 도입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하는 건축사 연금을 도입하고 추진하는데에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존 건축사들의 재정적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건축사들의 현실은 미래를 대비하기는커녕, 현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충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번역 : 김청권 / H.E.D 건축사사무소
by, Kim, Chung-kwon, KIRA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 석사/건축학박사
- 한국 셉테드학회 부회장
-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겸임 교수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복지회 및 신협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현금을 납부토록 한다면, 그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따라서 건축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축사의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한 해법을 만드는 것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연금추진T/F에서 지속적으로 고심하고 논의한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조성된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이다. 건축사 연금은 과거 어렵게 조성 했었지만, 결국은 관리와 운영 및 집행의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상충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체 되었다.

이상의 제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4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가입조건 및 방법

종전 건축사 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협회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면 예외 없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특징을 보면 서구에서는 연금가입 형식이 임의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마치 공적연금처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라면 개별 건축사들의 가입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하도록 강제화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건축사 업무가 이루어진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협회와 건축사사무소간의 업무와 관련한 연관성과 관리상의 협력관계의 필요성 그리고 건축사협회의 업무에 회비징수, 설계도서 검토, 설계보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사연금의 보다 체계적인 인적자원 확보와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앞으로 진행될 건축사등록원제도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관한 문제는 금번 건축사연금 추진 내용 중 해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바탕에는 건축사의 현실이 무척 어려운 여건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구축과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이유는 그만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건축사 연금의 기금 조성은 첫째, 불입금의 납입 형태로 ㉠자납형 ㉡강제 징수형 으로 나눌 수 있고 둘째, 기금의 적립 형태로 ㉠정액 적립형 ㉡실적 적립형 ㉢혼합 적립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납부 및 적립의 형태로 보면, 원활한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강제 징수형 + 정액 적립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 언급한 내용처럼 건축사의 현 상황은 상당한 재정적 애로를 겪고 있는 관계로 '정액 적립형' 보다는 '실적 적립형'의 형태가 여러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건축사연금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기금조성의 핵심방향은 '강제 징수형 + 실적 적립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의 미비점은 다른 대안을 함께 강구하여 보완토록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징수형+실적적립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실적, 무수입의 건축사나, 또는 실적이 아주 적은 저실적, 저수입의 회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른 적립에 한계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연금이전 회원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존재의미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건축사들의 현 실태는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제도상의 도전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지금의 시대는 시스템의 시대, 규모 경제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IMF를 겪기 이전까지는 소규모의 스튜디오형 또는 아틀리에형 사무소도 나름 성행했던 작가의 시대가 있었다. 또한 작은 사무실에서도 적잖은 일을 하며, 충분히 연금 조성과 기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작가의 시대는 상당히 희석되고, 설계업무도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부 대형 건축사사무소로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건축사 연금을 추진한다면, 큰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와 작고 영세한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는 실적형 적립금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줄이고, 사회보장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대형 건축사사무소 소속 회원들의 기여가 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실적과는 무관하게 일정비율을 정해 자기 소득분과 이익 기여분으로 구분하고, 기여금의 일부를 저실적 또는 무실적 건축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시스템 안에서 구축된 이익을 자연스럽게 공유 할뿐만 아니라, 대형사무소 회원들의 조기퇴직에 따른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기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 징수형 + 실적 적립형을 위주로 세부적인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크게 설계 절차상의 징수와 기타 업무상의 징수로 구분하였으나, 세심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

아 추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건축설계 행정 절차상의 징수 및 납부

가) 계약단계의 징수 및 납부

1) 설계비(계약금)의 협회 수납 : 창구일원화로 수금의 원할, 기금 납부 등이 원할, 연금 납부액을 공제하고 잔금을 해당 건축사에게 입금, 설계비 정상화 과정의 수반이 필요함.

나) 행정단계의 징수 및 납부

1) 세움터상의 전산납부

: 제도 구축을 위한 대관 협의 및 공공의 협조가 수반, 인허가 절차시 수수료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납부

2) 도서등록제의 부활

: 도서 검토비를 설정하고 인허가시 협회에 직접 납부

3) 검사조사업무 대행비의 납부

: 업무대행비를 협회에서 수금하고 연금 납부액 공제 후, 건축사에게 입금

다) 시공단계의 징수 및 납부

1) 감리비의 협회수납

: 설계와 감리의 분리가 선행, 감리비 협회 수금 후 연금 납부금 공제

둘째, 기타 업무상의 징수 및 납부

가) 감정업무비의 협회 수납

나) 각종 환경조사업무 등의 새로운 영역의 구축 및 용역비 수납

: 새로운 업역의 업무대가기준 등의 수립이 수반되어야 함.

다) P.O.E등의 건축물 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신설 및 용역비 수납

: 시설물 관리제도 등 해당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제정이 필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성된 기금은 대한건축사회 산하의 연금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 및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주체는 건축사협회로 하고, 운영주체는 제1금융권을 비롯한 운용 능력을 검증 받은 금융권의 업체로 한다. 관리 및 운용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사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

기대 효과

건축사의 현주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 상황이 불리해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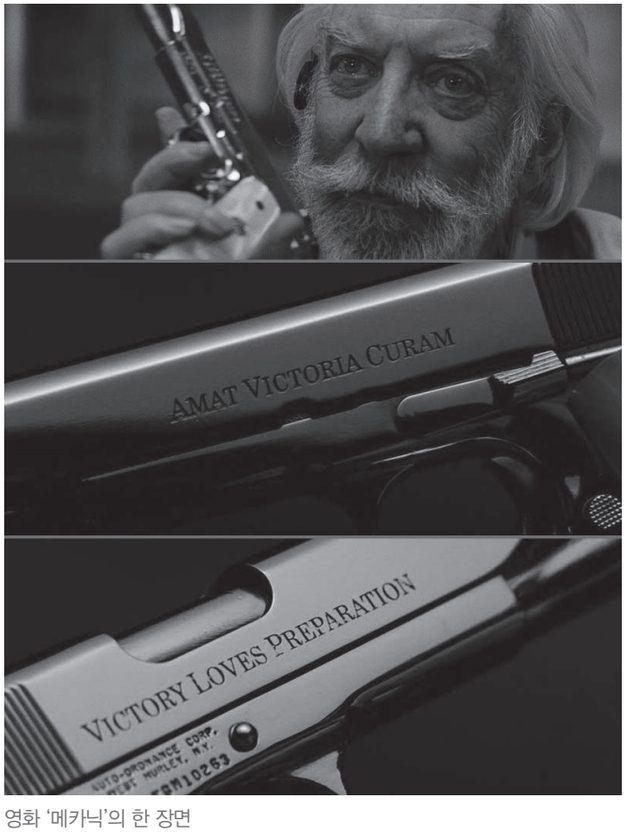
건축사연금은 어려운 현실을 딛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뜻을 모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건축사의 불안한 미래를 안정적 노후생활로 바꾸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들의 복리를 증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선행을 실천하고 선도하여 추락한 건축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

건축사는 국가 공인 전문직으로 사회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회도 건축사가 수행할 역사 문화 창달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는 늘 성실한 자세로 시대의 소명에 부흥하고, 그 사회적 책무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로 인하여, 현재의 우리 경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건축사에게 주어진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및 사회적 역할만을 요구하기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너무도 한계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인 건축사의 경제현실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건축사연금을 제정하여, 건축사의 노후생활 안정과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건축사 연금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강재 내화피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A turning point to shift of fireproof covering of steel structure



영화 '메카닉'의 한 장면

글 : 김시형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Kim, Si-hyeong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동 대학원 석사
-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재)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 (주)에이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AMAT VICTORIA CURAM

이 라틴어 문장은 영어로는 'Victory Loves Preparation', 즉 '승리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뜻이다. 괜히 라틴어 문구는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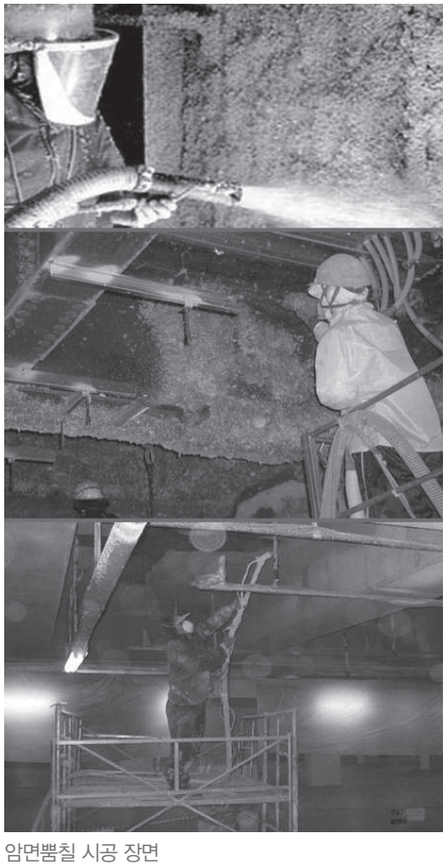
이 문구는 2011년, 떠오르는 액션스타 제이슨 스태덤(Jason Statham)이 주연한 영화 메카닉(The Mechanic)에서 영화의 스토리나 액션 씬이 주는 즐거움보다 내게 더 큰 여운을 준 문구이다. 영화에서 전문 킬러인 아서 비숍(제이슨 스태덤 분)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그의 멘토이자 스승처럼 여기는 해리 맥케나(도널드 서덜랜드)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의 해리는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주인공 아서에게 자신의 권총을 건네준다. 그 권총의 한 쪽에 새겨져 있던 문구가 바로 AMAT VICTORIA CURAM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스승을 살해하지만, 그의 스승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가르침을 받들어 영화 마지막까지 '준비된' 모습을 보이며, 멋지게 영화를 마무리한다. 제이슨 스태덤의 이런 '준비하는' 자세는 나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다.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사건을 미리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비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갑작스런 실직,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 심지어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하는 일 등 우리에게는 이렇게 갑작스런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운명적인 날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갑작스런' 일인지 되묻고 싶다. 어찌 보면 그것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발생할 일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직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가족의 죽음에 대비하여 추억을 쌓으며,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할 일엔 비상금을 챙겨두어야 한다.

사람의 삶의 이럴진대, 수 십 년을 버텨내야하는 건축물은 오죽할까?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런 일을 준비하는 것은 단 하나, 재난에 대비하여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일 것이다. 건축사들은 사실,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자인을 완성하면 그에 따르는 방재시스템은 소방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고, 법적으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들을 맞추어가며, 심지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법 조항의 취약점을 이리저리 꿰맞추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인허가와 준공을 위해 내팽개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축물을 시공하는 사람도 역시 재난에 대비한다기 보다는 보다 값싸고 저렴한 공법과 재료들을 사용하여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공자의 능력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건축물에서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면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소위 건축쟁이들은 당연히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만 한다.

재난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난은 무엇보다도 화재로서, 그 결과가 치명적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재료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의해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설사 법에서 이야기하는 불연 재료나 난연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했다 치더라도, 충분히 피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물이라면 피난 도중에 건축물이 붕괴하여 치명적인 인명의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고층건축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시간이 경제성을 띠지 못한다면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창의적인 공간의 디자인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적절한 방재시스템의 설계, 재료의 선정 그리고 구법의 선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적절히 그리고 강력히 설득되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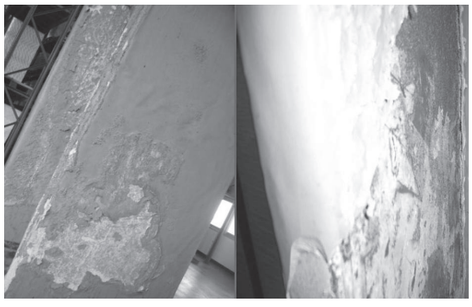
내화구조의 경우를 한 번 들여다보자. 철근콘크리트조라면 구조체가 스스로 내화구조이니 별 걱정이 없다. 불이 나도 구조체가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요즘 많이들 쓰는 강구조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 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강재는 엿가락처럼 녹아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강구조를 내화구조로 만들기 위해 '내화피복재'를 덧씌운다. 우리나라에서 내화피복재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대부분 암면뿜칠이 사용되고, 노출되는 부분은 보통 내화페인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강구조 건축물에 채택된다.


암면뿜칠 시공 장면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암면뿜칠의 경우, 내화피복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장에서 뿜칠을 할 때 그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핀으로 일일이 찔러서 얼마나 칠해져 있나를 보는 것이다. 상당히 난감한 일이다. 문제는 어렵사리 뿜칠을 중단하고 핀을 찔러봤는데 기준두께에서 2mm정도가 모자란다고 치자. 뿜칠을 더 할까? 아마도 그 정도면 되었다며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감리자가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즉, 일일이 두께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뿜칠이라는 특성상 일정한 두께를 고루 갖추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뿜칠의 성상(性狀)을 보면 알다시피 수분이 증발하고 난 후에는 쉽게 부스러지고 먼지가 날리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시공된 지 몇 년 지난 건물의 암면뿜칠 상황을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다.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락된 암면찌꺼기와 먼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암면뿜칠이 내화피복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뿜칠의 작업상황은 어떤가?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마스크를 이중삼중으로 쓰고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하지 않는 부분으로 뿜칠이 날리지 않기 위해 철저히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하고, 뿜칠작업을 할 때에는 다른 공종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내화페인트는 어떤가? 내화페인트는 참으로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다. 열이 가해지면 이 페인트가 부풀어 올라 열전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내화페인트는 거의 2~5mm의 두께로 강재 위에 칠해진다. 그 성상이 딱딱하다면 좋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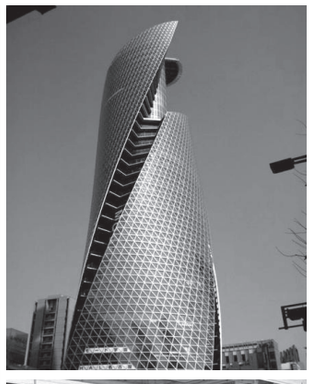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어서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다. 그만큼 손상의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지진과 같은 진동에 의해서도 탈락될 위험이 있다. 내화페인트가 탈락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제품 카탈로그에 5년이 지나면 보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영구적이지 않은 재료라는 것을 반증한다. 만약 탈락되었거나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취약한 부분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강구조 전체에 열이 전달되어 더 이상 내화구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곱씹어 볼 문제다.


내화페인트 탈락 사례

이제는 강구조의 내화피복도 우리 경제의 성장에 걸맞게 조금 더 선진화된 시스템과 재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화된 일본의 경우, 강구조의 내화피복재료로써 '성형판 붙임공법'으로 불리우는 내화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내화보드는 강구조 위에 재단, 조립, 부착하는 내화피복재료다. 화재가 발생해도 열전달이 극히 적고, 목재합판처럼 재단해서 조립식으로 부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작업이 쉬울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매우 미려하다. 형상은 얼핏 석고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위에 벽지를 붙이거나 수성페인트 및 스프레이 도장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만큼 마감재를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없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내 강구조 건축물의 20%이상이 더 이상 암면뿜칠을 사용하지 않고 내화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되고 있는 고층 오피스나 호텔 등 고급건축물에서는 거의 대부분 규산계 칼슘내화보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규산계 내화보드는 사실 개발된 지 꽤나 오래된 재료다. 그러나 즐겨 사용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규산계 내화보드 자체가 암면 뿜칠에 비해 고가(高價)이고, 또한 일정크기로 생산되는 제품을 현장에서 잘라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손실이 많아 더더욱 시공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해 파손되는 사례도 다소 있었기 때문에 즐겨 사용될 수 없었던 치명적 단점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를 추구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기성화 되어 나오는 보드제품이 자신의 디자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들을 대폭 보완한 제품들을 이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자재가 JIC (Japan Insulation Company)

이즈미타워, 도쿄



스파이럴타워, 나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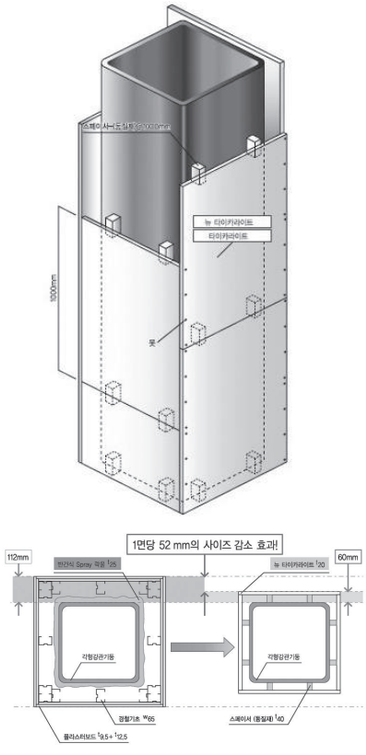
PRADA 매장, 도쿄

도쿄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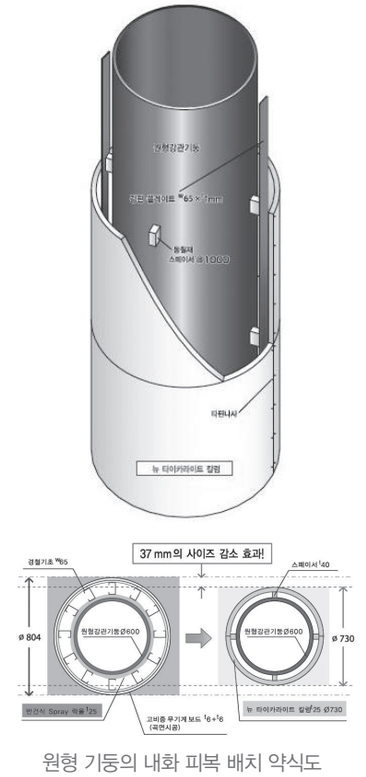
의 타이카라이트(Taikalite)이다.

건축사가 건물을 디자인할 때 제품의 형상이나 크기 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품이 디자인을 따라와야지 디자인이 제품을 따라갈 순 없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타이카라이트와 같은 제품은 공장에서 디자인에 맞게 성형되고 재단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에 최적화된 주문형 소량생간 기성품이라고 볼 수 있다. 원형의 강재 파이프를 감싸기 위한 원형 내화보드는 이 제품의 압권이다. 다양한 규격의 몰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름과 곡률의 보드들이 생산된다. 현장에서는 생산된 제품 박스를 뜯고, 제품을 조립하기만 하면 된다. 제품은 주로 본드와 타카(Air Tacker)로 조립한다. 이미 주문형 생산제품이기 때문에 조립할 때 재료의 손실도 적고, 조립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작업환경도 깨끗하고 청소과정도 쉽다. 또한 이 작업을 진행할 때 타 공종과의 병행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기간을 줄이는 데도 한 몫 할 수 있다. 조립이 완성된 후에는 마감면이 깔끔하기 때문에 도장이나 벽지마감만 하면 되고, 시공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화피복 성능은 그 두께가 균일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립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보드와 보드 사이의 유격은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퍼티

(putty)를 이용해서 메우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추운 겨울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각 기둥의 내화 피복 배치 약식도



원형 기둥의 내화 피복 배치 약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재료비다. 암면뿜칠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많은 건축물들이 규산계 내화보드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최근 설계에 이 제품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닉켄셱케(日建設計)의 건축사 이바노다이스케(伊庭野大輔)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된다. "비싼 재료비 때문에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암면뿜칠공법을 채택하면 어차피 그 위에 또 다른 재료를 마감목적으로 덧대어야 하기 때문에 마감까지 고려한 전체 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오히려 암면뿜칠의 두께와 마감재의 바탕재 만큼의 두께를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둥 사이즈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넓은 시야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마감 재료를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성능, 작업환경, 작업시간, 지속성 및 친환경성이 떨어지는 재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제거된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피부과에 가서 트러블을 치료하고, 분위기 있는 색조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완성은 결코 완벽한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 외적 완성은 내적 완성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즉, 외적 완성은 물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동반되어야 빛을 발한다. 좋은 것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 물리적 건강 상태를 최고조로 유지한다면 외적인 '꾸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책을 많이 읽고 깊은 사색을 하며, 지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극대화한다면 금상첨화에 화룡점정이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마감 재료와 다이내믹하거나 정적인 공간감, 그리고 철학적인 디자인 어휘를 통해 사용자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성'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적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때로는 그것에 보다 긴 시간,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건축주를 설득하고 시공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강구조에서 내화피복의 재료선정과 같은 문제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 백, 수 천 가지 결정사안 중에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결정을 수도 없이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굴복한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턱걸이하듯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제이슨 스태덤의 영화 메카닉에서 나에게 울림을 준 문구를 되새겨 본다.

AMAT VICTORIA CURAM

협회소식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8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444명 중 371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비롯한 9개의 안건이 상정 · 처리됐다.

오전 10시 16분 강성익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유명을 달리한 회원에 대한 묵념과 황정복 이사의 건축사헌장 낭독이 이어졌다. 내외빈 소개에서는 이날 총회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과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마사야 후지모토 회장과 야수유키 사쿠라이 국제위원 등 외부인사 등이 소개됐다.

개회사에서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은 "이번 총회 안건들은 위기극복이라는 절박함 속에 건축사와 협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과 사업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안건상정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하난지유(何難之有)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견지하여 서로 화합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으며,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부회장과 박재동 화백이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이종환 부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공동으로 주최해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고, 박재동 화백은 국제건축영화제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한 공적이 인정됐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동현 서기관과 건축문화경관팀 홍성호 사무관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공로패 및 표창장, 장학증서 등이 수여됐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5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다음 추대회원에 대한 추대 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서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특히 제1호의안인 '정관 개정의 건'이 쟁점으로 대의원들은 열띤 논의 끝에 정관개정안 중 회장 직선제 관련조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9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한명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감사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상부 회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사 7인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개회를 선언하는 강성익 회장

공로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

김상부 신임 감사의 당선사례

퇴임 임원

■ 신임 임원

이사 **김용주**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전남대학교 전문경영대학원 석사
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현 광주지방법원조정위원

이사 **김용찬**
동선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전 신건축연구소 근무
현 강서구청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이사 **김주식**
건축사사무소 가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현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이사 **서용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전 강남구건축사회 부회장
현 서울시 노원구, 관악구, 도봉구 건축심의위원

이사 **조형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전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현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

이사 **최남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진화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
전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실내건축과 출강

이사 **최용달**
(주)건축사사무소 문화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전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현 포항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우리협회는 지난 3월 14일(수)에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부의안건 중 〈제7호의안 : 비 상근부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비상근부회장으로 조형식 이사를 호명하였다.

■ 현임 임원

상근부회장 **권병조**

비상근부회장 **이각표**

비상근부회장 **강석후**

비상근부회장 **조성원**

이 사 **김 윤**

이 사 **김 항 년**

이 사 **신 춘 규**

이 사 **정 익 현**

이 사 **정 태 복**

이 사 **조 충 기**

이 사 **최 광 식**

이 사 **황 정 복**

■ 감사

감 사 **이 영 호**

감사 **김상부(신임)**

청솔 건축사사무소
경상대학교 건축계획 석사
전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제46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정관개정안중 회장 직선제 관련조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1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제1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2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구회관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회관 대지지분관련 총회 의결사항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감사(1인) : 김상부 회원
– 이사(7인) : 회장에게 위임함.

제2회 이사회

2012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주관 건축사회 선정의 건,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의 건, 건축박물관 수장품 조사 · 수집의 건,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 제정의 건, 어린이 건축교실 및 한옥체험 행사 공동추진의 건,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홈페이지 관리방안의 건, 회관지분금액 감정을 위한 총회안건 상정요청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의 건, 2011년도 결산의 건, 협회발전기본계획 4차년도(2012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제46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2012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주관 건축사회 선정의 건
– 경북건축사회는 2001년에 주관하였으므로 2013년에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서 주관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의 건
–제46회 정기총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박물관 수장품 조사 · 수집의 건
– '12년도에는 자료조사 및 수집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 조사연구비 (약 1,200만원)로 반영하기로 하고, 부의안건 제5호의 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 제정의 건
– '12.6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회에서 사업전체에 대한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그 운영규정과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자체규정이 상충될 경우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자체 규정을 수정토록 함.
• 제5호 : 어린이 건축교실 및 한옥체험 행사 공동추진의 건
– 사업 취지와 협회의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참하기로 하고, 소요예산(2천만원) 반영문제는 부의안건 제5호의안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홈페이지 관리방안의 건
– 아카시아 홈페이지는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주관리토록 하고, 관련예산(약 250만원)은 일반회계 정보전산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함.
– 아카시아 홈페이지의 전면개편 및 운영사업 등은 아카시아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상태이기에 부산광역시와 협의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부산건축사회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협의토록 함.
• 제7호 : 회관지분금액 감정을 위한 총회안건 상정요청의 건
–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제46회 정기총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문안 조정은 행정위원장에게 위임함.
▷회장의 피선거권 제한(5년이상 정회원 자격 유지)
▷재석대의원과 출석대의원의 용어 정립
▷회장 당선자의 예우(이사회 참석 등) 등
• 제2호의안 :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의 건
– 건축사교육원 설립(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조건을 명시하기로 함.
▷ 국토부의 지침 확정시 조직, 예산, 전산시스템 도입, 교육계획 등 세부계획을 이사회에서 조정 시행
▷ 회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점차 확대 시행
• 제3호의안 : 2011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4차년도(2012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정책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한 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제1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예산검토 임원과 재경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위원장이 확인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제46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서울건축사회에서 요청한 '회관 대지지분 관련 총회 의결사항 변경의 건'을 제8호의안으로 추가하고, '임원 선출의 건 '은 제9호의안으로 순연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67명)를 원안대로 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8호의안 :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 회장단에 위임하나 공로회원 선정 시 실제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기로 함.
• 제9호의안 : 2012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단에 위임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의 건
–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행정위원장이 좀 더 수정 · 보완한 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의 건
– 건축사 연금제도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추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협회에 전달하기로 함.
• 제3호 : 2012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 2012년도 실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추후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워크샵 때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 원안에 동의하되, 회비수납을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문제, 등록원설립에 따른 각 시도건축사회 재정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 · 검토하기로 함.
• 제5호 : 제46호 정기총회 의제의 건
– 원안에 동의함.

▲기타사항
'12.7.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시건축사회의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도록 건의함.

■ 제2회 회장단 회의

제2회 회장단 회의가 지난 2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6회 정기총회 공로회원 및 단체표창 선정의 건
– 제46회 정기총회 공로회원 및 단체표창을 확정함.
• 제2호 :「2012 건설의 날」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2012 건설의 날」포상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함.

■ 제3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분리의 당위성 및 장 · 단점의 건
–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설계자 감리와 설계자가 아닌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선방향으로 정하기로 하며, 다음 회의에서 건축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4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분리의 법령(안) 마련의 건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정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축조심의를 통해 위원회(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5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5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따른 추진계획의 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으며, 설계자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6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6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의 건

–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안)을 마련하였음.

■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검토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건축연구원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

• 제2호 : 구조기술사회 입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대처의 건

– 법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구조기술사회 입찰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동 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법률안에 대처와 함께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한글폰트 저작권 관련 대응의 건

– 전북건축사회에서 한글폰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동 사항이 회원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 제4호 : 정관개정(안)중 상설위원회 편성의 건

– 이규홍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정관개정(안)중 상설위원회 편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상설위원회 편성(안)을 작성하기로 함.

• 제5호 : 2012년도 실천계획(안) 검토의 건

– 정책위원회 위원 및 이사중 4인(위원장 포함)이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6호 : 2012년도 정책위원회 운영방향의 건

–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함.

■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관리의 건

– 2012년 감사선거의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의 건

–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음에 따라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해산키로 함.

■ 제4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4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시스템 구축 관련 건

– 분야별 담당위원과 프로그램 개발자를 매칭시켜 담당위원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등록업무 홍보 관련 시 · 도건축사회 총회 참석에 관한 건

– 제3회 회의에서 결정된 시 · 도건축사회별 담당위원을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담당위원	시 · 도건축사회
김항년 위원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정태복 위원	부산,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이성희 위원	대전
이성엽 위원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조인숙 위원	강원

※ 제주지역 제외

• 제3호 :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시스템 관리 전산직원 충원의 건

– 협회 내부 행정사항이므로 내부결재 시 위원장의 협조 결재를 거쳐 충원 하기로 함.

■ 제3회 국제위원회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AIA 컨벤션 참가의 건

– 2012년도 AIA 컨벤션 대표단은 건축사등록업무 준비, 교육원 발족과 관련하여, 미국건축사등록원과의 교류회의 개최, 해외자료 수집 등을 위해 국제위원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건축사교육원(가칭)에서 대표단을 구성하고 국제위원회의 경우 교류회의 개최를 위해 국제위원장이 참석하고 국제위원회 위원 중 참석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함.

• 제2호 : 2012년도 베트남건축사협회 건축박람회 참가의 건

– 준비기간 부족으로 2012년도 베트남건축사협회 건축박람회는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베트남건축사협회 박람회 등 행사개최 일정을 확인하여 2013년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베트남 진출 건축사사무소 참여 독려, 국토해양부 파견 공무원 협조요청, 작품 수준이 높은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해외건축설계시장 개척 조사단 행사가 성과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제3호 : 2012년도 태국건축사협회 컨벤션 참가 및 교류회의 개최의 건

– 현재 본 협회 회장 명예회원 수여에 관해 문의한 상태이며, 회장방침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해외교류단체 초청 및 명예회원 추대 기준의 건

– 2012년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 미국건축사협회 회장, 태국건축사협회 대표단,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대표단, 베트남건축사협회 대표단을 초청하기로 하고, 명예회원 추대 기준은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국제위원장이 서면으로 정리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우리협회,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컨벤션 참가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컨벤션'에 참가했다. 우리협회에서는 강성익 회장을 포함한 7인의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의 급속한 도시개발 및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관한 기조강연을 가졌다.

또한 이번 방문에선 두 협회 간의 교류회의 개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관련 회의 개최 등 교류 활동을 추진했다.

우리협회, 건축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중간보고회 참석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우리협회에서는 오동욱 법제위원장과 양성희 건축제도팀장이 참석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과 상충되는 문제와 건축문화의 정의 등에 관해 협의했다.

우리협회, 건축사등록업무 시.도건축사회 총회 홍보

우리협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위원장 이각표)는 오는 5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제도를 회원에게 홍보하고자 지난 2월 29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총회를 시작으로 총 14개 시.도건축사회(울산, 제주 제외) 총회에서 건축사등록업무를 홍보 중이다.

홍보담당 위원을 김항년, 정태복 이사와 이성희, 이성엽 위원으로 구성하여 건축사등록업무 홍보동영상(김항년 이사 제작) 상영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롭게 바뀌는 건축사자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우리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코엑스와 '그린시티위크' 공동개최

우리협회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 및 코엑스와 함께 '그린시티위크(Green City Week)'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과 승안원 공창석 원장, 코엑스 홍성원 사장은 그린시티위크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력추진식을 가졌다. 따라서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2012)은 '승강기안전엑스포',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 '공공환경시설산업전' 등과 함께 개최돼 승강기 · 친환경 건축물 · 각종 시설물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참여 기업이 다양해지고 관람객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건축사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가져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지난 2월 24일 전주시에 위치한 '한사랑복지회'를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가지고 아울러 성금 100만원과 기념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성엽 회장을 비롯해 여성건축사위원회 김희순 위원장, 전주시의회 박진만 의원(건축사)등 회원 15명이 참여했다.

건축계소식

대한건축학회 제35대 회장에 '서치호' 교수 선출

대한건축학회 제35대 회장에 서치호 교수(건국대)가 선출됐다.

각 분야별 부회장엔 이상호 교수(총무 · 연세대), 최재필 교수(연구1 · 서울대), 이영수 교수(연구2 · 홍익대), 유길준 교수(연구3 · 동아대), 하기주 교수(지회담당 · 경일대), 김대익 교수(사업담당 · 한경대)가 각각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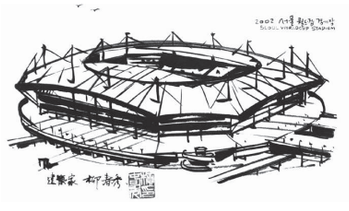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 제28대 회장에 '이광만' 회원 취임

(사)한국건축가협회 제28대 회장에 이광만 회원(주.간삼건축)이 선출됐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2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제54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2011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012년 사업 예산승인,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개선에서는 수석부회장에 한종률(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부회장은 김병윤(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사업부회장에는 김성대(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감사에는 허동윤(주.상지이앤에이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류춘수 회원, '建築師 류춘수의 閑談과 드로잉展' 개최



류춘수 회원(이공건축 대표)이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 전당 V-갤러리(도로레벨)에서 '建築師 류춘수의 閑談과 드로잉展'을 연다.

이번 행사는 이공건축 창립(1986년) 25주년을 기념하며 전시 · 출판 및 본인과 함께 초청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의 장인 한담(閑談)을 겸한다. 드로잉전은 류춘수 건축사의 약 사반세기 동안의 스케치와 건축설계 과정의 드로잉을 보여주며, 「진흙탕에 피는 연꽃을 위하여」와 「류춘수의 DRAWINGS」등 두 권의 출판도 기념한다.

- 출판 기념 및 개막 공연: 4월 3일 17시
  공연: 서명희+이영광/ 국악단 소리개
- 특별 출품: 김석철(아키반 건축)
- 閑談(류춘수와 초청작가, 관객): 매일 17시부터 1~2시간 개최
  - 4월 4일(수): 이종호 (메타 건축/한예종 교수) / 구본준 (한겨레신문)
  - 4월 5일(목): 류춘수 (이공 건축)
  - 4월 6일(금): 민현식 (기오헌 건축/한예종 교수)
  - 4월 7일(토): 방철린 (칸 건축)
  - 4월 8일(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
  - 4월 9일(월): 유홍준 (명지대 교수)
  - 4월 10일(화): 이문열 (소설가)
  - 4월 11일(수): 김인철 (아르키움 건축/중앙대 교수)
  - 4월 12일(목): 우경국 (예공 건축)
  - 4월 13일(금): 조민석 (매스스터디스 건축)
  - 4월 14일(토): 승효상 (이로제 건축)
  - 4월 15일(일): 김봉렬 (한예종 교수)
  - 4월 16일(월): 류춘수 (이공 건축)
  - 4월 17일(화): 김광현 (서울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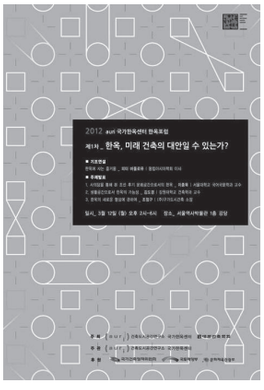
정림건축, 2012 연감집 발간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사 김진구)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10번째 연감집을 발간했다.

2012년 판은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10'이란 타이틀을 정했으며, '10'은 정림건축 연감집이 만들어지는 횟수를 기념하기도 하나, 현대건축의 10가지 화두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며, 다시금 10년의 미래예측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공간환경을 만들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정림건축의 미션과 함께 동시대에 건축을 함께 하는 모든 건축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발간됐다.

2012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는 관련 전문가와 한옥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총 네 차례의 포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1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첫 번째 포럼 '한옥, 미래 건축의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주제와 함께 오는 11월 12일에 개최될 4차포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제2차 포럼(5월 14일): 한옥, 도시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
- 제3차 포럼(9월 14일): 한옥대량보급을 위한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
- 제4차 포럼(11월 12일): 한옥의 일상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신간안내

사회미학으로 읽는 개화기-일제강점기 서울 건축

임석재 저 | 404쪽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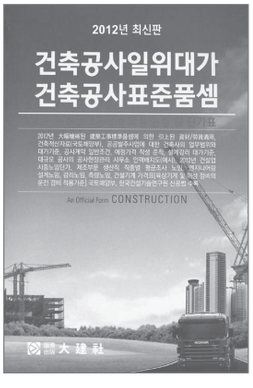
이 책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나타난 여러 건축현상을 사회미학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정치·사회적 병리 증세는 상당부분 일제강점기 때 싹튼 것이며, 이것이 올바로 청산, 극복되지 못하고 근대화로 이어지면서 점점 악화되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건축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증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로서, 저자는 일제강점기 건축의 역사적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 근대화에 나타난 악영향의 총본산'으로 진단한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이 땅에 서양건축이 시작된 개화기시대 건축의미는 무엇이며, 일제강점기 때 건축 활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악영향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한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데 있다.

• 문의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02-3277-2965

2012년 최신판 건축공사 일위대가+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산연구회 저 | 1420쪽 | 대건사



이 책은 건축공사에 꼭 필요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정리했다. 가설, 토공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벽돌, 타일, 블록, 돌공사, 목공사, 방수, 지붕 및 홈통, 금속, 미장, 창호, 유리, 칠공사, 수장, 기계화시공, 기계경비산정, 건축적산자료, 시중노임단가, 기타, 가스설비공사 등 공사별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을 품목별로 정리해 소개 하고 있어 관련 기관이나 업계의 실무자에게 유용하다.

일반적인 공사 외에도 문화재공사부문이나 조경에 관련된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학의 건축과 교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2년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도 게재돼있다.

• 문의 : 대건사, 02-715-668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전시회: Design with the Other 90%:

Cities explores socially conscious urban interventions.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at the United Nations (January 2012)

남아프리카 Durban의 이른 아침 시장 / Courtesy Itrump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에 의해 기획되고, UN Visitors Lobby에서 전시중인 사회 의식적인 도시적 중재에 관한 중요한 조사 결과인 〈Design with the Other 90%: Cities〉전시회는 방문객들을 엄청난 양의 지도들, 색, 흑백사진들, 인포메이션 그래픽, 천연의 모델들 그리고 깜박이는 비디오 스크린 세례로 환영하였다. 이 어수선한 전시 설정은, 정이 안 갈 만큼 깔끔한 디자인 전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관람 전 필수 의약품과 같은 조그마한 필요 설정이다. 하지만, 이 혼잡한 상황을 뒤로 하게 되면서 그 진가를 마주 하게 된다. 획기적이진 않지만, Design with the Other 90%는 디자인의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빠른 도시화의 위험성에 대비를 상기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긍정적인 증거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MOMA의 행사 〈Small Scale, Big Change〉와 비교하자면, 같은 주제의 영역을 전시하지만 Design with the Other 90%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보여 주기 보나는 현실적인 해결책에 총력을 기울였다. 쇼가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 – 그리고 보다 나아 보이는 전시가 되게 해 주는 것 – 은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와 사방으로 곳곳에 있는 최종 소비자들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호수의 끝자락에 심플한 대나무 플랫폼을 만들어 이

Bang Bua Canal Community, Bangkok, Thailand./Courtesy ACRH

전엔 숨 막힐 정도의 쓰레기 땅을 새로운 정원으로 탈바꿈 하여 주민의 오락과 교육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 빈민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였고 어린 소녀들은 그 공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그들의 빈곤한 주민 사회에서 어떻게 이 보호시설 플랫폼이 그들에게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가능토록 했는지 설명하였다. 그들 중 한명은 성장하여 건축가가 되고 싶어 졌다며 이야기 했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는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비슷하게 소박한 고귀함을 준다. 이 또한 방글라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사 Mohammed Rezwan가 설계한 Floating Community Lifeboats는 학교, 도서관 그리고 건강클리닉의 역할을 한다. 이 Lifeboats는 현재의 요구를 해결하면서 그 지역 특유의 건축적 역사와 상황을 잘 이해하여 설계한 간단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회반죽을 바른 대나무 벽들과 기둥이 없는 구조들은 사회복지 제공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게 해 주며, 또한 이지역의 기후변화와 조수에 취약한 이 나라의 취약점의 이해가 설계에 녹아 있었다.

이 전시는 임시 빈민가 거주지와 계획 개발 과 같은 문제가 엮어져 있는 통합적인 경제적 문제들의 예제들을 포함한다. Caracas의 Integral Urban Project에서의 해결책은 지역사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들쭉날쭉한 보행자용 길과 계단들을 포장하고 확장하여 향상된 배수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재개발된 Warwick Junction 시장은 소규모 음식행상인들을 위해 작은 조리실이 포함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과 철제 서빙 테이블을 만들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두 프로젝트 모두 그들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각적인 물량공세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전시는 약간 무언가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넓은 세계의 많은 프로젝트들 중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까지 넘어 가며 이상하게도 평준화가 되어가며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장소들의 각각의 특징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듯 한 느낌이 든다. 전 세계의 임시 거주지의 상황은 각각 역사와 원인,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더욱 일목요연한 전시 디자인 기획과 다른 조직 전략이 있었다면 관람자가 거대한 정보량의 차이점과 필요 정보의 여과를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Design With the Other 90%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그들의 범위에서 절제되어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되어 질 수 있다. 이 전시에 포함된 디자이너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은 이 적합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입증했다. Cooper-Hewitt는 새로운 대중과 기관의 청중을 연결 해 준 것으로 충분히 이 전시기획의 가치를 인정받을만하다. 이 전시회는 최근 문을 닫은 Carnegie Mansion 같은 박물관의 전형적인 쇼보다 더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이 관람객들 중 몇 명은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의사결정자이길 희망해본다. 현명한 정책은 매년 세계 주변도시들로 모여든 수백만 명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엄청나게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윗글의 일부는 architect's newspapaer 의 글 일부를 발췌, 인용, 번역 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1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526	5,526	91	182	8	24	5,625	5,732	1,643	1,643	226	452	53	159	28	112	19	128	1,969	2,494	7,594	8,226
서울	874	874	23	46	2	6	899	926	835	835	129	258	35	105	12	48	12	74	1,023	1,320	1,922	2,246
부산	471	471	12	24	2	6	485	501	108	108	19	38	2	6	2	8	2	14	133	174	618	675
대구	469	469	19	38	4	12	492	519	68	68	17	34	2	6	3	12	1	5	91	125	583	644
인천	273	273	3	6	0	0	276	279	68	68	6	12	1	3	0	0	0	0	75	83	351	362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39	39	8	16	2	6	2	8	0	0	51	69	253	272
대전	257	257	5	10	0	0	262	267	33	33	6	12	5	15	0	0	1	14	45	74	307	341
울산	181	181	5	10	0	0	186	191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8	217
경기	782	782	1	2	0	0	783	784	239	239	18	36	2	6	3	12	1	5	263	298	1,046	1,082
강원	179	179	2	4	0	0	181	183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9	216
충북	219	219	3	6	0	0	222	225	37	37	2	4	1	3	2	8	1	9	43	61	265	286
충남	253	253	1	2	0	0	254	255	50	50	4	8	1	3	2	8	0	0	57	69	311	324
전북	249	249	4	8	0	0	253	257	22	22	3	6	1	3	1	4	0	0	27	35	280	292
전남	205	205	1	2	0	0	206	207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28	237
경북	376	376	5	10	0	0	381	386	38	38	4	8	0	0	0	0	0	0	42	46	423	432
경남	413	413	6	12	0	0	419	425	29	29	3	6	0	0	0	0	0	0	32	35	451	460
제주	124	124	0	0	0	0	124	124	14	14	1	2	0	0	0	0	0	0	15	16	139	140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226	10	8,236	100%	23
서울	2,246	3	2,249	33.9%	10
부산	675	1	676	7.9%	9
대구	644	0	644	7.7%	0
인천	362	0	362	3.8%	0
광주	272	0	272	3.7%	0
대전	341	1	342	3.7%	0
울산	217	0	217	2.6%	0
경기	1,082	2	1,084	12.2%	2
강원	216	0	216	2.6%	0
충북	286	0	286	3.0%	0
충남	324	3	327	3.1%	0
전북	292	0	292	3.0%	0
전남	237	0	237	1.9%	0
경북	432	0	432	4.6%	1
경남	460	0	460	5.0%	1
제주	140	0	14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732	2,494	-	8,226	
비율	69.68%	30.32%	-	100%	
사무소수	5,625	1,969	-	7,594	
비율	74.07%	25.93%	-	100%	